

정답과 해설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평가문제집



1. 언어와 국어의 이해

(1) 언어의 본질

※ 소단원 적중 문제 ※					
pp. 10~11					
01 ④	02 ①	03 ⑤	04 해설 참조	05 ③	06 ①
07 ③	08 해설 참조				

01. ‘팽이’를 부르는 형태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을 보면, 의미와 형태가 일대일로 대응한다고 할 수 없다.

02. 실제 강아지나 수탉이 우는 소리는 차이가 없지만, 소리를 나타내는 음성 상징어로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방식이 달라진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다.

03. ‘빨주노초파남보’의 일곱 가지 색으로 무지개가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것은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이나 언어의 분절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뿐,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언어가 달리 표현되는 사례로 볼 수는 없다.

04. 예시 답 영어권에는 없는 발달된 벼농사 문화를 한국어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배점
예시 답에 가깝게 설명한 경우	5점
예시 답에 가까우나 설명이 미흡한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있는 경우	-1점

05. 해당 부분에서는 언어를 구성하는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 즉 기호로서의 언어가 지니는 특성인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추상성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④에서 언어의 구조적 특성을 다루고 있다.

06. 지시 대상(사과)과 말소리(한국어의 ‘사과’, 영어의 ‘apple’, 중국어의 ‘苹果’)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음, 즉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 주는 예이다.

오답 풀이 ② 언어의 창조성에 대한 설명이다.

- ③ 언어의 추상성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설명이다.
- ⑤ 언어의 체계성에 대한 설명이다.

07. 인간이 제한된 수의 기호를 활용하여 무한한 표현을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 즉 언어의 창조성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내용이다.

08. 예시 답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나타낸 의성어들은 실제 소리를 흉내 내어 만든 것이므로 의미와 말소리 사이의 관계가 비교적 가깝지만, 언어마다 조금씩 말소리에 차이가 있는 점을 통해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의 자의적인 관계를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예시 답에 가깝게 설명한 경우	5점
설명이 미흡하거나 ‘자의성(자의적인 관계)’이라는 핵심어가 누락된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있는 경우	-1점

(2) 국어의 특성과 위상

※ 소단원 적중 문제 ※					
pp. 13~14					
01 ③	02 ④	03 ④	04 해설 참조	05 ①	06 ⑤
07 해설 참조	08 ②				

01. 국어는 색채와 관련된 표현 및 친족어와 호칭어가 섬세하게 분화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국어는 문장의 필수적인 성분을 생략하는 것이 다른 언어에 비해 용이하다.

- ② 국어의 어휘는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의 삼분 체계를 지닌다.
- ④ 음운, 단어, 문장, 담화의 체계를 지니는 것은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 ⑤ 국어는 ‘주어-목적어-서술어’를 기본 어순으로 한다.

02. 국어의 어휘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삼분되어 있다. ‘눈높이’, ‘오솔길’은 고유어, ‘가정’과 ‘역사’는 한자어, ‘아파트’와 ‘인터넷’은 외래어이다.

03. 예문에서는 주어가 생략된 상태에서 목적어의 뒤에 서술어가 위치하는 우리말의 기본 어순을 따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주어인 ‘나는’이 생략되었다.

- ② 상대방인 ‘그대’를 높여 ‘-니니다’라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였다.
- ③ ‘그대’, ‘를’, ‘사랑합니다’의 세 단어로 문장이 이루어져 있다.
- ⑤ 목적어인 ‘그대를’이 서술어인 ‘사랑합니다’의 앞에 위치하였다.

04. 외국인에게 한국어의 자음 중 ‘ㅂ’과 ‘ㅃ’의 구별이 되지 않는 이유를 탐구하는 문제이다.

예시 답 영어는 한국어와 달리,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대립 체계가 없으므로 ‘ㅂ’과 ‘ㅃ’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배점
예시 답에 가깝게 설명한 경우	5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있는 경우	-1점

05. 이 글은 사용 인구가 세계 13위에 해당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06. (가)와 (나) 모두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언어의 순위를 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국어의 위상을 서술하고 있다.

07. 글쓴이는 전 세계 6천여 개의 언어 중 대부분의 언어가 사용자 수가 매우 적어 영세하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사용자 수는 세계 12~13위에 이를 정도로 많다는 것을 ㉠과 같은 한국어 멸종 위기설에 대한 반박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예시 답 영세한 대부분의 언어와 달리 한국어는 사용자 수가 많다.

평가 기준	배점
예시 답에 가깝게 설명한 경우	5점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있는 경우	-1점

08. (가)의 글쓴이는 한국의 경제 규모, 한국어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필요, 세종학당 등을 통한 한국어 교육 시스템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어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임을 예측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오답 풀이 ㉠ (가)에 한글 학습의 용이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 영세한 언어들에 대해서는 (나)에서 언급하고 있다.

중단원 실전 문제 XX pp. 15~17

01 ① 02 ② 03 ④ 04 ② 05 ⑤ 06 ② 07

해설 참조 08 해설 참조

01. 이 글은 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 사회, 문화와 언어가 어떠한 상호 영향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사고와 사회, 문화는 인간의 삶의 다양한 측면이므로 '인간의 삶과 언어'라는 제목이 가장 적절하다.

02. 이 글에서는 어린아이의 언어 능력 발달 과정을 통해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살펴보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 ㉤)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예를 들어 가며 설명하였다. (나)에서는 한국어라 할지라도 지역과 연령, 성별, 사회 집단에 따라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3. 동일한 지시 대상에 대해 영어와 한국어의 표현 방식이 다른 것은 언어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개인보다 우선하는 한국의 문화가 '나'보다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04. 고유어 외에 외래어로 어휘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국어

를 비롯한 여타 언어의 공통된 특성이다. 다만 국어는 다른 외래어들과 구별되는 한자어 비중이 높다는 특성을 더 가지고 있다.

05. ㉡에는 말을 듣는 상대인 '시부모'를 높이기 위해 '-습니다'라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였다. 문장의 주체인 남편을 '그이, 아버지, 아범' 등으로 지칭한 것을 높임 표현으로 볼 수는 없으며 용언에서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시-'도 나타나지 않았다.

06. ㉢는 '주어-목적어-서술어'의 기본 어순을 지킨 문장 두 개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 풀이 ㉠ '너' 뒤에 주격 조사가 생략되었으나 이를 필수 성분의 생략으로 볼 수는 없다.

㉢ '주어-목적어-서술어'의 기본 어순에 변동이 있는 문장은 아니다.

㉣ "응,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또는 "아니, 이번 주말엔 시골에 가야 해."로 대답해야 한다.

㉤ "아뇨, 저는 문 잠갔어요." 또는 "예, 저는 안 잠갔어요."로 대답해야 한다.

서술형 문제

07. **예시 답** 끝벌의 8자 춤의 방향과 중력을 나타내는 수직 선과의 각도, 속도와 활발성(표현의 형식)은 끝의 발견 장소의 방향, 거리, 및 품질(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과는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다. 끝벌의 춤도 자의성을 지닌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끝이 발견된 장소의 방향과 거리가 어느 정도 바뀌어도 표현할 수 있으므로 끝벌의 춤은 창조성을 지닌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자의성과 창조성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끝벌의 춤에 적용하여 근거를 제시한 경우	5점
자의성과 창조성 둘 중 하나만 맞게 제시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호응이 되지 않는 경우	-1점

08. **예시 답** • 음운: '종아라'-'골짜기'-'청산'에서 '스-스-ㅈ'의 자음 대립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 단어: '이글이글', '훨훨'과 같은 상징어가 나타난다.

• 문장: '주어-목적어-서술어'의 기본 어순이 '(해가) 어둠을 살라 먹다.'와 같이 나타난다.

• 담화: '달빛이 싫여'에서는 필수 성분인 주어 '나는'이 생략되었으며, '나는 달밤이 싫여'의 기본 어순이 '달밤이 나는 싫여'로 바뀌어서 표현되었다.

평가 기준	배점
네 가지 항목 모두 적절히 서술한 경우	5점
항목이 부족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호응이 되지 않는 경우	-1점

2 매체와 매체 언어의 이해

(1) 매체의 본질

※ 소단원 적중 문제 ※

p. 20

01 ③ 02 ④ 03 ②

01. 소통의 양상에 따른 분류는 수신자로부터 발신자에게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지, 양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이루어진다. 책이나 텔레비전은 단방향, 전화나 이동 통신 기기는 양방향 소통 매체로 분류된다.

02. 뉴 미디어는 인터넷이나 이동 통신과 연결되어 개방적이고 상호적인 특징을 가진 매체이다.

03. 제시된 공익 광고는 '온라인 댓글 예절'의 필요성이라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대중 매체이다.

(2) 매체 언어의 특성과 위상

※ 소단원 적중 문제 ※

pp. 22~23

01 ② 02 ④ 03 해설 참조 04 ③ 05 ② 06 ⑤

01. 이 글에서는 매체 언어가 언어로서 가지는 일반적 특징과 더불어 매체 언어만의 특성을 서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매체 언어가 기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한계를 넘어 어떤 발전 가능성을 지니는지도 다루었으나 매체 언어의 한계를 다루지는 않았다.

02. 전파의 속도와 범위가 넓은 대중 매체인 텔레비전의 특성상 ㉗와 ㉜는 대량성이 강조된 매체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㉗와 ㉜ 모두 음성 언어가 지니는 선조성이나 분절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영상이나 이미지를 함께 활용하여 일반적인 음성 언어에 비해 이러한 특성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㉗와 ㉜는 문자 언어와 달리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⑤ ㉗는 정보 전달을, ㉜는 설득을 목적으로 한 매체 언어로 분류할 수 있다.

03. **예시 답** ① 정서 표현 갈래 ②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 소리와 이미지, 동영상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①, ②를 모두 예시 답에 가깝게 설명한 경우	5점
①을 맞게 쓰지 못한 경우	3점
②를 맞게 쓰지 못한 경우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있는 경우	-1점

04. 뉴 미디어로 소통 현상이 복합적, 개방적으로 바뀌면서 표절, 가짜 뉴스, 개인 정보 침해 등 과거에 드물었던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다.

05. 블로그는 개인적인 공간이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댓글을 달고 지식을 공유하는 양방향적 성격을 지닌 뉴 미디어이다.

06. 소수의 편집자들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편집자들이 개방된 상태에서 참여하여 협력 또는 경쟁을 통해 얻게 된 지식 정보의 결과물인 온라인 백과사전(예 위키백과)이 집단 지성의 예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뉴 미디어의 부작용 가운데 하나인 표절의 사례이다.
 ② 수많은 정보 속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변별해 내기 어려워 가짜 뉴스가 양산되는 뉴 미디어의 특징이다.
 ③ 무분별한 퍼 나르거나 재가공 등을 통해 매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이다.
 ④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개인이나 특정 단체가 선별, 재가공하는 사례이다.

중단원 실전 문제 XX

XX

pp. 24~25

01 ② 02 ① 03 ② 04 면대면 대화, 종이 신문, 라디오
 05 해설 참조 06 해설 참조

01. (가)에서는 인쇄술의 발달이 매체 발전에 미친 영향, 전자 매체, 매체의 융합을, (나)에서는 매체 언어의 다양한 특성을, (다)에서는 매체 언어의 분류 기준과 갈래를 서술하고 있다.

02. 매체 언어 또한 일반적인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와 마찬가지로 기호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을 대부분 공유하고 있다. 다만 소리나 이미지, 영상 등을 활용하면서 공간성이나 대량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03. 연속적인 자연의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하는 성질인 분절성은 ㉠에, 음성 언어가 1차원적으로 배열되는 성질인 선조성은 ㉡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사회적 약속으로서의 언어의 특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언어의 사회성)

㉣ 제한된 수의 기호로 무한한 의미를 창조해 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언어의 창조성)

04. 개인 차원의 소통 수단인 대화는 소통의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인쇄술의 발명이 소통의 범위를 비약적으로 넓힌 후에 전기, 전자,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욱 소통 범위가 넓어졌다.

서술형 문제

05. **예시 답** • 문자나 사진 이외에 동영상까지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쉽게 수정할 수 있다.
- 수신자가 댓글을 달 수 있어 양방향성이 있다.
- 정보를 다른 사람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세 가지 이상의 특성을 적절히 서술한 경우	5점
두 가지 특성만 서술한 경우	4점
한 가지 특성만 서술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문장의 호응이 되지 않는 경우	-1점

06. **예시 답** ① 많은 사람들과 더 빨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도표나 소리, 이미지,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한다.
- ③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평가 기준	배점
세 가지 이상을 적절히 서술한 경우	5점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4점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나거나 문장의 호응이 되지 않는 경우	-1점

II 국어의 탐구와 활용



1. 음운

(1) 음운의 개념과 체계

※ 소단원 적중 문제 ※

pp. 38~39

- 01 ② 02 ② 03 씩, 썰, 말, 발, 알 04 ③ 05 ④
06 ③

01. (가)를 보면, 허파에서 나오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공기이며, 그 공기의 흐름이 구강을 포함하여 여러 발음 기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말소리가 만들어진다.

오답 풀이 ①은 (라)에서, ③은 (나)에서, ④는 (나)의 '고기'의 예에서, ⑤는 (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02. (나)를 보면, 사람의 발음 기관에서 나오는 물리적이고 경험적인 소리를 음성이라 하며, 인간의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를 음운이라고 하였다. 음성과 음운은 그것을 인간이 감지하는지의 여부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은 (가)에서, ③은 (나)의 마지막 문장에서, ④는 (다)에서, ⑤는 (라)의 첫 번째 문장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03. (다)를 보면, 최소 대립쌍이란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오직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한다고 하였다.

04. <보기>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음으로는 잇몸소리 중 거센소리(ㅌ)를,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음으로는 원순모음(ㅜ, ㅠ, ㅡ, ㅗ, ㅛ)을, 세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음으로는 여린입천장소리 중 비음(ㅇ)을 들 수 있다. 이와 일치하는 단어는 '통'이다.

05. ㉠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는 센입천장소리로, 'ㅈ, ㅊ, ㅊ'이 있으며, 이는 안울림소리이기 때문에 목청의 떨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의 1, 2문단을 통해 ㉠~㉤는 공기의 흐름에 장애가 일어나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자리임을 알 수 있다. ㉠은 입술소리, ㉡는 잇몸소리, ㉢은 센입천장소리, ㉣는 여린입천장소리, ㉤는 목청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이다.

② (가)의 2문단의 파열음 설명과 끝에 제시된 자음 체계표를 통해 ㉠, ㉡, ㉣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막혔다가 터뜨려지면

서 파열음이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자음 체계표를 통해 ㉞에서 만들어지는 마찰음 ‘ㅅ’ 계열은 같은 위치에서 만들어진 파열음 ‘ㄷ’ 계열과 달리 거센소리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자음 체계표를 통해 ㉞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는 마찰음 ‘ㅎ’임을 알 수 있다. ㉞에서도 이와 동일한 조음 방법(마찰음)에 의해 예사소리 ‘ㅅ’과 된소리 ‘ㅆ’이 만들어지는데 이들은 소리의 세기에 차등이 있어 소리의 세기에 차등이 없는 ㉞에서의 마찰음과 대비된다.

06. ‘줄랑줄랑’은 물 따위가 자꾸 잔물결을 이루며 흔들리는 소리나 모양, 또는 자꾸 가볍고 경망스럽게 까부는 모양을 표현하는 말이다. ‘출랑출랑’은 ‘줄랑줄랑’과 의미는 같되 그보다 거센 느낌을 주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단단하다’와 ‘든든하다’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라는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해 표현 효과가 달라진다고보다 서로 의미가 다르게 쓰이는 말이다.

②, ⑤ ‘알록달록-얼룩덜룩’, ‘반짝반짝-번쩍번쩍’은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차이에 따라 ‘작고 밝은 느낌-크고 어두운 느낌’으로 표현 효과가 달라진다.

④ ‘울렁울렁’과 ‘헐렁헐렁’은 둘 다 ‘렁’이라는 말이 반복되지만, 의미상 서로 연관성이 없다.

(2) 음운의 변동

※ 소단원 적중 문제 ※

pp. 42~45

01 ④ 02 ③ 03 ② 04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㊀ ㊁ ㊂ ㊃ ㊄ ㊅ ㊆ ㊇ ㊈ 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05 ㉠ 혀의 앞뒤 위치 ㉡ 조음 위치 06 ㉡ 07 ㉢ 08 ㉣ 09 (㉠) 운다, ‘㉡’ 탈락 (㉢) 샀다, ‘㉠’ 탈락 (㉣) 담갔다, ‘㉡’ 탈락 10 ㉢ 11 ㉤ 12 ㉢ 13 입학식[이팍씩], 많고[만코], 뵈 14 ㉢ 15 ㉢

01. 이 글에 음운 변동의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1문단에 음운 변동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② (나)에서 음운 변동 현상의 예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③ (가)에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등 음운 변동의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⑤ 음운 변동의 규칙으로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2. ‘설날’은 ‘날’의 ‘ㄴ’이 ‘ㄹ’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나 [설랴]로 발음된다.

03. 음절의 끝소리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를 만날 때와 모

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를 만날 때 대표음으로 발음된다.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는 연음된다. ‘ㅎ’은 자음이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와 만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04. (1) ‘ㄱ, ㄴ, ㄷ’의 대표음은 ‘ㄱ’이며, ‘ㄷ, ㅌ, ㅍ, ㅊ, ㅌ, ㅍ, ㅊ, ㅌ, ㅍ, ㅊ’의 대표음은 ‘ㄷ’이다. 그리고 ‘ㅂ, ㅃ, ㅍ’의 대표음은 ‘ㅂ’이다. (2) ‘ㅌ, ㅍ, ㅊ’은 실제로는 받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ㅎ’은 ‘히읇’에서 유일하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히읇]으로 발음된다.

05. ㉠은 후설 모음 ‘ㅏ, ㅑ, ㅓ, ㅕ’가 전설 모음 ‘ㅓ, ㅕ, ㅗ, ㅛ’로 바뀌는 때 혀의 앞뒤 위치가 바뀌게 되며, ㉡은 잇몸소리 ‘ㄷ, ㅌ’이 섹입천장소리 ‘ㅈ, ㅊ’으로 바뀌므로 조음 위치가 바뀌게 된다.

06. (가)의 자음 동화, (나)의 모음 동화, (다)의 구개음화의 공통점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라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은 ‘탈락’, ③은 ‘첨가’, ④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⑤는 ‘축약’을 가리킨다.

07. ‘밭이랑’은 받침의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대표음 ‘ㄷ’으로 바뀌어 [밭이랑]으로 발음된다. [밭이랑]은 ‘ㅌ’ 모음 앞에서 ‘ㄴ’이 첨가되어 [밭니랑]으로 발음된 후, 다시 받침 ‘ㄷ’이 뒤에 오는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08. ‘흙이불’은 ‘ㅌ’의 뒤에 오는 말이 조사나 접미사가 아니므로 표준 발음법 제17항에 규정된 구개음화 현상을 적용하여 발음할 수 없다. 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ㄴ’ 첨가를 순서대로 적용해 [흔니불]로 발음해야 한다.

09. (㉠)은 ‘울-+-ㄴ다’에서 ‘ㄹ’이 탈락되었으며, (㉢)은 ‘사-+-았-+-다’에서 반복되는 모음, 즉 동음 ‘ㅏ’가 탈락되었다. 그리고 (㉣)은 ‘답그-+-았-+-다’에서 ‘ㄴ’이 탈락되었다.

10. ㉠은 ‘쓰-+-어야’에서 ‘ㄴ’이 탈락한 형태로, ㉢은 ‘건너-+-어서’에서 반복되는 ‘ㄴ’이 탈락한 형태로, ㉤은 ‘버들+나무’에서 ‘ㄹ’이 탈락한 형태로 발음되며, 발음이 그대로 표기에 반영되었다. 반면, ㉡은 [안찌], ㉣은 [시러도]로 발음되나 두 경우 모두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11. <보기>의 표준 발음법 제11항에 의하면,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맑다’는 [막따]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의 ‘읽다’는 표준 발음법 제11항의 규정에 의해 [익따]

로, ②의 ‘짧어’는 표준 발음법 제14항의 규정에 의해 [절머]로, ③의 ‘뭉고’는 표준 발음법 제11항의 ‘다만’ 규정에 의해 [물꼬]로, ④의 ‘없어’는 표준 발음법 제14항의 규정에 의해 [업:써]로 발음해야 하므로 적절하다.

12. ‘늑막염’은 ‘ㄴ’ 첨가 현상에 의해 [늑망념]으로 발음된다.

13. ‘입학식’과 ‘맑고’를 발음하면 각각 ‘ㅅ+ㅎ → ㅆ’, ‘ㅎ+ㄱ → ㅋ’으로 자음 축약이 이루어지며, ‘봤다’는 ‘ㄱ+ㅌ → ㄲ’로 모음이 축약된 것이다.

14. ‘첫인사’는 ‘ㄴ’ 첨가가 일어날 만한 음운 환경을 갖고 있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적용되어 [천인사>처단사]로 발음되는 합성어로,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ㄴ’이 첨가된다면 ‘첫인사’는 [천닌사]로 발음해야 한다.

15. 자음과 모음 사이에 일어나는 동화는 구개음화로서, 구개음이 아닌 자음 ‘ㄷ, ㅌ’이 모음 ‘ㅣ’와 만나 경구개음인 ‘ㅈ, ㅊ’으로 동화된다. ‘겹겹이’는 [겹겨비]로 발음되며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중단원 실전 문제 XX pp. 46~49

01 ③	02 ①	03 나, 거	04 ③	05 ②	06 ㉠ 르,
㉡ 오, ㉢ ㅎ	07 해설 참조	08 해설 참조	09 ①	10	
⑤	11 ④	12 ②	13 ②	14 (자음) 축약	15 (1) 해설
참조 (2) 해설 참조		16 해설 참조			

01. (나)를 보면, 단모음은 이중 모음과 달리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가 변화하지 않고 일정하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첫 번째 문장에서 입안에서 공명, 즉 울림을 일으키면서 모음이 만들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의 마지막 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첫 문단 두 번째 문장에서 단모음과 반대로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 이중 모음임을 알 수 있다.

⑤ 반모음은 음성의 성질이 모음과 비슷하지만 홀로 음절을 이루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자음과 유사함을 (가)의 마지막 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 (가)의 마지막 문장에 의하면, 우리 국어에서 반모음을 반자음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반모음이 홀로 음절을 형성하지 못하고 모음과 어울려야만 음절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자음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03. [we], [wi]로 발음된다는 것은 이중 모음처럼 입술의 모양이 변화하면서 발음됨을 의미한다.

04. ‘웬’의 모음 ‘애’는 ‘ㅛ’에서 시작하여 ‘ㅟ’로, ‘웬’의 모음 ‘내’는 ‘ㅜ’에서 시작하여 ‘ㅟ’로 변하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하게 된다. (가)의 단모음 체계를 보면, ‘ㅛ’는 ‘ㅜ’보다, ‘ㅟ’는 ‘ㅟ’보다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낮고, 입은 크게 벌어진다. 따라서 발음할 때 ‘웬’은 ‘웬’보다 혀의 위치가 더 낮고 입이 더 크게 벌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ㅟ’와 ‘ㅟ’는 모두 전설 모음, 평순 모음이다.

② ‘ㅟ’는 ‘ㅟ’보다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더 낮은 저모음이고, 저모음은 중모음이나 고모음보다 입이 더 크게 벌어지는 특성이 있다.

④ ‘웬’의 모음 ‘애’는 ‘ㅛ’로 발음이 시작되는데 ‘ㅛ’는 원순 모음 이면서 후설 모음이므로 입술 모양이 둥글게 모여, 혀는 입안의 뒤쪽에 위치한다. ‘웬’의 모음 ‘내’는 ‘ㅜ’로 발음이 시작되는데 ‘ㅜ’ 역시 원순 모음 이면서 후설 모음이므로 입술 모양이 둥글게 모여, 혀는 입안의 뒤쪽에 위치한다.

⑤ ‘개’, ‘계’의 모음 ‘ㅘ’, ‘ㅙ’가 단모음인 데 비해 ‘웬’의 모음 ‘애’는 ‘ㅛ’에서 시작하여 ‘ㅟ’로, ‘웬’의 모음 ‘내’는 ‘ㅜ’에서 시작하여 ‘ㅟ’로 변하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게 된다.

05. (가)의 단모음 체계를 보면, ‘ㅟ’와 ‘ㅟ’는 혀의 높낮이만 차이가 날 뿐, 혀의 앞뒤 위치나 입술의 모양은 일치한다. 또 ‘ㅣ’와 ‘ㅛ’는 입술의 모양만 차이가 날 뿐, 혀의 앞뒤 위치나 높낮이는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ㅣ’와 ‘ㅡ’는 혀의 앞뒤 위치만 차이가 날 뿐, 혀의 높낮이나 입술 모양은 일치한다.

06. ㉠에는 자음 중 유일한 유음인 ‘ㄹ’이 들어가야 하며, ㉡에는 비음 중 여린입천장소리인 ‘ㅇ’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에는 국어에서 유일한 목청소리인 ‘ㅎ’이 들어가야 한다.

서술형 문제

07. 제시된 글에서 ‘우리말에서는 자음의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모두 음운으로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되는 영어의 음운은 /b, p/밖에 없다.’, ‘영어의 음운 /b, p/는 우리말의 /ㅂ, ㅍ, ㅃ/과 달리 ‘울림’의 유무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라는 언급을 통해 우리말의 파열음은 /ㅂ, ㅍ, ㅃ/처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누어져 음절을 구성하지만, 영어의 파열음은 /b, p/처럼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로 나누어져 음절을 구성함을 알 수 있다.

예시 답 국어의 파열음은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로 나뉘지만 영어의 파열음은 ‘울림소리-안울림소리’로 나뉜다.

평가 기준	배점
예시 답에 가깝게 설명한 경우	5점
예시 답에 가까우나 설명이 미흡한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있는 경우	-1점

08. 제시된 글에서 확인할 때, 국어는 ‘ㅃ’과 같은 된소리가

존재하나, 영어에는 /b, p/만 존재할 뿐 된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시 답 국어에는 된소리가 존재하나, 영어에는 된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평가 기준	배점
예시 답에 가깝게 설명한 경우	5점
예시 답에 가까우나 설명이 미흡한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있는 경우	-1점

09. ㉓는 교체, ㉔는 탈락, ㉕는 첨가, ㉖는 축약을 나타내고 있다. ‘굳이[구지]’는 ‘ㄷ’이 ‘ㅈ’으로 ‘교체’된 예이며, ‘말소[마소]’는 ‘ㄹ’이 ‘탈락’된 예이다. ‘맨입[맨닙]’은 ‘ㄴ’이 첨가된 예이며, ‘낱고[나코]’는 ‘ㅎ+ㄱ’이 ‘ㅋ’으로 ‘축약’된 예이다.

오답 풀이 ㉑ ‘꽃 이름[코디름]’은 ‘교체’, ‘법학[버팍]’은 ‘축약’, ‘종아[조아]’는 ‘탈락’, ‘웃어른[우더른]’은 ‘교체’에 해당한다.

㉒ ‘닭 울음[다구름]’은 ‘탈락’, ‘맨입[맨닙]’은 ‘첨가’, ‘아기[애기]’는 비표준 발음으로서 ‘교체’, ‘값어치[가버치]’는 ‘탈락’에 해당한다.

㉓ ‘신라[실라]’는 ‘교체’, ‘맑아[마나]’는 ‘탈락’, ‘얹던[안턴]’은 ‘축약’, ‘한 일[한닐]’은 ‘첨가’에 해당한다.

㉔ ‘한 일[한닐]’은 ‘첨가’, ‘부엌[부엌]’은 ‘교체’, ‘국민[궁민]’은 ‘교체’, ‘축하[추카]’는 ‘축약’에 해당한다.

10. ‘맑은’은 [말근]으로 발음되므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음운 탈락으로 볼 수 없다. 자음군 단순화는 ‘맑다[막따]’처럼 뒤에 자음이 올 때나 실질 형태소가 올 때, 또는 어말에서 일어난다.

오답 풀이 ① ‘따라’는 ‘따르-+-아’에서 ‘ㄹ’이 탈락되었다.

② ‘서’는 ‘서-+-어’에서 반복되는 모음, 즉 동음 ‘ㄹ’이 탈락되었다.

③ ‘나는’은 ‘날-+-는’에서 어간 말 자음 ‘ㄹ’이 탈락되었다.

④ ‘좋은’은 [조은]으로 발음되면서 ‘ㅎ’이 탈락되었다.

11. ㉓는 [설랄]로 발음되는 유음화, ㉔는 [음내]로 발음되는 비음화, ㉕는 [멤니다]로 발음되는 비음화, ㉖는 [알랴]로 발음되는 유음화, ㉗는 [콘물]로 발음되는 비음화의 예이다.

12. ‘금요일’은 ‘ㄴ’ 첨가 없이 [그묘일]로 발음한다.

13. ㉑는 [달림]으로 발음되는 순행 동화, ㉒는 [꺾력]으로 발음되는 역행 동화, ㉓는 [심니]로 발음되는 상호 동화, ㉔는 [명는다]로 발음되는 역행 동화에 해당하며, ㉕는 ‘ㅣ’ 모음 역행 동화, ㉖는 ‘ㅣ’ 모음 순행 동화에 해당한다.

14. (라)를 보면, ‘ㄱ, ㄷ, ㅂ, ㅈ’과 ‘ㅎ’이 서로 만나면 ‘ㅋ, ㅌ, ㅍ, ㅊ’이 되는 현상을 축약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다른 말로 ‘저센소리되기’에 해당한다.

서술형 문제

15. (1) <보기>의 ‘늦여름, 숨이불, 한여름’은 ‘ㄴ’이 첨가된 발음만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예이며, ‘금요일’은 ‘ㄴ’이 첨가된 발음과 첨가되지 않은 발음 모두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예이다. ‘월요일’은 ‘ㄴ’이 첨가되지 않은 발음만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예이다.

예시 답 ‘ㄴ’이 첨가된 발음만이 항상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ㄴ’이 첨가된 발음과 첨가되지 않은 발음 모두가 표준 발음인 경우도 있고, ‘ㄴ’이 첨가되지 않은 발음만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 경우도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예시 답에 가깝게 설명한 경우	5점
예시 답에 가까우나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있는 경우	-1점

(2) <보기>의 예를 보면, ‘ㄴ’ 첨가 현상은 ‘발음’에만 반영될 뿐,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시 답 ‘ㄴ’ 첨가 현상에 의한 발음은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평가 기준	배점
예시 답에 가깝게 설명한 경우	5점
예시 답에 가까우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있는 경우	-1점

16. 우리말에서 겹받침을 이루는 두 자음은 동시에 발음될 수 없다. 그래서 어말이 겹받침으로 끝나는 단어의 경우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한다. 그런데 그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겹받침 중 뒤의 자음이 연음되어 발음된다. 따라서 ‘닭’은 앞 자음이 탈락하여 [닥]으로 발음되고, ‘닭이’는 ‘ㄱ’이 연음되어 [달기]로 발음된다.

예시 답 [닥], [달기]. ‘닭’이 단독으로 발음되거나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 현상에 의해 겹받침 중 앞에 있는 자음이 탈락하여 [닥]으로 발음되고, ‘닭’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겹받침 중 뒤엿것이 뒤 음절의 첫소리가 되므로 ‘닭이’는 [달기]로 발음된다.

평가 기준	배점
표준 발음을 둘 다 정확히 표기하고, 그렇게 발음되는 이유를 알 맞게 서술한 경우	5점
‘닭’의 표준 발음과 그 이유, ‘닭이’의 표준 발음과 그 이유 둘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있는 경우	-1점

2 단어와 품사

(1) 단어의 품사와 특성

※ 소단원 적중 문제 ※

pp. 55-59

01 ② 02 ① 03 ⑤ 04 ③ 05 ③ 06 해설 참조
07 ④ 08 ③ 09 해설 참조 10 ④ 11 ⑤ 12 ㉠ :
㉠, ㉡: ㉢, ㉣: ㉤ 13 ③ 14 ④ 15 ⑤

01. 단어는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뉜다.

02. <보기 1>의 두 번째 문장의 '십'은 의존 명사인 '분'을 수식해주는 관형사(수 관형사)이다.

03. ㄹ의 '예'는 조사이므로 문장 속에서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오답 풀이 ① '매우'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② 이 글의 품사 분류 표를 보면, ㄴ의 '파도'는 명사, ㄱ의 '그분'은 대명사로, 이는 모두 체언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3문단을 보면, ㄱ, ㄴ처럼 체언은 문장에서 주어로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③ 3문단을 보면, 용언은 서술어로 쓰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ㄷ의 '출구나'와 같은 용언은 주어인 '날씨'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

④ 이 글의 품사 분류 표를 보면, ㄹ의 '어머!'와 같은 감탄사는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속한다.

04. (다)에서 '자기'는 '영희'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다. 인칭 대명사인 '자기'는 3인칭 주어로 쓰인 명사나 명사구를 다시 가리키는 데에 주로 쓰인다.

① '세종대왕'은 고유 명사로, 복수형으로 쓸 수 없다. 따라서 복수형인 '세종대왕들'은 '세종대왕과 같은 훌륭한 언어학자' 정도의 뜻을 지닌 보통 명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② '거제도'와 같은 고유 명사는 문장 속에서 '두'와 같은 수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④ 대명사인 '너희'와 달리, 수사인 '셋'은 '저'와 같은 관형사(지시 관형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

⑤ 서수사인 '첫째', '둘째'는 '가'라는 주격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 속에서 '주격'이라는 문법적 의미를 이루고 있다.

05. ㉠의 '누구'는 정해지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칭 대명사이다.

06. **예시 답** ㉠은 조사가 붙어 있으므로 수사(수를 나타내는 명사)이며, ㉡는 조사가 붙지 않고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사(수 관형사)이다.

평가 기준	배점
㉠과 ㉡의 품사를 모두 바르게 파악한 경우	5점
둘의 차이를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3점

07. ㉠, ㉡는 주체가 유정 명사인 동작 동사이므로 명령형 어머니나 청유형 어머니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체가 자연인 작용 동사 ㉢나 ㉣, ㉤, ㉥와 같은 형용사는 명령형 어머니나 청유형 어머니를 사용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공부하다'는 주체인 아이들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동사이고, '날이 밝았다.'에서의 서술어 '밝다'는 주체인 '날'의 작용(자연 현상)을 나타내는 작용 동사이다.

② '곱다'는 형용사로, 대상, 즉 여학생의 마음 씩씩이가 지닌 성질을 나타내고, '행복하다'는 형용사로, 대상, 즉 나의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

③ ㉠(동사)는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하여 '공부하는'으로 활용할 수 있고, ㉡(형용사)는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하여 '행복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는 존재와 진행의 의미를 지닌 동사로, 명령형 '있어라', 청유형 '있자'로 활용할 수 있으며, ㉣는 소유와 상태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로,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활용할 수 없다.

08. ㉠, ㉡는 남에게 동작을 하게 하는 사동사이고 ㉢, ㉣는 남에 의해 동작이 이루어지는 피동사이다.

09. **예시 답** '늙는'은 시간의 흐름과 형상의 변화를 뜻하므로 동사이다.

평가 기준	배점
'동사'라는 품사를 바르게 파악한 경우	2점
그 이유를 의미적 측면에서 바르게 서술한 경우	3점

10. ㉠은 '어려우(어간) + 었(선어말 어미)'로 구성되어 있다.

11. 제시된 글에서 전성 어미는 용언의 서술성을 잃지 않으면서 본래 품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였다. ㉠은 문장에서 명사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품사는 그대로 동사이며, ㉡는 문장에서 관형사형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품사는 그대로 형용사이다. 또 ㉢는 문장에서 부사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품사는 그대로 형용사이다.

오답 풀이 ㉠은 '달리다'라는 동사에 파생 접미사가 결합하여 명사로 품사가 바뀐 단어이며, ㉡는 본래 관형사로 쓰이는 단어로, 문장 속에서 서술성이 있는 ㉢와 구별된다. 또 ㉣는 '빠르다'라는 형용사에 파생 접미사가 결합하여 부사로 품사가 바뀐 단어이다.

12. ㉠은 앞 문장과 뒷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해 주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고, ㉡는 앞 문장을 뒷 문장에 종속시키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그리고 ㉢는 '옳다'라는 본용언과 '버리다'라는 보조 용언을 연결해 주는 보조적 연결 어미이다.

13. ㉣의 '지적'은 '으로'라는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였으므로 명사로 볼 수 있다.

14. ④ ‘바로’는 체언(명사)인 ‘눈앞’을 수식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의 부사 ‘안’은 ‘들어오다’라는 동사를, ②의 부사 ‘매우’는 ‘빨리’라는 부사를, ③의 ‘너무’는 ‘외판’이라는 관형사를, ⑤의 부사 ‘부디’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

15. ⑤에 쓰인 ‘은’은 ‘대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인 반면 나머지는 모두 격 조사이다.

(2)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

※ 소단원 적중 문제 ※

pp. 62~63

01 ① 02 ① 03 ① 04 해설 참조 05 ⑤ 06 ①
07 ④ 08 ⑤

01.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 어미, 접사가 포함되는데, 이 중 조사는 단어로 분류된다.

02. ‘쌍둥이’는 명사 ‘쌍(雙)’에 접미사 ‘-둥이’가 결합되어 형성된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② ‘옷-(어간)+-기(사동 접미사)+-다(어미)’의 형태로 결합된 말이다.

③ ‘공부(어근)+-하다(접미사)’의 형태로 결합된 말이다.

④ ‘구두(어근)+닭-(용언의 어간)+-이(접미사)’의 형태로 결합된 말이다.

⑤ ‘[사랑(어근)+스럽(접미사)]+은(어미)’의 형태로 결합된 말이다.

03. ㉠의 ‘걸음’은 ‘걸-/음’으로 분석되며, ‘걸-’은 의존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이다. ㉡의 ‘안개’는 자립 형태소이며, 실질 형태소이다.

오답 풀이 ② ㉠의 ‘빠르-’와 ㉡의 ‘피-’는 반드시 어미가 연결되어야만 쓰일 수 있으므로 의존 형태소이며,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실질 형태소이다.

③ ㉠의 ‘이’는 조사, ㉡의 ‘-어’는 어미로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이다.

④ ㉠에 나타난 형태소는 ‘성우/는/걸-/음/이/매우/빠르-/다’로 모두 8개이다.

⑤ ㉡에 나타난 형태소는 ‘안개/가/잣/나무/에서/피-/어/오르-/ㄴ/다’로 모두 10개이다.

04. **예시 답**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의미를 표시한다.

평가 기준	배점
차이를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3점
둘 중 한 개만 파악한 경우	1점

05. 접두사는 일반적으로 어근의 뜻을 제한하는 기능을 할 뿐 어근의 뜻을 확장시키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②, ④는 4문단에서, ③은 1문단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06. ‘부슬비’는 ‘부슬(부사)+비(명사)’로 합성된 말로, 문장에서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의 기능과 배치되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①은 ‘부사+부사’의 형태로 형성된 합성어로, 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 문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문장에서의 예: 그는 영어를 매우 잘 한다.)

③ ㉠은 ‘본용언+본용언’(용언의 어간+연결 어미+용언)의 형태로 형성된 합성어로, 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 문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문장에서의 예: 새가 하늘을 날아 간다.)

④ ㉡은 ‘부사어+서술어’(앞에 서다)의 형태로 형성된 합성어로, 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 문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문장에서의 예: 그는 아들의 앞에 섰다.)

⑤ ㉢은 ‘목적어+서술어’(본을 받다)의 형태로 형성된 합성어로, 이는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 문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문장에서의 예: 그는 모범생 친구의 본을 받았다.)

07. ‘많이’는 ‘많-(형용사)+-이(부사화 파생 접미사)’로 결합된 파생 부사로, <보기>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뒹-(동사의 어간)+-개(접미사)’의 형태로 품사가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는 문법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② ‘믿-(동사의 어간)+-음(접미사)’의 형태로 품사가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는 문법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③ ‘탐(어근)+-스럽(접미사)+-다(어미)’의 형태로 품사가 명사에서 형용사로 바뀌는 문법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⑤ ‘출렁(의태 부사)+-거리다(접미사)’의 형태로 품사가 부사에서 동사로 바뀌는 문법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08. <보기>의 내용을 참조할 때, ㉠의 ‘-기’와 ㉡의 ‘-ㅁ’은 명사형 어미로, ㉠과 ㉡의 품사는 동사이다. 반면, ㉢의 ‘-기’와 ㉣의 ‘-ㅁ’은 명사화 파생 접미사로, ㉢과 ㉣의 품사는 명사이다.

오답 풀이 ① ㉠은 서술성이 있으며, 품사는 동사이다. 문장 속에서 ‘자-(동사의 어간)+-기(명사형 전성 어미)’로 활용되고 있다.

② ㉢은 서술성이 없으며, 품사는 명사이다. ‘크-(형용사의 어간)+-기(명사화 파생 접미사)’로 형성된 단어로, 여기서 접미사 ‘-기’는 형용사를 명사로 바꾸는 문법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③ ㉣은 서술성이 없으며, 품사는 명사이다. ‘자-(동사의 어간+ㅁ(명사화 파생 접미사)’로 형성된 단어로, 여기서 접미사 ‘-ㅁ’

은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문법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④ ㉔는 서술성이 있으며, 품사는 동사이다. 문장 속에서 '만나-(동사의 어간)+-ㅁ(명사형 전성 어미)'로 활용되고 있다.

(3) 단어의 의미 관계와 어휘 사용

※ 소단원 적중 문제 ※

pp. 65~66

01 ㉔ 02 ㉔ 03 [상황 1] 반사적 의미, [상황 2] 주제적 의미 04 ㉔ 05 ㉔ 06 ㉔

01. '감다'의 ㉔은 '낫잡는 뜻으로' 옷을 입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비싼 옷을 몸에 감았다고 다 멋쟁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의 용례와 같이 문장 속에서 옷을 입은 사람을 만만히 여기고 함부로 낮추어 대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되어 있는 '감다', '감다', '감다'는 단어의 형태는 같으나 의미가 전혀 다르므로 동음이의어에 해당한다.

② '감다'는 하나의 표제어가 ㉔~㉔의 네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때 ㉔이 중심적 의미이고 나머지는 ㉔에서 확장된 주변적 의미이다. 따라서 '감다'는 다의어에 해당한다.

③ '감다'의 중심적 의미는 '(주로 '눈'과 함께 쓰여) 눈꺼풀을 내려 눈동자를 덮다.'이다. 이러한 의미가 여기서 '현실의 모순에 눈을 감다.'의 용례와 같이 '못 본 체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될 수 있다.

⑤ '감다'의 ㉔은 [...을 ...에], [...을 ...으로]로 보아 세 가지 문장 성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주어와 목적어, 부사어의 세 가지 성분이 필수적으로 함께 쓰여야만 그 문장 전체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02. <보기>의 문장에 쓰인 '손'은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기술'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이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하게 쓰인 것은 ㉔이다.

03. [상황 1]에서 '한송이'라는 단어는 본래 뜻과 관계없이 '꽃'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반사적 의미에 해당한다. [상황 2]에서는 '종~은'을 강조하거나, 도치를 통해 '참 좋은'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주제적 의미에 해당한다.

04. 상위어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하위어는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으므로, 상위어는 하위어에 비해 단어를 이루는 의미 요소가 적다. 예를 들면, '남자-총각'의 상하 관계에서 상위어인 '남자'를 이루는 의미 요소는 '[+사람], [+남성]'이지만, 하위어인 '총각'을 이루는 의미 요소

는 '[+사람], [+남성], [+성인], [+미혼]'이다.

05. ㉔은 두 단어 사이에 중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의 관계 중 모순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크다 : 작다'는 두 단어 사이에 중간 개념이 존재하므로 반의 관계 중 반대 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단어는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요소들은 모두 공통된다.'라는 언급으로 보아 올바른 이해이다.

② '기혼 : 미혼'에는 중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올바른 이해이다.

③ '뜨겁다 : 차갑다'에는 '미지근하다'와 같은 중간 개념이 존재하므로 올바른 이해이다.

④ ㉔에서 '뛰다'가 '물가가 뛰다'의 의미일 때는 이에 대한 반의어가 '물가가 내리다'이므로 올바른 이해이다.

06. 상하 관계에서 하위어는 상위어를 함의(含意)한다고 했다. 그런데 상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㉔이며, 여기서 하위어인 ㉔가 상위어인 ㉔를 함의(상위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특성을 자동적으로 가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하 관계가 아닌 ㉔에서는 ㉔와 ㉔가 함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㉔에서 ㉔는 ㉔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하 관계에 해당한다.

② ㉔에서 ㉔는 ㉔의 상위어이므로 일반적인 의미 영역을 지니고 있다.

③ ㉔에서 ㉔와 ㉔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⑤ <보기>에 의하면 상하 관계와 전체와 부분의 관계는 모두 계층적 관계에 해당한다.

중단원 실전 문제

XX

pp. 67~71

01 ㉔ 02 ㉔, ㉔ 03 ㉔ 04 ㉔ 05 ㉔ 06 ㉔
07 ㉔ 08 문장 속에서 활용한다 09 ㉔ 10 ㉔ 11 ㉔
12 ㉔ 13 ㉔ 14 ㉔ 15 해설 참조 16 해설 참조
17 해설 참조 18 해설 참조

01. ㉔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미지칭 대명사로서, 복수형은 없다.

오답 풀이 ① '우리 같이 갈래?'의 경우는 청자를 포함하는 경우이고, '넌 우리보다 더 예쁘잖아.'는 청자를 배제하는 경우이다.

② '당신은 누구세요?'는 ㉔의 경우이고,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전 생애를 바쳐 자식을 뒷바라지했어요.'는 3인칭의 높임말로 쓰이는 ㉔의 경우에 해당한다.

③ ㉔와 같은 대명사는 화자와 청자 두 사람에게서 먼 사람을 가리키는 원칭 대명사이다.

⑤ ㉔는 부정칭, 즉 정해지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이미 정해진 특정한 사람과 구별된다.

02. ㉔와 ㉔에 쓰인 ‘크다’는 ‘자라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이고, ㉔와 ㉔에 쓰인 ‘크다’는 ‘길이나 넓이가 보통 정도를 넘다.’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이다.

03. ‘별별’은 ‘고생’을, ‘아무’는 ‘말’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반면, ‘나의’는 ‘체언’에 ‘조사’가 붙어 ‘고향’을 수식하는 형태며 ‘사랑하는’은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여인을 수식하는 형태이다.

오답 풀이 ㉔의 ‘나의’는 ‘체언’에 ‘조사’가 붙어 ‘고향’을 수식하고 있으며, ㉔의 ‘사랑하는’은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관형사형’으로, 품사는 동사이다.

04. ㉔는 ‘누구’라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관형사이며, ㉔는 ‘꽃’의 수량을 가리키는 수 관형사이다. 그리고 ㉔는 ‘책’의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관형사이다.

05. 문장 부사어는 뒤에 이어지는 특정 성분과 호응 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만일~㉔다면’, ‘모름지기~어야 한다.’와 같은 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물론’의 경우는 뒤에 이어지는 특정 성분과 호응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㉔ ㉔의 부사어 ‘때우’는 ‘푸르다’를, ㉔의 부사어 ‘아주’는 ‘현’을, ㉔의 부사어 ‘너무’는 ‘빨리’를 수식하므로 문장의 특정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어에 해당한다.

㉔ ㉔~㉔의 부사어는 특정 성분을, ㉔의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지만, ㉔의 부사어는 두 문장을, ㉔의 부사어는 두 단어를 이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㉔ ㉔의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이며, 이는 ㉔의 부사어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부사에 해당한다.

㉔ ㉔, ㉔의 부사어는 모두 접속 부사어로, ㉔의 부사어는 문장과 문장을, ㉔의 부사어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한다.

06. ‘에게, 보다’는 보조사가 아니라 격 조사(부사격 조사)이다.
오답 풀이 ㉔ (가)의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해 주는 조사를 격조사(格助詞)라고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㉔ (가)의 ‘격 조사’에는 ‘이/가’와 같이 주어가 되게 하는 주격 조사, ~ 호격 조사 등도 격 조사에 속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㉔ (가)의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를 접속 조사(接續助詞)라고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㉔ (가)의 “요”는 ‘상대 높임’을 나타내며, 어절이나 문장의 끝에

결합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7. <보기>를 보면, 감탄사는 조사가 붙을 수 없으며, 상대방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감탄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영희야!’는 부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감탄사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㉔과 ㉔는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며, ㉔는 대답하는 말로 쓰이는 감탄사이다. 그리고 ㉔는 부르는 말로 쓰이는 감탄사이다.

08. 이 글을 보면, 서술격 조사는 다른 격조사와 달리 문장 안에서 활용됨으로써 체언을 서술어로 기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09. ‘구두담이’의 직접 구성 성분은 ‘구두’와 ‘담이’이며, 이 중 ‘담이’는 다시 ‘담-+-이’로 분석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㉔ ‘잠꾸러기’의 직접 구성 성분은 어근 ‘잠’과 접미사 ‘-꾸러기’로 분석된다. 즉, 직접 구성 성분에는 접사도 포함될 수 있다.

㉔ 품사 결정 요소에 접미사인 ‘-꾸러기’도 포함되어 있다.

㉔ 단어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직접 구성 성분이다.

㉔ 품사 결정 요소는 단어의 끝에 위치한다.

10. 접미사는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거나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㉔만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는 접미사가 사용되었다.

11. ㉔는 어근과 어근이 ‘부사+명사’의 형태로 결합되어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㉔ 어근과 어근이 두 어근을 이어 주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없이 결합되어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㉔ 어미의 연결없이 두 용언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12. “그녀는 가난한 집 딸이었다.”에서 ‘집’은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집안’의 뜻으로, ‘집’의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

13. ㉔는 ㉔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두 단어는 상하 관계에 있다. ‘판소리’는 ‘전통 예술’에 포함되므로 두 단어는 상하 관계에 있다.

오답 풀이 ㉔ ‘낮설다’와 ‘생소하다’는 유의 관계에 있다.

㉔ ‘태어나다’와 ‘자라다’는 유의 관계나 반의 관계에 속하지 않는다.

㉔ ‘기쁨’과 ‘슬픔’은 반의 관계에 있다.

㉔ ‘변잡하다’와 ‘한적하다’는 반의 관계에 있다.

14. ‘벌써’와 ‘이미’는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로서 두 단어 모두 ‘다 끝나거나 지난 일’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벌써’는 ‘예상보다 빠르게 어느새’라는 의미로 ‘다 끝나거나 지난 일’이 아닌 경우에도 쓰이는 반면, ‘이미’는 그렇지 않다.

15. (1) 관형사는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조사가 붙어 문장 속에서 격을 나타내는 체언과 달리 조사가 붙을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2) ㉔의 '다른'은 관형사로, 서술성이 없으므로 형태가 변화할 수 없다. 반면, ㉕의 '다른'은 용언 '다르다'의 관형사형으로, 서술성이 있으므로 '다르-(어간)+-ㄴ(어미)'와 같이 어간에 어미가 붙는 방법으로 문장 속에서 형태를 바꾸어 가면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예시 답 (1) 관형사에는 조사가 붙을 수 없다.

(2) 관형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혹은 어미가 붙어 활용하지 않는다.)

평가 기준	배점
활동을 통해 관형사의 특징 (1), (2)를 모두 바르게 파악한 경우	5점
둘 중 하나만 파악한 경우	3점
국어의 정서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6. (1) '아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이다. 문장 부사인 '아마'는 문장 속에서 '쉽게'의 앞부분으로 자리 옮길 수 가능하다.

(2) '확실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이므로 서술어로 고쳐 쓸 수 있다.

예시 답 (1) 이번 시험은 아마 쉽게 출제될 거야.

(2) 한국인이 은근과 끈기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평가 기준	배점
문장 부사를 찾아 위치를 옮겨 적절히 쓰고 문장 부사를 서술어로 바르게 고쳐 쓴 경우	5점
(1), (2) 중 하나만 맞은 경우	3점
국어의 정서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7. '지난밤'이 만약 구(句)라면 그 의미는 구성 요소인 '지난'과 '밤'의 의미를 단순히 합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밤'은 단순히 '지난간 밤'이 아니라 바로 '어젯밤'의 뜻이므로 구성 요소의 의미를 단순히 합성하여 의미를 추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는 사전에 수록해서 의미를 밝혀 주어야 하는 '새말'이라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합성어와 구의 개념을 활용하여 이유를 적절하게 밝힌 경우	5점
합성어와 구의 개념을 활용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3점
국어의 정서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8. **예시 답** ㄱ. '견디다'와 '참다'는 문맥상 상호 교체가 가능하므로 유의 관계가 성립된다.

ㄴ. '참가하다'와 '참석하다'는 문맥상 상호 교체가 불가능하므로 유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평가 기준	배점
ㄱ, ㄴ의 유의 관계 성립 여부를 <보기 1>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설명한 경우	5점
ㄱ, ㄴ 중 하나만 맞은 경우	3점
국어의 정서법에 어긋난 경우	-1점

3 문장과 문법 요소

(1) 문장의 성분

※ 소단원 적중 문제 ※

pp. 75~76

01 ③ 02 ③ 03 ⑤ 04 해설 참조 05 ③ 06 ②
07 ⑤ 08 해설 참조

01. 2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국어의 문장은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의 유형으로 나뉜다.

02. '좋아하다'는 동사이므로 '어찌한다'에 해당하는 서술어이다. '어떠하다'는 '예쁘다'와 같은 형용사에 해당하고, '무엇이다'는 '학생이다'와 같은 '체언+서술격 조사'에 해당한다.

03. 5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 가운데 주어가 아닌 것을 보이라고 한다. 보어에는 보격 조사 '이/가'가 붙지만,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

오답 풀이 ①은 목적어, ②는 관형어, 부사어, ③은 서술어, ④는 주어에 대한 설명이다.

04. 이 문장에서 '여기'는 '조용하다'의 주체를 나타내므로 주어에 해당한다. 이때 주격 조사나 보조사는 생략될 수 있다.

예시 답 '여기'는 서술어 '조용하지'의 주어로, 주격 조사 '가' 또는 보조사 '는'이 생략된 형태이다.

평가 기준	배점
문장 성분을 바르게 쓴 경우	2점
형태를 바르게 파악한 경우	3점

05. 관형어가 꼭 필요한 문장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6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7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06. '아름답다'는 형용사이다. '아름다운'은 용언의 관형사형인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이다.

오답 풀이 ① '새'는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가 된 경우이다.

⑤ '은수 책'은 '은수의 책'에서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된 형태이다.

07. '학교에'는 체언 '학교'와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된 부사어이다.

오답 풀이 ① '빠르게'는 '갈(가다)'을 수식하고 있다.

② '더'는 부사가 부사어로 된 것이고, '빠르게'는 용언 '빠르다'의 부사형이 부사어로 된 것이다.

- ③ ‘더’는 ‘빠르게’를 수식하고 있는 성분 부사어이다.
④ ‘타면’은 서술어이다.

08. 예시 답 ㉠와 ㉡의 문장 성분은 모두 부사어로, 부사가 부사어로 된 것이다. 하지만 ㉠은 동사인 ‘가거라’를 수식하고 있고, ㉡는 체언인 ‘당신’을 수식하고 있다.

평가 기준	배점
‘부사어’라는 공통점을 파악한 경우	2점
수식하는 대상의 품사를 파악하여 차이점을 바르게 쓴 경우	3점

(2) 문장의 짜임

※ 소단원 적중 문제 ※

pp. 79~80

- 01 ③ 02 ④ 03 ⑤ 04 ② 05 ② 06 ③ 07 ②
08 ② 09 해설 참조 10 해설 참조

01.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면 홑문장, 두 번 이상 나타나면 겹문장이 된다.

02. ㉠은 주어 ‘옷장이’와 서술어 ‘생기다(생겼다)’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 또한 주어 ‘그는’과 서술어 ‘살다(산다)’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은 ‘소리도 없이’가 ‘가을비가 내린다’라는 전체 문장에 부사절로 안겨 있는 겹문장이다. ㉠은 주어 ‘옷장이’와 서술어 ‘생기다(생겼다)’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② ㉠에서 주어는 ‘가을비’와 ‘소리도’이고, 이에 대응되는 서술어는 각각 ‘내린다(내린다)’와 ‘없다(없어)’이다. ㉡에서 주어는 ‘여름이’와 ‘바람이’이고, 이에 대응되는 서술어는 각각 ‘지나다(지나자)’와 ‘서늘하다’이다. 이처럼 ㉠과 ㉡ 모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 있는 겹문장이다.

③ ㉠의 ‘소리도 없이’는 부사절로, ㉡의 ‘거북선을 만든’은 관형절로 안겨 있다.

⑤ ㉡은 ‘여름이 지나다’와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서늘하다’가 이어진 문장이다. ㉡은 ‘거북선을 만들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겨 있는 겹문장이다.

03. 5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은 한 문장에 주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

04. ‘엄마도 모르게’는 ‘자고’를 꾸미고 있는 부사절에 해당한다.

05. ‘나들이 가기’ 뒤에 ‘예’와 같은 부사격 조사가 붙어 있으므로, 이 문장에서 명사절 ‘나들이 가기’는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06. ㉠에는 ‘선생님께서 우리 모임에 참석하신다.’는 문장이 관형절로, ㉡에는 ‘각양각색의 꽃들이 예쁘다’는 문장이 부사절로 안겨 있다.

07. ‘내 친구는’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것은 ‘성격이 정말 좋다’라는 서술절이다. ‘좋다’의 주어는 ‘내 친구는’이 아니라 ‘성격이’이다.

08. 간접 인용절에는 조사 ‘고’가 종결어미 ‘-다, -냐, -라, -자, -마’ 따위 뒤에 붙는다. 그러므로 ‘영수는 민서에 빨리 점심이나 먹자고 말했다.’로 써야 한다.

09. ‘내가 했던’은 체언 ‘행동’을, ‘공부하는’은 체언 ‘학생들’을, ‘먹을’은 체언 ‘음식’을 수식하고 있는 관형절이다. ‘-던’, ‘-는’, ‘-을’은 모두 관형사절을 만드는 관형사형 어미이지만, 각각 표현하는 시제가 서로 다르다.

예시 답 ‘-던’, ‘-는’, ‘-을’ 모두 관형절을 만드는 관형사형 어미이지만, 각각 표현하는 시제가 서로 다르다. ‘-던’은 과거를, ‘-는’은 현재를, ‘-을’은 미래를 나타낸다.

평가 기준	배점
공통점인 관형절을 만드는 ‘관형사형 어미’를 바르게 파악한 경우	3점
시제에 있어 차이점을 바르게 파악한 경우	2점

10. 예시 답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 ‘달리기’는 어근 ‘달리-’에 접사 ‘-기’가 붙은 명사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난 홑문장으로,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 아니다.

평가 기준	배점
‘달리기’의 품사를 바르게 파악한 경우	2점
‘홑문장’인 이유를 바르게 파악한 경우	3점

(3) 문법 요소

※ 소단원 적중 문제 ※

pp. 86~91

- 01 ② 02 ㉠: ㉡, ㉢: ㉣, ㉤: ㉥ 03 해설 참조 04 ②
05 ① 06 ④ 07 ④ 08 ② 09 ‘청자’와 ‘객체’가 높임의 대상이다. 10 해설 참조 11 ② 12 ⑤ 13 해설 참조
14 ④ 15 ⑤ 16 해설 참조 17 ② 18 ⑤ 19 ④
20 ① 21 ⑤ 22 해설 참조 23 ③ 24 해설 참조 25 해설 참조

01. 감탄문은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어조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02. ㉠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조용해라'라는 명령의 효과를 내고 있고, ㉡는 '고민거리'에 대한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고, ㉢는 저녁 식사 여부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

03. **예시 답** 억양에 따라 다양한 문장 유형이 된다. 문장의 끝을 내리면 평서문이 되고, 문장의 끝을 올리면 의문문이 되며, 평탄한 억양으로 발음하면 명령문이 된다.

평가 기준	배점
'억양'에 따라 문장 유형이 달라짐을 밝힌 경우	2점
억양과 관련하여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을 바르게 파악한 경우	3점

04. 4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간접 높임은 주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을 말한다.

05. '대답해'는 비격식체 중 '해체'에 해당한다. 이는 격식을 덜 차리는 표현이다.

오답 풀이 ㉡ 격식체 중 '하십시오체'에 해당한다.

④ 격식체 중 '해라체'에 해당하는 데 격식체는 비격식체보다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있다.

⑤ 격식체 중 '하계체'에 해당한다.

06. (가)의 '아프시다'는 용언 '아프다'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시-'가 붙어 표현된 것이지만, (나)의 '계시다'는 선어말 어미가 붙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특수 어휘이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아프시다'는 '허리'를 높임으로써 '어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한편 (나)의 '계시다'는 '선생님'을 직접 높이고 있다.

② (나)의 '선생님'은 명사 '선생'에 접사 '-님'을 붙여 대상을 높인 표현이다.

③ (가)에서는 문장의 주체인 '어머니'가, (나)에서는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다.

⑤ 주격 조사 '께서'는 대상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07. 객체 높임법은 문장에서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인데, 이때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이다. '뵙다'라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해서 목적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상대 높임법으로,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낮추어 말하고 있다.

② 상대 높임법으로,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높여 말하고 있다.

③ '아버지께서 정이 많으시다'는 의미이므로, 주체 높임법이 쓰이고 있다. 또한 상대 높임법으로,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높여 말하고 있다.

⑤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므로 주체 높임법이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대 높임법으로,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높여 말하고 있다.

08. (ㄱ)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삼촌'을 높이고 있다.

(ㄴ) 종결 표현 '해요체'를 통해 상대를 높이고 있다.

(ㄷ)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회장님'을 높이고 있다. 또한 종결 표현 '하십시오체'를 통해 상대를 높이고 있다.

(ㄹ) 부사격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통해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09. 이 문장에서는 '할머니'가 청자이면서 객체이다. '했습니다'와 같은 종결 표현을 통해 청자인 '할머니'를 높이고, '모시러'와 같은 특수 어휘를 통해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10. '계시다'는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일 때 쓰인다.

예시 답 '있으시면'이 적절하다. 주체인 '할아버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인 '물건'을 높임으로써 주체인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배점
높임 표현을 바르게 고른 경우	2점
'간접 높임'이기 때문임을 파악한 경우	3점

11. ㉠에서 '-었-'은 관형사형 어미가 아니라 선어말 어미이다.

12. ㉡에서 '느낀다'의 '-ㄴ-'은 관형사형 어미가 아니라 선어말 어미이다.

오답 풀이 ①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 의존 명사 '것'이 결합하여 미래 시제 외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예쁘다'와 같은 형용사는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

③ 관형사형 어미 '-을-'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④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13.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주로 보조 용언을 사용하여 동작상을 표현한다.

예시 답 ㉠과 ㉡ 모두 '-고 있다', '-어 버리다'와 같은 보조 용언을 사용하여 동작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때 ㉠은 진행상을, ㉡는 완료상을 나타낸다.

평가 기준	배점
공통점이 '동작상'임을 파악한 경우	2점
진행상과 완료상을 바르게 구분하여 차이점을 서술한 경우	3점

14. ㉠의 부사어 '아이에게'에 사용된 조사는 '에게'이고, ㉡의 부사어 '바람에'에 사용된 조사는 '에'이다. 조사 '에게'와 '에'는 서술어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앞 체언이 유정 명사인지 무정 명사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오답 풀이 ①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된다.

② '밀렸다'를 분석하면, '밀-(어근)+-리-(피동 접미사)+-었-(선어말 어미)+-다(어말 어미)'이다.

⑤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15. '감추다'는 사동 접미사가 붙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어휘이다.

오답 풀이 ① 앓히다: 앓-+-히-(사동 접미사)+-다

② 먹이다: 먹-+-이-(사동 접미사)+-다

③ 깨우다: 깨-+-우-(사동 접미사)+-다

④ 날리다: 날-+-리-(사동 접미사)+-다

16. '사용되다'는 어근 '사용'에 피동 접미사 '-되다'가 붙은 것이고, '그려지다'는 어근 '그리-'에 '-어지다'가 결합한 것이다.

예시 답 ⑧와 ⑨는 모두 피동문이다. ④는 피동 접미사 '-되다'에 의해 만들어진 파생적 피동문인 반면, ⑥는 '-어지다'에 의해 만들어진 통사적 피동문이다.

평가 기준	배점
공통점이 '피동문'임을 파악한 경우	2점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을 바르게 구분한 경우	3점

17. ⑥에서 주동문의 목적어인 '책'을 사동문에서도 그대로 목적어이다.

오답 풀이 ① 주동문의 주어 '온도가'는 사동문에서는 목적어 '온도'가 된다.

③ 사동문의 부사어 '수호에게는' '수호로 하여금'으로 대체하여 쓸 수 있다.

④ ④의 주동사 '높다'는 형용사이고, ⑤의 주동사 '읽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다.

⑤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 사동문의 주어는 새로 도입된다.

18. '교육하다' 자체가 사동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사동문의 형태로 바꾸어 쓰는 것이 어색하다. 다만 '교육하게 하다'는 '교관에게 학생들을 교육하게 하다.'와 같이 쓰일 수는 있다.

19. '공부시키다'는 사동 접미사 '-시키다'에 의해 만들어진 파생적 사동문이다.

오답 풀이 ① '걸리다'는 능동사의 어근 '걸-'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② 능동문에 해당한다.

③ '보이다'는 주동사의 어근 '보-'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사동사이므로 사동문에 해당한다.

⑤ '-어지다'에 의한 것은 통사적 피동문에 해당한다.

20. 주체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고, '눈'이라는 외부적 상황이 원인일 때 쓰이는 '못' 부정문이다.

21. '연락이 안 와서'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단순 부정으로 짧은 부정문에 해당한다. '믿지 못하다'는 주체의 능력 부정으로 긴 부정문에 해당한다. '싸우지 말자'는 청유문의 부정문에 해당한다.

22. ㉞는 부정하는 내용이 '철수'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읽다'일 수도 있다. 이러한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사 '은/는'을 사용한다.

예시 답 ㉞는 부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쉽게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의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보기>는 보조사 '은'을 사용하여 부정하는 내용이 '책'이라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중의성을 해소하고 있다.

평가 기준	배점
'보조사', '중의성 해소' 등을 답아 답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중의성 해소'만을 서술한 경우	3점

23. 직접 인용 표현에는 조사 '라고'를, 간접 인용 표현에는 조사 '고'를 쓴다.

오답 풀이 ① 원래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것은 직접 인용 표현에 해당한다.

② 상황에 맞게 문장 종결 표현 등을 바꾸어야 하는 것은 간접 인용 표현에 해당한다.

④ 간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그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법 요소를 고려하여 고쳐 쓴다.

⑤ 직접 인용 표현은 인용절에 큰따옴표를 붙이고, 간접 인용 표현에는 붙이지 않는다.

24.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문장 종결 표현 등을 상황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예시 답 ㉠ 철수는 단체 여행 중에 빨리 출발하자고 소리쳤다. → '출발합시다'가 '출발하자'로 되는 것과 같이 높임 표현이 변화한다.

㉡ 그 사람은 어제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 '오늘'이 '어제'로 되는 것과 같이 시간 표현이 변화한다.

㉢ 시골에 간 연회는 그곳이 정말 좋다고 말했다. → '이곳'이 '그 곳'으로 되는 것과 같이 지시 표현이 변화한다. 또한 '좋아'가 '좋다'로 되는 것과 같이 종결 표현이 변화한다.

평가 기준	배점
간접 인용을 모두 바르게 고친 경우	5점
두 개만 바르게 고친 경우	3점
한 개만 바르게 고친 경우	1점

25. **예시 답** • 바꾼 표현: 머그잔을 쓰시오.

• 표현 효과: 명령문으로 바꾼 문구는 원래의 광고 문구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직접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광고라는 매체 특성을 고려할 때 내용을 직접적으로 명확히 전달한다고 해서 그 표현 효과가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평가 기준	배점
표현을 바르게 고친 경우	2점
효과를 바르게 쓴 경우	3점

01 ④ 02 ① 03 ④ 04 ④ 05 ③ 06 ⑤ 07 ④
08 ③ 09 꽃이 어제 피었다. 10 ④ 11 ② 12 ③
의문문, ⑥ 의문문 13 ① 14 ④ 15 ② 16 ⑤ 17 해설 참조
18 해설 참조 19 해설 참조

01. ㄹ에서 주성분은 세 개로, 주어 '학생들이', 목적어 '점심을', 서술어 '먹는다'이다. 필수적인 문장 성분 또한 세 개로, 주어 '학생들이', 목적어 '점심을', 서술어 '먹는다'가 필수적인 문장 성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주성분은 세 개로, 주어 '물이', 보어 '얼음이', 서술어 '되었다'이다. 필수적인 문장 성분 또한 세 개로, 주어 '물이', 보어 '얼음이', 서술어 '되었다'이다.

② 부사어는 부속 성분으로, 대개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생기다'라는 서술어는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는데, 이때 '멋있게'와 같은 부사어를 필수 부사어라고 한다.

③ 주어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으로, 이 문장에서는 '시작되다'의 주어가 빠져 있다.

⑤ 이 문장에는 주어 '아이가', 관형어 '작은', 부사어 '침대에서', 부사어 '편안히', 서술어 '잔다' 등 여러 문장 성분이 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 필수적인 것은 주어 '아이가'와 서술어 '잔다'이다.

02. '새로운'은 관형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용언 '새롭다'의 관형사형이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오답 풀이 ② '영수'는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된 채 체언인 '장난감'을 수식하고 있다.

③ 용언의 관형사형 '먹을'은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④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를 결합하면 관형어를 만들 수 있다.

⑤ 용언의 명사형 '나눔'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되어 '즐거움'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되었다.

03. '다르다'는 '나와'와 같은 부사어를, '넣었다'는 '주머니에'와 같은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오답 풀이 ① '보다'는 '누나와'와 같은 부사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삼다'는 '수양딸로'와 같은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② '주다'는 '넉넉히'와 같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와 같은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적합하다'는 '벼농사에'와 같은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③ '방문하다'는 '저녁에'와 같은 부사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만나다' 역시 '공원에서'와 같은 부사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⑤ '빌리다'는 '친구에게'와 같은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잡다'는 '몽둥이로'와 같은 부사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04. (ㄷ)은 '나는 학교에 간다.'라는 완결된 형식에서 일부 문장 성분이 생략된 것이지만 (ㄴ)은 문장 성분이 생략된 형식이 아니

다. (ㄴ)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지 않지만 의미상으로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문장이 끝났음을 알리는 표지, 즉 느낌표와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문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05. 서술절 '자립심이 매우 강하다'를 안고 있는 겹문장이다. 이 서술절은 주어 '나의 동생은'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① 관형어(우리, 집), 부사어(마당에, 가득), 주어(개나 리꽃이), 서술어(피었다)가 있지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홑문장에 해당한다.

② 안긴문장 ('그 선수가) 빠르다'가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④ '누나가 최신 휴대폰을 산다.'와 '누나가' 돈을 모은다.'가 이어진 문장으로, 뒷문장에서 주어 '누나가'가 생략되어 있다.

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 '엄마는 밥을 좋아하고, 그는 빵을 좋아한다.'라고 써도 그 의미가 통한다.

06. ㉠, ㉡, ㉢에는 '내가 좋아하는', '바쁜', '성능이 좋은' 등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인 관형절이 있다. 하지만 ㉣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인 관형절이 없다.

오답 풀이 ① ㉣에는 '자기가 직접 확인하겠다.'라는 인용절이 안겨 있다.

② ㉠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 즉 서술절은 '마음이 정말 착하다'인데, 이때 '정말'은 부사어이다.

③ ㉡에서 명사절은 '학교 가기'인데, 여기에는 주어인 '동생이'가 생략되어 있다.

④ ㉢에서 '날이 덥다'와 '나는 성능이 좋은 선풍기를 샀다.'는 이어진 문장이다. 여기에서 '성능이 좋은'은 '나는 성능이 좋은 선풍기를 샀다.'라는 문장의 안긴문장에 해당한다.

07. 명사절 '사람들이 도착하기'가 '전'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관형어로 쓰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08. ③은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으로, 앞 절과 뒤 절이 대조의 의미 관계를 이룬다.

오답 풀이 ① 종속적 연결 어미 '-(으)면-'은 조건의 의미를 나타낸다.

② 종속적 연결 어미 '-는데'는 상황의 의미를 나타낸다.

④ 종속적 연결 어미 '-(아)서-'는原因的 의미를 나타낸다.

⑤ 종속적 연결 어미 '-(으)더라도-'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

10. ㉠에서는 종결 표현 '해요체'를 사용하여 청자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에서는 조사 '께서', '말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에서는 조사 '께'와 특수한 어휘 '드리다'를 통해 객체인 '부장님'을 높이고 있다.

11. ㉠의 ‘아프시다’에서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에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고, 특수한 어휘 ‘드리다, 모시다’를 통해 객체인 ‘아버지’와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과 ㉡ 모두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주체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에서는 ‘눈’을, ㉢에서는 ‘말씀’을 높임으로써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각각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④ ㉡과 ㉢ 모두 부사격 조사 ‘께’를 통해 객체인 ‘아버지’와 ‘그분들’을 높이고 있다.

⑤ ㉡은 ‘드리다, 모시다’를, ㉢은 ‘여쭙다’를 사용하여 ‘아버지, 할머니’와 ‘그분들’을 높이고 있다.

12. 문장의 종류는 의미나 기능이 아니라 형식에 의해 결정되므로 ㉠과 ㉡은 모두 의문문이다.

13. ‘떨리다’는 능동사 어근 ‘떨-’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놀리다’는 주동사 어근 ‘놀-’에 사동 접미사 ‘-리-’가 붙어서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오답 풀이 ② ‘날리다’는 능동사 어근 ‘날-’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감추다’는 피동 접미사나 사동 접미사가 붙은 동사가 아니다.

③ ‘줍히다’는 주동사 어근 ‘줍-’에 사동 접미사 ‘-히-’가 붙어서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감기다’는 능동사 어근 ‘감-’에 피동 접미사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④ ‘놓이다’는 능동사 어근 ‘놓-’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몰리다’는 능동사 어근 ‘몰-’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⑤ ‘피우다’는 주동사 어근 ‘피-’에 사동 접미사 ‘-우-’가 붙어서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높이다’는 주동사 어근 ‘높-’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14. <보기>의 ㉠은 긴 부정문으로 능력 부정(능력 부족)이고, ㉡는 짧은 부정문으로 단순 부정이다. 음정과 가사를 제대로 외우지 못한 것은 외우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집이 안 나온 것은 의지나 능력이랑 관계없는 단순한 상태의 부정이라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번의 ㉠은 긴 부정문으로 능력 부정(능력 부족)이고, ㉡는 짧은 부정문으로 단순 부정이다. 문제가 어려워져 못 풀 것은 문제를 풀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날씨가 안 추운 것은 의지나 능력과는 관계없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은 긴 부정문으로 능력 부정(능력 부족)이다.

㉡는 긴 부정문으로 의지 부정이다.

② ㉠은 긴 부정문으로 능력 부정(외부 상황)이다.

㉡는 짧은 부정문으로 의지 부정이다.

③ ㉠은 짧은 부정문으로 능력 부정(외부 상황)이다.

㉡는 짧은 부정문으로 단순 부정이다.

⑤ ㉠은 짧은 부정문으로 능력 부정(능력 부족)이다.

㉡는 긴 부정문으로 의지 부정이다.

15. 주체의 의지가 있는 것은 ‘안’ 부정문에 없는 것은 ‘못’ 부정문에 해당한다.

㉠ ‘나는 탁구를 못 친다.’ 또는 ‘나는 탁구를 치지 못한다.’

㉡ 나는 탁구를 안 친다.

㉢ 나는 탁구를 치지 않는다.

16.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서 인용절 이외의 다른 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보기>의 ㉠~㉣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제가’가 ‘자기’로 바뀌었다.

② ㉢에서 ‘주시오’가 ‘달라’로 바뀌었다.

③ ㉡에서 ‘가겠습니다’가 ‘가겠다’로, ㉣에서 ‘떠납시다’가 ‘떠나자’로 바뀌었다.

④ ㉠에서 ‘내일’이 ‘오늘’로 바뀌었다.

서술형 문제

17. **예시 답** ㉠ 한 자리 서술어이다. 주어인 ‘꽃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 두 자리 서술어이다. 주어인 ‘그분은’과 목적어인 ‘손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 세 자리 서술어이다. 주어인 ‘내가’와 목적어인 ‘선물을’과 부사어인 ‘언니에게’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평가 기준	배점
㉠, ㉡, ㉢의 서술어의 자릿수를 모두 파악하고 그 이유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5점
㉠, ㉡, ㉢의 서술어의 자릿수를 모두 파악하였으나 그 이유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4점
㉠, ㉡, ㉢의 서술어의 자릿수를 모두 파악하였으나 그 이유를 하나도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18. **예시 답** • ㉠은 겹문장이다. 전체 문장에서 주어 ‘나는’과 서술어 ‘싫어하다’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난다. 또한, ‘추운’은 관형절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생략된 주어 ‘겨울이’와 서술어 ‘춥다’의 관계가 또 다시 나타난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났으므로, 겹문장에 해당된다.

• ㉡은 홑문장이다. 주어 ‘나는’과 서술어 ‘싫어하다’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배점
㉠, ㉡의 문장 종류를 제대로 판단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한 경우	5점
㉠, ㉡의 문장 종류를 제대로 판단하였으나 그 이유를 미흡하게 제시한 경우	3점
㉠, ㉡의 문장 종류만 맞힌 경우	2점

19.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을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하고,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을 통사적 사동문이라고 한다. ㉠의 ‘신기다’는 주동사의 어근 ‘신-’에 사동 접미사 ‘-기-’가 붙

어 만들어진 사동사로 파생적 사동문이다. ㉔의 '신게 하다'는 어근 '신-'에 '-게 하다'가 붙어 만들어진 통사적 사동문이다.

예시 답 파생적 사동문은 통사적 사동문에 비해서 더 직접적인 의미를 지닌다. ㉔는 파생적 사동문으로 엄마가 아이의 양말을 직접 신겨 주는 행위를 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㉔는 통사적 사동문으로 직접 양말을 신겨 주지는 않고 단지 양말을 신으라고 말만 하거나 양말을 준비해 주거나 하는 것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평가 기준	배점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을 구분하고 그 의미 차이를 명확히 제시한 경우	5점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을 구분하였으나 그 의미 차이를 미흡하게 제시한 경우	4점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만을 구분한 경우	3점

4. 담화

(1) 담화의 개념과 특성

※ 소단원 적중 문제 ※

p. 100

01 ㉔ 02 ㉔ 03 해설 참조

01. (나)에서 알 수 있듯이, 둘 이상의 발화가 모였다고 해서 항상 적절한 담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담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 즉 통일성과 응집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02. <보기>의 글은 '탄수화물', '섬유소', '비섬유소' 등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에서 흡수하여'에서 '이'라는 대용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반면'이라는 접속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03. 대용 표현은 앞선 발화에서 언급된 것을 다시 가리킬 때 쓰인다는 점에서 화자와 청자로부터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구별하여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과 구별된다.

예시 답 ㉔와 ㉔는 민희가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키므로 지시 표현이다. ㉔는 '언니가 생일 때마다 사주는 책들'이라는 앞선 발화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대용 표현이다.

평가 기준	배점
예시 답에 가깝게 설명한 경우	5점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의 구분이 잘못되었거나 그 이유가 잘못되었을 경우마다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있는 경우	-1점

(2) 담화의 맥락과 효과적인 국어 생활

※ 소단원 적중 문제 ※

p. 102

01 ㉔ 02 ㉔

01. (다)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화의 맥락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오답 풀이 ㉔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㉔ (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㉔ (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㉔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 발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상황 맥락을 고려했을 때 [A]와 같은 영호의 발화는, 밥 먹으러 같이 가자는 선생님의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01 ③ 02 해설 참조 03 ⑤ 04 ⑤ 05 ① 06 해설 참조 07 해설 참조

01. 접속 표현의 다양한 유형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02.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담화가 되기 위해서는 담화 내의 발화들이 하나의 주제 아래 유기적으로 모여 있어야 한다. 담화 내의 발화들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성질을 담화의 '통일성'이라고 한다.

예시 답 <보기>에 제시된 담화의 주제는 '도서관 이름이 '슬기꺾'인 이유'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여섯 번째 발화(문장)인 '강은 인간에게 혜택도 주지만 피해도 줍니다.'는 담화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다. 그러므로 담화의 통일성을 위해서는 이 발화(문장)를 삭제해야 한다.

평가 기준	배점
예시 답에 가깝게 설명한 경우	5점
설명이 미흡한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있는 경우	-1점

03. (마)의 B의 밑줄 친 '이건'은 뒤의 발화 내용인 '동아리 활동 사진전을 열어 보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시 표현이 아니라 대용 표현에 해당한다. 대용 표현은 보통 앞선 발화 중의 내용을 가리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처럼 이후 나타나는 발화 중의 내용을 가리키기도 한다.

04. ⑤는 학급회의가 끝났음을 알리는 단순 진술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상황에 의해 달리 이해되는 발화들이다.

오답 풀이 ① 상황을 고려할 때,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이다.

② 상황을 고려할 때, '흡연을 삼가 달라'는 요청이다.

③ 상황을 고려할 때, '약을 먹으라'는 요청이다.

④ 상황을 고려할 때, '비켜 달라'는 요청이다.

05. 이 과장은 15%의 할인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매장 주인은 할인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과 같은 발화로 응대하였다. 이는 상황 맥락을 고려해 볼 때, 매장 주인이 이 과장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발화라고 할 수 있다.

서술형 문제

06. 담화 내에서 어떤 발화를 둘러싼 앞뒤의 발화를 언어적 맥락이라고 한다.

예시 답 B의 발화에서 '거기'는 '축구를 하기로 한 장소'를 의미한다. 이는 B의 발화 이전의 A의 발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B의 발화에서 '거기'는 언어적 맥락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축구를 하기로 한 장소', '언어적 맥락' 등의 용어를 포함하여 예시 답에 가깝게 설명한 경우	5점
예시 답의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가 누락된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있는 경우	-1점

07. 통일성이란 담화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들이 내용상 하나의 주제 아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응집성이란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이 특정한 형식 요소에 의해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예시 답 학생의 발표 주제는 걱정 인형에 관한 것인데, 두 번째 문장에서 걱정 인형 외에 과테말라의 다양한 민간 풍습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통일성을 위해서는 두 번째 문장을 삭제해야 한다. 학생의 발표 내용에서는 '이', '이러한' 등의 지시 및 대용 표현과 '그래서', '하지만' 등의 접속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응집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예시 답에 가깝게 설명한 경우	5점
통일성과 응집성 중 하나에 대해서만 서술한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있는 경우	-1점



1. 매체 언어의 특성

(1) 정보의 구성과 유통 방식

※ 소단원 적중 문제 ※

pp. 110~111

01 ④ 02 ④ 03 해설 참조 04 ② 05 ⑤

01. (가)는 책과 같은 인쇄물의 형태로 유통되지만 (나)는 서버 등의 디지털 정보의 형태로 유통된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정보 제공의 속도나 정보 제공자의 범위, 정보의 복제와 대량 유통의 용이성의 측면에서 인터넷 매체인 (나)가 인쇄 매체인 (가)보다 더 빠르고 넓고, 용이하다.

⑤ (가)는 정보의 보존과 유통이 제한적이고, (나)는 (가)에 비해 정보의 보존과 유통이 자유롭지만 간혹 디지털 정보의 오류로 보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02. 정보를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히는 것이 정당한 것이나, (나)에서는 (가)에 사용된 정보를 직접 인용한 부분이 없고, 따라서 출처를 밝힌 부분도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다룬 스매시와 관련된 정보 중 스매시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집중해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② 스매시 자세를 동영상에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③ 스매시를 익히기 전에 배드민턴의 기본 자세인 배드민턴 그림 잡는 방법을 하이퍼링크로 연결하여 알려 주고 있다.

⑤ 댓글 기능을 통해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03. 댓글은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에 대해 짧막하게 의견을 덧붙이는 기능으로, 이를 바탕으로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을 할 수 있다.

예시 답 '댓글'은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정보와 관련된 이해를 높여 주는 기능이 있다.

평가 기준	배점
댓글의 기능을 소통 측면에서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댓글의 기능만을 서술한 경우	3점
국어의 정서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4. (가)는 문자 언어와 시각적 이미지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데 비해, (나)는 동영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실재감이

(가)에 비해 더 높다.

오답 풀이 ① 정보 전달 속도는 인쇄 매체인 (가)가 방송 매체인 (나)보다 느리다.

③ 인쇄 매체인 (가)는 정보 수용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방송 매체인 (나)는 정보의 선택적 수용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④ 정보의 구성과 유통에 상대적으로 시간적 제약이 따르는 것은 (나)이다.

⑤ (가)에 비해 (나)가 더 다양한 매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05. 신문은 인쇄 매체를 통해 정보를 구성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주로 문자나 이미지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내용을 구성하고, 청각이나 동영상 이미지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기사의 표제에 대한 설명이다.

② 기사의 전문에 대한 설명이다.

③ 인쇄 매체이므로 문자 언어를 기본으로 하지만 사진이나 그림, 통계 자료와 같은 시각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중요한 기사에 대해서는 글자의 크기를 키우거나 굵게 하여 그 중요성을 표현할 수 있다.

(2) 표현의 창의성과 심미적 가치

※ 소단원 적중 문제 ※

pp. 113~114

01 ③ 02 ③ 03 ④ 04 해설 참조 05 해설 참조
06 ① 07 ⑤

01. (가)는 증강 현실을 구현함으로써, (나)는 찢어진 종이의 이미지와 배기가스의 이미지를 연결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영상 매체이다.

② (나)는 인쇄 매체이므로 청각 매체를 사용할 수 없다.

④ 표현에 있어 심미적 가치가 나타날 수는 있으나 심미적 목적으로 창작된 것은 아니다.

⑤ (가)와 (나)는 관습적이기보다는 창의적으로 표현된 매체 자료들이다.

02. 시민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그래픽을 통해 가상의 호랑이 이미지를 실제 촬영 화면에 덧붙여 보여 주고 있다.

② 호랑이가 도심에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을 연출하고 있다.

④ 호랑이가 도심에 나타난다는 실험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영상 매체를 통해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표정을 보여 주고 있다.

03. 글자의 진하기를 다르게 하여 생산자가 주장하는 바를 강조

하고 있지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여 이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목재를 실은 트럭의 사진과 문자 언어를 조합하여 구성하였다.

② 트럭의 배기가스 이미지를 마치 찢어진 종이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③ '1톤의 폐지 재활용은 1.07379톤의 CO₂를 저감합니다.'의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을 함부로 사용하는 건, ~을 함부로 배출하는 것'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04. 광고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생산자의 의도를 바탕으로 수용자를 설득하는 데 있고, 이 광고의 경우 수용자로 하여금 폐지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을 설득하는 데 그 핵심 내용이 있다.

예시 답 매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광고이며, 그 핵심 내용은 폐지 재활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평가 기준	배점
목적과 핵심 내용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목적과 핵심 내용 중 하나만을 서술한 경우	3점
국어의 정서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5. 소금의 색깔이 눈처럼 하얗다는 점과 그 맛이 눈물처럼 차다는 점을 통해 다른 대상을 연상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예시 답 색깔과 맛이 갖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다른 대상을 소금을 연상하도록 표현하고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유사성'과 '연상'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표현상의 특징을 서술한 경우	5점
'유사성'과 '연상' 중 하나만의 단어를 포함하여 표현상의 특징을 서술한 경우	3점
국어의 정서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6. (가)는 소금을 연상할 수 있는 이미지를 통해, (나)는 애니메이션의 매체적 표현 방식을 통해 수용자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심미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오답 풀이 ② (가)는 소금의 사용을 설명하기 위해 재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 생산자의 심미적 체험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③ (가), (나)는 모두 즉각적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④ (가)에는 영상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가), (나) 모두 창의적 발상으로 미적 아름다움을 배가시키고 있지 않다.

07. 별에 새싹이 나고 비가 내린 장면에서 아버지와 딸이 함께 서 있는 장면이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딸이 아픈 와중에도 아버지가 별에 구멍을 뚫는 것을 방해하러 나온 장면을 보면 딸이 견지도 못했었다는 진술은 애니메이션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별에 구멍을 뚫는 것은 딸을 살리기 위한 행위지만 결과적으로 별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③, ④ 이 애니메이션은 전반부의 어둡고 날카로운 이미지로 현실의 위기를 나타내고, 후반부의 따뜻한 색감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중단원 실전 문제 XX ----- XX pp. 115~117

01 ① 02 ④ 03 ④ 04 정서, 창의 05 ④ 06 ①
07 해설 참조 08 해설 참조

01. 신문은 기사를 어느 면에다가 신느냐, 혹은 전체 면 중 해당 기사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기사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방송 뉴스는 보도 순서를 얼마나 앞에 두느냐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도에 할애하고 있느냐에 따라 정보의 중요성이 결정된다.

02. 신문과 방송 뉴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생산자에서 수용자로 일방향적 소통을 통해 전달된다.

오답 풀이 ① 신문의 표제는 기사 내용 전체를 개관하는 기능을 한다.

② 동영상을 통한 인터뷰는 정보의 실재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③ 신문이 방송 뉴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다.

⑤ 인쇄 매체인 (가)는 문자와 도표만 사용하고 있지만 방송 매체인 (나)는 문자를 사용한 자막, 아나운서와 기자 등의 음성, 그리고 방송 영상 등 많은 매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03. (가)와 (나)는 창의적 표현 방식이 사용된 광고 자료인 반면, (다)는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심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순수한 목적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오답 풀이 ① (다)는 애니메이션으로 영상 매체이다.

② (나)에도 사진, 문자, 이미지 등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이 활용되고 있다.

③ (가)에는 영상 매체이므로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적 이미지도 사용되고 있다.

⑤ (나), (다)는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05. (가)는 증강 현실 기술을 사용하여 가상의 장면이 마치 현실에서 일어난 것처럼 연출한 것이므로 ④는 계획 회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호랑이의 이미지를 증강 현실을 사용하여 도시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고 있다.

⑤ (가)는 일종의 실험처럼 설정된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을 관찰하여 보여 주고 있다.

06. <보기>는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피해를 경고하고 있는 공익 광고이고, (나)는 종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경고하고 있는 공익 광고이다.

오답 풀이 ② (나)는 '1톤의 폐지 재활용은 1.07379톤의 CO₂를 저감합니다.'에서 진한 글씨로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 <보기>는 '숲'의 글자 크기를 통해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③ <보기>와 (나) 모두 '자연을 보호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익 광고이다.

④ (나)는 배기가스와 찢겨진 종이, <보기>는 자동차의 매연과 사라지는 숲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주제를 창의적으로 드러내었다.

⑤ <보기>와 (나) 모두 사진, 혹은 그림과 같은 이미지와 문자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서술형 문제

07. (1) **예시 답**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2) **예시 답** 정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배점
매체와 이유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1)과 (2)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3점
국어의 정서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8. (1) **예시 답** 숫자를 통해 역사적 사건을 표현하였다.

(2) **예시 답** 학생들이 역사의 중요성을 알고 역사를 공부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창의적 표현을 파악하고 전달 목적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1)과 (2)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3점
국어의 정서법에 어긋난 경우	-1점

2 매체 자료의 수용과 생산

(1) 매체로 만나는 너와 나

※ 소단원 적중 문제 ※

pp. 121~123

01 ① 02 ④ 03 해설 참조 04 ② 05 ④ 06 ③
07 ③ 08 ② 09 ② 10 ⑤

01. (나)는 사진이나 그림, 문자 언어 등 다양한 매체 언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가)는 문자 언어만 사용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나)는 누리 소통망(SNS)이고, (다)는 인터넷 카페로 모두 전자 매체를 통해서 소통된다.

③ 인쇄 매체인 (가)는 전자 매체인 (나)에 비해 신속성과 편의성이 떨어진다.

④ (다)는 인터넷 카페로 소통의 범위가 가입한 사람에 국한되지만 소통의 범위가 일대일인 (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다.

⑤ (가)~(다)는 모두 소통의 대상과 친밀한 교류를 나누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02. 2문단의 세 번째 줄을 보면 엄마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수민이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마지막 문단에서 수민이가 엄마가 다시 공부하는 것을 응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첫 문장에서 수민이가 고등학교 생활을 마쳤지만 아직 대학에 입학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③, ⑤ (가)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03. (다)의 카테고리에 고양이를 알리기와, 고양이 일기, 그리고 고양이 용품 공유 등이 있으므로, 이 카페에 모인 회원들은 고양이를 자랑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가입했음을 알 수 있다.

예시 답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양이를 자랑하고, 고양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했을 것이다.

평가 기준	배점
자랑과 정보 공유 등의 내용을 담아 서술한 경우	5점
예시답과 유사한 내용을 담았으나 서술한 내용이 미흡한 경우	2점
국어의 정서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4. <보기>는 게시자가 올린 사진과 글에 대해 비하하는 글을 쓴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았음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글을 써 주기를 부탁하고 있으므로 토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오답 풀이 ① 카페가 소통을 위한 것이므로 남의 글에 의견 자체를 달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게시판은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모두 올릴 수 있다.

⑤ 도배성 글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보기>에 그런 내용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5. ①은 이모티콘, 혹은 감정 스티커라고 하는 것으로, 컴퓨터 자판의 특수 문자나 이미지,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하여 문자 언어를 보조하여 발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오답 풀이 ① '친구 추가'와 같은 기능이 이에 해당한다.

② '닉네임'이 이에 해당한다.

③ '해시 태그'에 대한 설명이다.

⑤ '하이퍼링크'에 대한 설명이다.

06. 화상 채팅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상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⑤ 익명성에 기댄 폭력이나 불확실하거나 거짓된 정보의 확산 등은 누리 소통망(SNS)의 단점에 해당한다.

②, ④ 소통의 범위를 확장하고, 멀리 있는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누리 소통망(SNS)의 장점에 해당한다.

07. 사만다와 아나이스는 화상 채팅이나 이메일과 같은 전자 매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였다.

오답 풀이 ① 사만다와 아나이스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② 미국과 프랑스는 서로가 입양을 간 곳이지 태어난 곳은 아니다.

④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통해 상대를 발견한 것은 사만다가 아니라 아나이스이다.

⑤ 사만다는 아나이스의 동의하에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08. 화연이와 친구들이 천지가 대화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지의 응답을 했으므로, 이는 의도적으로 천지를 괴롭힌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별 뜻 없’는 행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화연이와 친구들이 온라인 대화방에서 천지를 따돌리는 행위를 했으므로 천지는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라 할 수 있다.

③ 친구들도 화연이와 함께 천지를 따돌리는 행위에 동참했으므로 가해자로 볼 수 있다.

④ 사이버 불링은 누리 소통망 문화의 확산에서 비롯되었다.

⑤ 사이버 불링은 ‘집단 괴롭힘’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단 둘이 다투는 것은 사이버 불링으로 보기 어렵다.

09. <보기>를 보면 영상으로 제작하여 누리 소통망에 올린다고 했으므로, 영상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 외에 다른 친구들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상 편지에 둘 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⑤ 영상 편지는 다양한 매체 언어를 사용하여 재미있고 창의적으로 내용을 구성하되, 친교의 목적을 고려하여 상대방과의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④ 제작 시 기존의 영상물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모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으므로 삼가야 한다.

10. 좋은 장비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영상을 얻는 것도 좋지만 학생 수준에서 전문가용 촬영 장비를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용 촬영 장비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영상 편지는 그 속성상 수신자가 있어야 한다.

②, ③ 영상 편지는 기본적으로 대본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때 편지 작성의 목적과 주제가 무엇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④ 영상 매체의 특성상 음악이나 자막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매체로 주고받는 정보

※ 소단원 적중 문제 ※

pp. 126-128

01 ① 02 ⑤ 03 ③ 04 ⑤ 05 ② 06 ④ 07
해설 참조 08 ④ 09 ⑤ 10 ④

01. (가)는 모기가 급감한 이유에 대한 정보를, (나)는 승선교의 구조적 아름다움에 대한 정보를, (다)는 감자조림 요리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생산된 매체 자료이다.

오답 풀이 ② 정보 전달 매체일지라도 생산자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지만 의견 전달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③ 심미성을 다소 포함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④ 정보를 주고받다가 친밀한 교분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⑤ 즉각적이고 쌍방향적인 소통이 가능한 것은 (다)뿐이고, (다)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02. [E]에서 모기 수 급감의 원인으로 ‘지엽적 집중 호우’와 ‘고온으로 인한 모기의 서식 환경 악화’를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A]에는 그런 언급이 없으며, 문답의 형식 또한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표제는 글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나타낸다.

② 전문은 기사의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다.

③ 시각 자료는 [B]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간 별 모기 감시 현황을 담고 있다.

④ 집중 호우나 가뭄, 즉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너무 오지 않는 것이 모기 수 급감의 원인으로 제시되어 있다.

03. (나)는 광주 방송에서 제작하여 방송한 다큐멘터리이고, (다)는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감자조림 조리법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나)는 (다)에 비해 전문가에 의해 정보가 생산된다.

② 방송 매체는 인터넷 매체에 비해 정보를 선별하여 보기 어렵다.

④ (나)는 문자 언어보다는 음성이나 영상에 의해 내용이 전달되고, (다)는 문자 언어가 정보 전달의 주가 되고 있다.

⑤ (나)는 동영상이고, (다)는 문자 언어와 사진 자료가 정보 전달의 중심이 된다.

04. (다)에 제시된 블로그 화면에는 감자조림과 관련된 내용만 있을 뿐 감자와 관련된 다른 요리법을 연결시키는 하이퍼링크는 나와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블로그에 담긴 주된 정보가 감자조림을 만드는 법이다.

② 1), 2)의 항목에서 요리 재료와 기본 정보를 문자 언어로 제시하고 있다.

③ 2)에서 사진 자료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④ (다)의 가장 아래에 댓글을 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05. 방송 뉴스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버섯의 무단 채취가 위험함을 알리고 있다. 첫 번째는 일반인이 독버섯과 식용 버섯을 구

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④ 독버섯을 잘못 먹으면 위험하다는 것이나 독버섯과 식용 버섯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정보는 ②의 정보를 주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다.

③, ⑤ 이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06. ㉔의 취재 대상자는 버섯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버섯을 무단으로 채취해 온 탐방객으로 독버섯과 식용 버섯을 구분하지 못한 채 버섯을 채취하는 문제 상황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① ‘가을 산행 독버섯 주의’는 이 기사의 제목과 같은 것으로, 이를 자막으로 제시하여 뉴스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여 준 것이다.

② 아나운서의 첫 대사에서 뉴스의 화제를 소개하고 있다.

③ 기사는 현장에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독버섯과 식용 버섯이 비슷하여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각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다.

07. 뉴스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정보가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 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한 것이어야 한다.

예시 답 뉴스는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자료이고,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 자료는 공정성과 정확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 공정성은 논쟁 중인 쟁점이나 갈등 상황을 다룰 때는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하고, 정확성은 과장이나 허위 없이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보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	배점
요건으로 ‘공정성’과 ‘정확성’을 밝히고 그 의미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둘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3점
국어의 정서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8. 기자의 마지막 대사에서 허가받지 않고 버섯을 채취했을 때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언급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뉴스와 관련이 있는 독버섯과 식용 버섯을 구별하는 방법이나 국립 공원에서 버섯 채취를 허가받는 방법,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독버섯의 종류, 독버섯의 해독 방법 등은 후속 보도로 다룰 만한 소재가 된다.

0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르바이트 정보는 고등학생들의 학급 신문 정보로는 유용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고등학교 학생이 관심을 가질만한 적성과 진로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학급이나 과제, 평가와 같은 학교 생활 관련 정보는 학급 신문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다.

10. 신문을 만들 때, 독자의 흥미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신문 제작의 목적이 재미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미 위주로 기사를 구성하였는지 묻는 것은 적절한 평가 항목이 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정보 전달 매체이기 때문에 제공되는 정보의 객관성은 중요한 평가 항목이 된다.

②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보도 윤리에 어긋나므로, 이를 엄격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③ 기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신문의 기사 배치나 효율적인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⑤ 무엇보다 신문의 기사 내용과 구성은 신문 제작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3) 매체로 설득하다

소단원 적중 문제					
pp. 131~133					
01 ①	02 ③	03 ②	04 해설 참조	05 ③	06 ⑤
07 ④	08 ③	09 해설 참조			

01. (가)는 인쇄 매체인 신문에 실린 글로, 예습과 복습 중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 혹은 의견을 담고 있고, (나)는 동영상 매체로서 ‘모금’을 권장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④, ⑤ (가)는 인쇄 매체의 시사 평론, (나)는 영상 매체의 공익 광고, (다)는 라디오 매체의 축제 광고이다.

02. 글쓴이는 복습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습이 그것을 방해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④, ⑤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나)는 모금의 중요성과 가치를 전달하고는 있지만 모금에 참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④, ⑤ 처음 세 컷에서 어린아이와 성인이 화면 앞에 다가와 반복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모습에 반영되었다. ③ ‘취약 계층 맞춤형 지원’, ‘의료 소외 계층 지원’, ‘긴급 재난 구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04. 설득적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그 내용이 자신에게 유용하고 타당성을 가진 설득인지를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시 답 매체 자료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자신에게 유용한 것 인지와 전달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판단해 보아야 하며 무조건 수용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평가 기준	배점
‘유용성’과 ‘타당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하여 수용할 때의 유의점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둘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3점
국어의 정서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5. (다)는 라디오 광고로, 매체의 특성상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

할 수 없으므로 자막을 사용하여 행사의 주요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축제명과 장소가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② ‘청양으로 가자’를 ‘가자, 청양으로!’로 도치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신나는 행진곡이 배경 음악으로 쓰였다.

⑤ 공연, 경품 행사, 먹거리 등이 나열되었다.

06. 학교 홍보를 위한 것이므로 ⑤와 같은 부정적인 내용을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이므로, 학교 신문이나 인쇄 포스터, 학교 라디오 방송이나 학교 누리소통망(SNS)에 그 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

07. 이 광고는 우유팩과 화장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정하여, 마치 사람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는 모습으로 그려냄으로써 재활용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는데, 사물을 사람으로 설정하여 사건을 그려내는 기발한 발상으로 인해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유명 연예인이 광고에 나오지 않는다.

② 광고에서 청소기와 화장지의 특성이 비교되지 않았다.

③ 화장지의 장점이나 우수성이 제시되지 않았다.

⑤ 질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08. 이 광고는 다른 광고에서는 볼 수 없는 독창적인 설정과 표현으로 시청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는 작품으로, 재활용 광고에서 흔히 제시하는 방식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사물인 우유팩과 화장지를 사람처럼 설정하여 위기에 빠진 화장지를 우유팩이 구해 준다는 내용이 재미있고 흥미롭다.

② ‘그들은 서로 바라본다’, ‘오늘도 열심히~ 청소~ 청소~’ 등의 자막이 사용되었다.

④ 이 광고가 재활용과 관련된 것임은 알 수 있지만 ‘재활용 독려’라는 주제가 광고에 강조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

⑤ ‘father’인 우유팩이 재활용 마크를 사이로 ‘son’인 화장지와 수직으로 배치되어 둘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09. 이 광고는 우유팩이 재활용되어 만들어진 화장지를 보호하는 모습을 통해 재활용의 가치와 재활용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시 답 재활용의 가치를 부각하고, 재활용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재활용의 가치’와 ‘재활용의 독려’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 서술한 경우	5점
‘재활용’이란 내용은 담았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3점
국어의 정서법에 어긋난 경우	-1점

(4) 매체로 빛은 예술

※ 소단원 적중 문제 ※

pp. 136~138

01 ⑤ 02 해설 참조 03 ③ 04 ④ 05 ⑤ 06 ③
07 ③ 08 ④ 09 해설 참조

01. 심미적 매체는 기본적으로 정서적 공감을 바탕으로 감상해야 하는데, 심미적 매체에 정서적으로 공감하기 위해서는 심미적 매체가 지닌 언어적 기능, 즉 매체의 표현 방식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심미적 매체 자료를 이성적으로 수집하고 사실성을 검증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② 심미적 매체 자료의 표현 기법을 아는 것은 감상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그 기능을 익히고 재현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③ 매체 자료의 의미는 매체의 특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므로, 매체적 특징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④ 생산자의 의도는 심미적 매체 감상에서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기에 그것만을 충실하게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심미적 매체 자료는 기본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창작 목적이다.

예시 답 (가)~(다)는 모두 ‘아름다움’을 통해 ‘정서적 고양’이나 ‘공감’을 일으키고자 하는 심미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정서적 고양’, ‘공감’과 같은 단어를 포함하여 ‘심미적 목적’이란 내용을 담아 서술한 경우	5점
‘심미적 목적’은 밝혔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3점
국어의 정서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3. 독자는 댓글을 통해 문제 제기, 의견 표현, 작가 응원 등을 할 수 있으나, 독자 스스로 그림을 그려 넣지는 못하므로 만화가의 역할을 대체하기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웹툰은 인터넷을 매개로 배포하는 만화이다.

②, ⑤ 만화에 대한 의견 등은 댓글 등의 기능을 통해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④ <보기>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04. 시 낭송 동영상과 듣기 자료는 시가 지닌 정서를 이미지와 음악, 그리고 음성 등을 통해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즉각적인 소통을 위한 도구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③ 시를 멀티미디어를 통해 감상하는 것일 뿐, 서사적 장면이나 이야기가 개입되어 있지는 않다.

⑤ 시와 관련된 정보가 따로 제공되지는 않고 있다.

05. 완성된 작품은 종이나 천에 전사한 것이므로 시간이 흘러도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② <보기>의 정보를 통해 반 고흐의 작품을 터키의 전통적 예술 기법인 에브루 기법으로 재해석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③ (다)의 그림과 <보기>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다)에 연속으로 제시된 그림과 <보기>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다.

06. <보기>는 눈이 떠지지 않는 아침 일곱 시에 기상을 해서 수업 시간에 졸음을 참지 못하는 고단한 학생들의 일상을 소재로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아침에 힘겹게 일어나 학교에서 졸다 선생님께 혼나는 내용이므로,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② 수업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지는 않다. ④ 수업 시간에 존 것이 일탈행위는 아니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이상적인 학교 환경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07. 아름은 병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지만 끝내 건강이 나빠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아름이가 병을 이겨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④, ⑤ 아름이의 가족이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나타나 있다.

② 아름이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이었다.

08. 아름이가 '살고 싶어지는 때'는 아름이가 일상에서 소소하게 경험한 것들이므로 아름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황들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아름이가 살고 싶어지는 때를 영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아름이가 살고 싶어지는 때는 소소한 일상의 모습에서 찾아지는 것이므로, 관객이 그것에 공감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경험을 담는 것이 좋다.

③ 아름이 살고 싶어지는 때를 소개하는 것이므로, 아름이의 내레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영상 매체의 특성에 따라 시청각적 효과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면 좋다.

09. '두근두근 내 인생'은 아름이가 그토록 누리고 싶어 하는 소소한 일상을 두근거림을 느낄 만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시 답 아무리 작고 짧은 순간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인생의 한 순간 한 순간은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것이다.

평가 기준	배점
예시 답과 흡사하게 제목의 의미를 서술한 경우	5점
제목의 의미는 서술했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3점
국어의 정서법에 어긋난 경우	-1점

중단원 실전 문제 XX XX pp. 139~143

01 ④ **02** ② **03** ③ **04** ㉠ 문자 언어, ㉡ 동영상 **05** ② **06** ① **07** ⑤ **08** ④ **09** ① **10** ⑤ **11** (1) 해설 참조 (2) 해설 참조 **12** (1) 해설 참조 (2) 해설 참조 **13** (1) 해설 참조 (2) 해설 참조 **14** (1) 해설 참조 (2) 해설 참조 **15** 해설 참조

01. (가)는 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중심으로 자신과 유사한 감성을 지닌 사람들과 친밀한 교감을 나누려 하고 있고, (나)는 '고양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친교를 맺으려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접근의 가능성이 가장 좋은 것은 (가)이다.

② 신문인 (다)가 문자 언어를 가장 중요한 매체 언어로 쓰고 있다.

③ (다)는 (가), (나) 매체가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면만 소개하고 있다.

⑤ (나)는 친교가 주된 목적이고, (다)는 정보 전달이 주된 목적이다.

02.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자 시정 요구이므로, 이를 사이버 불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⑤ 사이버 불링은 온라인 상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이나 특정인의 개인 정보를 유포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03. ㉠은 해당 게시물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알 수 있게 하고, ㉡은 해당 게시물을 조회한 건수나 그 게시물에 대한 의견이 몇 개 달려 있는지를 보여 주는 기능을 한다. 이를 볼 때, ㉠과 ㉡을 보면 해당 게시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문자 언어만 사용하여 의사를 전달한다.

② 게시자의 관심을 드러내는 것은 해시 태그이다.

④ ㉠에만 해당한다.

⑤ 이모티콘에 대한 설명이다.

05. (가)는 인쇄 매체인 신문으로, 이 형식으로 <보기>의 내용을 생산한다고 했으므로, 인터넷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는 사용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④ 학사 일정과 진학 관련 정보는 학급 구성원들에

게 유용한 자료이므로 이를 학급 신문에 실는 것은 적절하다.
 ③ 다른 자료에 실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⑤ 학급 구성원들의 관심사는 곧 기사의 중요도이므로, 그에 따라 기사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

06. (가)는 신문에 실린 시사 평론이고 (나)는 공익 광고로, 두 자료 모두 생산자의 주관적 의사나 주장을 바탕으로 수용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④, ⑤ (가)와 (나)는 모두 설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보 전달이나 심미, 친교 등의 성격을 다소 내포하고 있더라도 이를 목적으로 하는 매체 자료는 아니다.

07. (나)는 기부를 하는 대상과 기부를 받는 대상이 모두 등장하고, <보기> 역시 나눔을 주는 대상과 나눔을 받는 대상이 모두 등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나)는 나눔을 위한 모금, <보기>는 재능 나눔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광고이다.
 ③, ④ (나)는 영상 광고로 음성과 영상 등 시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 <보기>는 인쇄 광고로 문자 언어와 이미지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08. (가)와 (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적 매체 자료로, 심미적 매체 자료를 감상할 때는 작품이 지닌 심미성에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이를 공유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 심미적 매체 자료를 감상하는 데 있어, 자료 내용의 사실 여부나 공익적 기여, 실제적 효용성, 친교적 기능 등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가)는 완성된 작품 외에도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을 촬영하여,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보기>의 샌드 아트 역시 모래에 그림을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한 편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을 만들고 있다.

10. 아름다움이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에 가치를 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그것을 지키려했다는 것은 영화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서술형 문제

11. (1) 예시 답 블로그나 페이스북, 이메일, 손편지 등
 (2) 예시 답 친교는 상대방과의 친밀함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친교적 매체 자료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평가 기준	배점
친교 매체의 예를 들고 유의점을 모두 서술한 경우	5점
(1)과 (2) 중 하나만 쓴 경우	3점
국어의 정서법에 어긋난 경우 등	-1점

12. (1) 예시 답 동물 학대 방지, 혹은 학대나 방치로 구조된 동물 입양하기 등
 (2) 예시 답 상반된 사진을 대조함으로써 수용자로 하여금 바람직하게 행동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평가 기준	배점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핵심적인 표현 전략인 대조의 기법을 언급하여 서술한 경우	5점
(1)과 (2) 중 하나만 쓴 경우	3점
국어의 정서법에 어긋난 경우 등	-1점

13. (1) 예시 답 가짜 뉴스(fake news)
 (2) 예시 답 뉴스나 기사에 담긴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 기준	배점
'가짜 뉴스'임을 파악하고, 현혹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을 모두 밝힌 경우	5점
(1)과 (2)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3점
국어의 정서법에 어긋난 경우 등	-1점

14. (1) 예시 답 <보기>의 매체 자료는 정서적 고양이나 공감을 일으키기 위한 심미적 목적으로 창작되었다.
 (2) 예시 답 심미적 매체 자료들이 향유되는 이유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내재한 심미적 욕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배점
매체 자료의 창작 목적인 심미적 목적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3점
심미적 욕구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향유되는 이유를 서술한 경우	2점
국어의 정서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5. 예시 답 <보기>에서는 문자, 음성, 음악, 이미지 등을 조합하여, 문자로만 이루어진 시의 정서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평가 기준	배점
<보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체 언어를 모두 언급하여 서술한 경우	2점
<보기>에서 사용한 매체 언어 중 일부만을 언급하여 서술한 경우	3점
국어의 정서법에 어긋난 경우	-1점

3. 생활 속의 매체

(1) 매체와 사회·문화

※ 소단원 적중 문제 ※

p. 146

01 ④ 02 ③ 03 ③

01. 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같은 거실에 있어도 부모 세대는 텔레비전을 켜고, 자녀들은 스마트폰을 본다.

르: 이전에는 시청자들이 방송을 수동적으로 시청했지만, 요즘에는 실시간 투표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즉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02. 시청자들은 선발 과정에서 팬들이 실시간 투표에 참여하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최종 구성원으로 선발되도록 지원한다.

03. 1인 방송은 비교적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사적인 모습과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보여 준다.

(2) 매체 생활의 성찰

※ 소단원 적중 문제 ※

p.148

01 ⑤ 02 ② 03 ④

01. 진행자가 간접 광고에 대한 문화 평론가의 견해를 묻고 있다. 진행자가 “과연 이 간접 광고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문화 평론가와 전화로 연결하여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정확하게 간접 광고란 무엇인가요?”라고 묻고 있다.

02. 문화 평론가는 간접 광고는 광고 효과는 좋지만 시장을 어지럽히는 형태가 생겨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런 이유에서 관련 법안을 정비해서 지정된 범위 안에서 간접 광고를 허용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다.

03. ‘간접 광고’란 상품을 따로 떨어진 광고 시간대에 홍보하는 형태가 아니라, 콘텐츠 안에서 상품들을 소비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 줌으로써 광고가 되게끔 하는 형태의 광고를 말한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의 상업적 속성을 알 수 있다.

중단원 실전 문제

XX

XX

pp. 149~151

01 ③ 02 ① 03 ② 04 ② 05 ④ 06 ④ 07 ⑤ 08 ③ 09 해설 참조

01. 대중문화가 수용자들과 직접적으로 실시간 소통한다는 것은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02. 글쓴이는 마지막 문장에서, 대중문화 가운데에서도 문화적 성취가 높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03. <보기>에서는 댓글을 통해 ‘정말 한심한 사람이군.’, ‘까불지마.’, ‘생각이 없는 사람이군요.’ 등의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예절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매체 언어생활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주제의 글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04. 대학원생 한○○ 씨(25)는 자신의 행동이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 사례를 참고할 때, 바람직한 매체 생활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05.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복제를 못하도록 제도적,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관련 업체에 대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6. 외국인들은 누리 소통망(SNS),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46.6%), 방송(33.4%), 신문·잡지(9.5%) 등의 매체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누리 소통망(SNS)이 특정 상품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지는 (가)와 (나)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④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② (가)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한국관광 100선을 홍보하기 위하여 누리 소통망(SNS) 홍보단을 모집한다.

③ (가)에서 알 수 있듯이, 관광지 선정을 위한 정량평가에서 누리 소통망(SNS) 등을 이용한다.

08. ㉠은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들을 기반으로 연계망을 형성하고, ㉡은 자신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연계망을 형성한다.

서술형 문제

09. (가)에서 가해 학생들은 범죄 의식 없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욕설이나 괴롭힘을 하나의 놀이나 오락쯤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에서 이탈리아의 한 모델은 ‘악성 댓글’에 대해 예의를 갖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예시 답**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욕설이나 집단 괴롭힘은 심각한 폭력임을 인지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평가 기준	배점
‘온라인상의 욕설’, ‘따돌림’이 폭력임을 파악하고 온라인상에서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경우	5점
온라인상에서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으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3점
국어의 정서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 국어의 역사

(1) 고대 국어

※ 소단원 적중 문제 ※

pp. 156~157

01 ④ 02 ④ 03 ① 04 해설 참조 05 ④ 06 ⑤

01. (나)에서는 고대 국어 시기에 된소리 계열 자음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그 근거는 우리나라 한자음에 된소리 계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중국 한자음에 된소리가 있음에도 우리나라 한자음에 된소리가 드문 것으로 보아 고대 국어 시기에 된소리 계열 자음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추정일 뿐 고대 국어 시기에 된소리가 없었다고 확인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우리말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02. ⑥의 내용에 따르면 본래 우리말로 '吉同郡(길동군)'이라 했던 지명을 '永同郡(영동군)'으로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永'을 석독하면 '길'이 되어 '吉'의 한자음과 같아지게 된다. 즉, '永'을 석독하면 '吉'을 음독했을 때와 동일하게 읽게 되는 것이다.

03. ㉠ '구결'은 한문 문장의 문맥을 파악하기 쉽도록 우리말 조사나 어미를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 ㉡ '이두'는 단어를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바꾸고 조사나 어미도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또 구결은 한문에 조사나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만 더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형식 형태소들을 빼면 그대로 한문이 되는 데 비해 이두는 어순까지 우리말에 맞도록 재배열하였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를 빼도 온전한 한문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①의 언급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 구결, 즉 한자로 표기한 우리말 조사나 어미를 빼면 그대로 한문이 된다.

③ 구결이나 이두로는 우리말 전체를 표기할 수 없었다.

④ ㉠, ㉡ 모두 형식 형태소는 물론 단어 전체를 한자로 표기하였다.

⑤ ㉠은 한문 어순에 따라, ㉡은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표기하였다.

04. 향찰은 우리말의 많은 요소들을 한자를 빌려 표기하다 보니 그만큼 읽고 쓸 때 혼동이 일어나 표기 방식으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소멸하게 된다.

예시 답 향찰은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 단어 등 여러 가지를 한자 차용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다 보니 읽고 쓰기의 방식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평가 기준	배점
글에 제시된 표현을 사용하여 예시 답에 가깝게 설명한 경우	5점
예시 답에 가까우나 설명이 부족한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있는 경우	-1점

05. 서기체 표기는 이두의 초기 형태로, 다만 한문의 어순을 우리말식으로 바꾼 표기법이다. ④는 구결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06. 고대 국어 시기에는 한반도의 언어가 통일되는 큰 사건이 있었다.

오답 풀이 ① 후기 중세 국어 시기에는 한글의 창제로 우리말을 온전히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전기 중세 국어 시기에는 고려의 건국으로 언어의 중심이 국토의 중심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③ 근대 국어 시기에는 국어의 모습이 크게 변모하며 서양과의 직간접적 접촉을 통해 서구의 문물과 함께 서구어들이 유입되었다.

④ 된소리가 발달하면서 음운에서 '예사소리-거센소리-된소리'의 대립 체계가 완성된 것은 중세 국어의 특징이다.

(2) 중세 국어

※ 소단원 적중 문제 ※

pp. 160~161

01 ⑤ 02 ④ 03 ③ 04 해설 참조 05 ② 06 ②
07 해설 참조

01. 'ங, ㄷ'은 유성 마찰음으로 '예사소리-거센소리-된소리'의 대립 체계와 관련이 없다. 현대 국어와 같은 대립 체계가 성립한 것은 '된소리의 발달'로 인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고대 국어에서 사용된 한자음을 통해 찾아볼 수 없었던 된소리 계열의 음운들이 중세 국어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② 'ㄴ'이 소멸되기 이전에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으나, 둘째 음절 이하의 'ㄴ'은 주로 'ㄹ'로, 첫째 음절의 'ㄴ'은 주로 'ㄷ'로 변하면서 모음 조화가 깨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중세 국어에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자음 'ங, ㄷ'이 사용되었다.

02. 성조는 의미 구별의 기능을 하던 소리의 높낮이를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낮은 소리인 평성은 점이 없으며, 높은 소리

인 거성은 한 점, 처음에는 낮다가 나중에는 높아지는 상성은 두 점을 찍었다.

⑤ 상성은 현대 국어에 긴 소리로 그 흔적이 남아 있으며, 거성과 평성은 짧은 소리로 변화였다.

03. (라)에서 '조사나 어미에는 모음 조화에 의한 교체 형태를 갖추고 있어' 인칭 대명사 '나'와 '너'는 모음 조화에 따라 '나를'과 '너를'로 표기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이를'의 경우 '를'이라는 조사가 사용된 점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앞의 음절 '이'가 양성 모음으로 취급되었거나 아니면 '이를'에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은 이해이다.

오답 풀이 ① (나)의 '된소리'의 발달은 현대 국어에서 '예사소리-거센소리-된소리'의 대립 체계가 성립되는 변화'를 주었다는 내용과, '나·랏·말쌈·미'에서 된소리 'ㅆ'이 사용된 점으로 보아 적절한 이해이다.

② (마)의 '낮은 소리인 평성은 점이 없으며, 높은 소리인 거성은 한 점, 처음에는 낮다가 나중에는 높아지는 상성은 두 점을 찍었다.'라는 내용과 '평성과 거성은 짧은 소리로, 상성은 긴 소리로 바뀌어 현대 국어의 장단 체계를 가지게 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전·촉·로'는 '평성-거성-거성'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어엿·비'는 '상성-평성-거성'의 성조를 가지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⑤ '수·비'에는 유성 마찰음 'ㅂ'이 사용되었다.

04. 자음의 변화가 모음의 변화보다 선행한다는 조건과 (다)의 '모음 'ㅏ'는 후기 중세 국어 때부터 변화되었는데 16세기에는 둘째 음절 이하의 'ㅏ'가 주로 'ㅓ'로 변하고, 이후 근대 국어 시기에 이르러 첫째 음절의 'ㅏ'가 주로 'ㅓ'로 변하면서, 모음 'ㅏ'는 완전히 소멸'하였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ㅓ > ㅓ음'의 단계를 거쳤을 것이다.

예시 답 ㅓ음, ㅓ음. 자음의 변화가 모음의 변화보다 선행하며, 16세기 둘째 음절 이하의 'ㅏ'가 주로 'ㅓ'로 변하고, 근대 국어 시기에 이르러 첫째 음절의 'ㅏ'가 'ㅓ'로 변하였으므로 'ㅓ > ㅓ음 > ㅓ음 > ㅓ음'의 과정으로 변화하게 된다.

평가 기준	배점
예시 답에 가깝게 설명한 경우	5점
'ㅓ > ㅓ음'의 어형 제시나 과정에 대한 설명 중 하나가 잘못된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있는 경우	-1점

05. ①은 의미의 축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원래 여자를 의미하다 이제는 여자를 낮잡아 이를 때만 사용하게 된 '겨집(계집)'이 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즈믄'은 '천(千)'의 의미로, 경쟁에서 밀려 소멸된 우리말이다.

③ '수라'는 '왕의 식사'를 의미하는 몽골어로, 현대 국어까지 남게 되었다.

④ 'ㄱ'은 '강(江)'을 의미하던 우리말로 한자어와의 경쟁에서 밀려 소멸되었다.

⑤ '어리다'는 '어리석다(愚)'를 의미하던 말이었으나 의미의 이동을 거쳐 '어리다(幼)'를 의미하게 되었다.

06. '부테'는 '부터 + ㅣ'로 분석할 수 있다. '불휘 기픈 남곤'의 '불휘'는 '불휘가(뿌리가)'라는 의미로 앞말이 'ㅣ' 모음으로 끝날 때 주격 조사가 형태를 나타내지 않고 사용됨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주격 조사 'ㅣ'는 앞말이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만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식미'는 '쉽 + 이'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는가, 'ㅣ' 모음 혹은 'ㅣ'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가의 여부에 따라 주격 조사 '이'의 사용 양상이 다르다. 그러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식미'는 '쉽 + 이'로, '부테'는 '부터 + ㅣ'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불휘'는 '불휘(뿌리) + ㅅ'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07. ㉠은 선어말 어미를 통해 행위의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부터'의 'ㅅ'은 앞말을 강조하는 보조사이며 ㉡의 '보다'가 타동사이므로 '부터'는 문장의 목적어, 즉 객체임을 알 수 있다.

예시 답 '보스'면에서 선어말 어미 'ㅅ'을 통해 객체 높임을 실현하며 '부터'를 높였다.

평가 기준	배점
예시 답에 가깝게 설명한 경우	5점
높임의 종류, 대상, 실현 방법 중 누락된 것이 있거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에 각각에 대하여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있는 경우	-1점

(3) 근대 국어

× 소단원 적중 문제 ×	pp. 163-165
01 ③ 02 ㅓ을 03 ④ 04 ② 05 ④ 06 ④ 07 ⑤ 08 (1) ㅓ (2) ㅓ, ㅓ	

01. 양성 모음이었던 'ㅓ'가 소멸하며 양성 모음인 'ㅓ'는 물론 음성 모음인 'ㅓ'로 대체되면서 그 동안 국어에서 잘 지켜져 왔던 모음 조화가 흔들리게 되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첫 문장에 나와 있다.

② (가)의 두 번째 문단에 언급되고 있다.

④ (나)의 세 번째 문단에 언급되었다.

⑤ (가)의 첫 번째 문단에서 근대 국어 시기에 안으로는 근대 의식이 짝트고 밖으로는 중국을 통해 서양 문물과 과학 지식 및 기독교 문화가 유입되었다고 하였다.

02. 16세기 말 ‘ㆍ’음이 둘째 음절 이하에서 ‘ㅡ’로 변하였다고 했다. 따라서 빈칸에는 ‘ㅁ을’이 와야 적절하다. 이후 18세기에 와서는 첫째 음절에서 ‘ㆍ’가 ‘ㅏ’로 변하게 된다.

03. ①에서 ‘니ㄹ미’, ‘올타’는 이어적기, ‘ㅁ음애’는 끊어적기에 해당하나 거듭적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ㅁ스매’가 ‘ㅁ음애’로 바뀌면서 ‘ㅏ’가 소멸하였다.
 ② ‘ㅁ스매’에는 이어적기가, ‘ㅁ음애’에는 끊어적기가 적용된 것이다.
 ③ ④에는 방점이 나타나고 있으나 ①에는 방점이 사라졌다.
 ⑤ ④의 ‘ㅁ스ㅅ’이 ③의 ‘ㅁ음’이 되기까지 첫음절의 ‘ㆍ’가 ‘ㅏ’, 둘째 음절의 ‘ㆍ’가 ‘ㅡ’가 된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04. 중세 국어 시기에 모음 조화가 더 엄격히 지켜진 점,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가 일어난 점을 참고할 때, ‘조호료’의 중세 국어 시기 형태는 모음 조화를 적용시키고, 구개음화를 제거함으로써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추론되는 형태는 ‘도호(하)료’이다.

오답 풀이 ① ‘셔울’의 ‘ㅇ’은 음가를 지니지 않는다. ‘셔불’이 ‘셔울’로 바뀐 것은 ‘ㅍ>ㅌ’의 과정에 의한 것이다. 즉 ‘ㅍ’은 ‘ㅌ’로 바뀐 것이다.
 ③ ‘ㅁ음애’는 ‘거듭적기’가 아니라 ‘끊어적기’가 적용된 것이다.
 ④ ‘옛’은 ‘-앗- / -엇-’이 ‘ㅎ’와 함께 쓰일 때의 형태이다.
 ⑤ ‘니ㄹ미’는 이어적기, ‘ㅁ음애’는 끊어적기를 한 것이다. 근대 국어 시기에는 표기법이 단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 등이 혼용되며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였다.

05. (나)에서 ‘-습-’이 상대 높임법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변하였다고 언급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어휘가 중국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본이나 서양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서도 유입되었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우리말의 어휘 체계는 근대 국어 시기에 ‘고유어 - 한자어 - 외래어’의 삼중 체계를 이뤄 현재까지 그러한 경향이 지속됨을 알 수 있다.
 ③ (나)를 보면 주격 조사 ‘가’가 근대 국어 시기에 등장한 것은 사실이나 등장하자마자 전면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⑤ (다)에서 표기법은 기준이 될 만한 규범이 따로 없어서 근대 국어 시기에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06. ‘알아(ㅍ)보다’라는 표현은 ‘알어 보게’처럼 띄어쓰기를 하며 끊어적기를 했다가, ‘알어보기’, ‘알아보니’에서는 띄어쓰기를 하

지 않고, ‘아러보지’에서는 이어적기를 하는 등 띄어쓰기와 표기법의 혼란을 보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의 차이는 주로 띄어쓰기나 표기법의 차이, 어미 활용의 차이일 뿐, 모두 ‘알아(ㅍ)보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표기한 것이다.

② ㉠만 띄어쓰기를 하고 나머지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③ ㉠, ㉡, ㉢은 끊어적기, ㉣만 이어적기를 하고 있다.
 ⑤ ㉠~㉢의 차이는 음운의 소멸과 무관하다.

07. 『독립신문』 창간사에서 밝히고 있듯이 『독립신문』은 ‘구절 단위’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 어절이란 ‘체언에 조사가 붙거나 용언에 어미가 붙은 말을 가리키는 문법 단위’이다.

08. (1) ‘ㅍ’이 소멸하면서 ‘ㅌ / ㅍ’가 그 자리를 대체할 때도 모음 조화가 적용되었다.
 (2) 구개음화를 설명하고 있다.

중단원 실전 문제
XX
XX
pp. 166~171

01 ③	02 ㉠ 석독 ㉡ 음독	03 ④	04 ⑤	05 ⑤
06 ㉠ 자넌(반), ㉡ 아라	07 ④	08 ㉠ 올 ㉡ 을 ㉢ 툼 ㉣ 툼		
㉤ 를	09 ②	10 ②	11 ⑤	12 ㉠ 떠러디다 ㉡ 헉시
㉢ 닳다 ㉣ 저그녀	13 ④	14 ①	15 해설 참조	16 해설
참조	17 해설 참조	18 해설 참조		

01. 신라의 수도가 지금의 경주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동남 방언을 기반으로 현대 우리말의 기초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현대에 들어 서울말이 표준어가 된 것과 연관을 지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고대 국어 시기는 그 자료가 일부만 전하므로 우리말의 모습을 온전하게 고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향찰은 가장 발달한 형태의 한자 차용 표기법으로 한자 차용에 의한 표기 요소가 많다 보니 읽고 쓰기의 방식이 복잡해졌다고 했다. 이를 통해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동일한 향가 작품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함을 알 수 있다.

② (다)의 첫 문장에서 ‘고대 국어 시기에는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우리 글자가 없던 때여서 일부 전하는 자료도 우리말의 모습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보여 주지는 못한다.’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가)의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우리말이 다른 언어들과 분리된 이후’라는 내용은 언어가 같은 조어에서 기원한 다른 언어들과 서로 친족 관계를 형성하며 발달함을 알 수 있게 한다.

⑤ (가)에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통해 언어적 통일을 이룬’ 점을 볼 때, 삼국 통일 이전에 살았던 우리 민족은 언어적으로 통일되

어 있지 않은 만큼 서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02. ‘主’는 ‘임’이라는 의미의 소리로 읽히므로 ‘석독’하여 ‘님’이라고 읽으며, ‘隱’은 주격 조사 ‘은’을 표기하였으므로 ‘음독’을 한다.

03. <보기>는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우리 글자가 없던 시기에 한자로 기록한 방식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당시 사람들이 ‘거칠부’라는 대상을 ‘荒宗’으로도 표기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은 ‘荒宗’이라고 쓰고 ‘거칠부’라고 읽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居柒夫’와 ‘荒宗’은 동일한 대상(인물)에 대한 두 가지 표기이기 때문에 표기가 달라도 똑같이 읽어야 한다.

② 우리말이 한자로 전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③ ‘荒’의 뜻을 이용하여 ‘居柒’의 소리를 읽을 때와 같은 소리로 읽는 것이다.

⑤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 한자의 소리와 뜻을 모두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04. 우리말에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조사와 어미들이 발달해 있어 이를 통해 문장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문은 그렇지 않아서 한자의 뜻을 알아도 전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문의 원래 문장에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조사나 어미를 달았는데 이때의 조사나 어미는 유사한 음으로 소리나는 한자로 표기하였으니 한자의 소리를 이용하여 표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③ 이두는 어순을 우리말에 맞게 배열한 반면, 구절은 어순을 바꾸지 않고 형식 형태소만 더한 형식이다. 그리고 ‘구결 글자를 빼면 그대로 한문이 되’는 점을 볼 때 중국인이 이두로 표기된 글과 구결로 표기된 글을 접한다면, 구결로 표기된 글을 훨씬 더 쉽게 이해했을 것이다.

④ (다)의 4문단에서 ‘구결은 한문 문장의 문맥을 파악하기 쉽도록 우리말 조사나 어미를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이라는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5. (나)의 ‘된소리의 발달은 현대 국어에서 ‘예사소리-거센소리-된소리’의 대립 체계가 성립되는 변화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고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같은 음운의 대립 체계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성조를 통해 단어의 뜻을 구별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고대 국어 시기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된소리가 중세 국어 시기에 발달한 것으로 보아 고대 국어에 비해 다양한 자음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다)에서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ㆍ’의 소멸 과정에서, 16세기에는 둘째 음절

이하의 ‘ㆍ’가 주로 ‘ㅡ’로 변화하면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려 쓰는 모음 조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가)로 보아 유성 마찰음 ‘ㅃ, ㅆ’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6. [A]는 모음 조화, <보기>는 이어적기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③ 현대 국어 ‘잡은’에 모음 조화와 이어적기를 적용시키면 중세 국어에서 ‘자븐’ 또는 ‘자반’의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① ‘알다’가 활용한 현대 국어 ‘알아’에서 모음 조화가 지켜진 점은 중세 국어와 동일할 것이다. 단, 이어적기를 적용하면 중세 국어에서는 ‘아라’의 형태가 쓰였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07. ‘ㅃ’의 경우, ‘글ㅃㅅ>글ㅅㅅ’, ‘도ㅃㅅ>도ㅅㅅ’, ‘주ㅃㅅ>주ㅅㅅ’에서 알 수 있듯이 소멸되면서 ‘-오/우-’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ㅆ’의 경우 소멸되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아ㅅㅅ’, ‘ㅆㅅㅅ’, ‘글ㅃㅅ’과 같이 체언에, ‘나ㅅㅅ, 지ㅅㅅ, 니ㅅㅅ’, ‘도ㅃㅅ, 고ㅃㅅ, 주ㅃㅅ’와 같이 용언에 모두 사용되었다.

② ‘ㅆ’과 ‘ㅃ’은 각각 ‘ㅅ’, ‘ㅃ’과 유사한 음가를 지닌 올림소리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글자가 소멸되면서 그 음가 역시 소멸되었다.

③ 모든 모음은 소리 날 때 성대가 울리는 올림소리이다. <보기>를 통해 볼 때 ‘ㅆ’과 ‘ㅃ’이 모두 모음 또는 유성 자음 사이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ㅆ’이 사용된 용언은 ‘ㅅ’ 불규칙 활용을, ‘ㅃ’이 사용된 용언은 ‘ㅃ’ 불규칙 활용을 한 것이다.

08. 체언의 마지막 음절에 받침이 있으며, 양성 모음이 사용된 경우에는 조사 ‘을’을, 음성 모음이 사용된 경우에는 조사 ‘을’을 사용한다. 그리고 체언의 마지막 음절에 받침이 없으며 양성 모음이 사용된 경우에는 조사 ‘를’을, 음성 모음이 사용된 경우에는 ‘를’을 사용한다.

③ 받침과 양성 모음 ‘ㅏ’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을’을 쓴다.

④ 받침과 음성 모음 ‘ㅓ’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을’을 쓴다.

⑤ 받침이 없고 양성 모음 ‘ㅗ’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를’을 사용한다.

⑥ 받침이 없고 양성 모음 ‘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를’을 쓴다.

⑦ 받침이 없고 음성 모음 ‘ㅜ’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를’을 쓴다.

09. (마)에서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 동사 어간에는 ‘-ㄴ-’가 연결되는 반면 ‘과거 시제는 현대 국어의 ‘-았-/었-’에 해당하는 선어말 어미가 아직 발달되지 않아서 아무런 형태소의 결합도 없이 표현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세 국어의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는 다른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삼국 시대에 한자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말의 어휘 체계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이원 체계를 기본으로 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휘 체계 안에서 차지하는 고유어의 비중은 작아지고 한자어의 비중은 높아지는 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라)의 ‘객체 높임법의 ‘-습-’은 현대에 와서 거의 흔적을 남

가지 않고 사라졌'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고려 광종 때 시행한 과거 시험에 한자가 포함되면서 한자어의 침투와 확산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마)의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 ~ 형용사 어간에는 특별한 형태소가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현대 국어에서도 형용사는 특별한 형태소의 연결 없이 기본형을 그대로 씀으로써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

10. (라)에서 '높임 표현은 선어말 어미에 의해 실현되었는데, '-(으)시-'에 의한 주체 높임법, '-습-'에 의한 객체 높임법, '-(으)이-'에 의한 상대 높임법의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런 점으로 볼 때 ㉠, ㉡는 주체 높임을, ㉢, ㉣는 객체 높임을, ㉤는 주체 높임, 상대 높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 ㉢는 높임의 대상을 직접 높이는 반면, ㉡, ㉣는 높임의 대상의 신체 일부나 행위를 높임으로써 대상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는 '-시-'를 통해 '부처'의 신체 일부인 '눈'을 높임으로써 '부처'를 높이는 효과를 주고 있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11. ㉠ '쉽'은 자음으로 끝난 체언이므로 주격 조사로 '이'가 쓰여야 한다. ㉡ '불휘'는 'ㅣ' 모음으로 끝난 체언이므로 'Ø'이 사용되어야 한다. ㉢ '부터'는 'ㅣ'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이므로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되어야 한다.

12. ㉠의 '떨어졌다'는 동사이며, 과거 시제로 쓰이고 있다. (마)의 '동사의 과거 시제는 현대 국어의 '-았-/었-'에 해당하는 선어말 어미가 아직 발달되지 않아서 아무런 형태소의 결합도 없이 표현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떠러디다'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은 현재형 동사이다. (마)의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 동사 어간에는 '-느-'가 연결'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할 때 '흐시느다'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은 형용사이며, 현재 시제로 쓰이고 있다. (마)의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 '형용사 어간에는 특별한 형태소가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내용과 모음 조화, 이어적기를 고려할 때 '저그녀'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13. (다)에서 '모음 아래에서는 '가', 자음 아래에서는 '이'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즉 '가'는 중세 시기의 'ㅣ'나 Ø을 대체한 것이며 '이'가 쓰이던 자리에는 그대로 '이'가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다)에서 '앞 시기에 객체 높임법에 사용되던 선어말 어미 '-습-'은 상대 높임법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의 변화를 보인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라)의 끝부분에서 '16세기부터 부분적으로 나타난 표기법 혼란이 근대 국어 시기에 와서 더욱 심해졌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표기법의 기준이 될 만한 규범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다)의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 '-았-/었-'이 이 시기에 확립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던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이전 시기까지 'ㄷ, ㅌ'이 'ㅣ' 앞에서 그대로 소리 나던 것이 이 시기에 와서 'ㅈ, ㅊ'으로 음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가 현대 국어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가 나타나며, 현대 국어로의 과도기적 양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14. <보기>의 A는 중세 국어, B는 근대 국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가)에 '중세 국어 시기를 거치면서 자음 'ㅃ, ㅆ'은 소멸되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으며, A의 'ㅃ술'이 B에서 'ㅆ술'로 변화한 것으로 보아 'ㅆ'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은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풀이 ㉡ (나)에서는 '서양의 새로운 지식이 중국을 통해 유입되는 과정에서 번역 한자어가 새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A와 B 모두 한자어('江村', '幽深', '親')와 국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B에 쓰인 번역 한자어를 찾아볼 수는 없다.

㉢ (가)에서 근대 국어 시기에는 'ㅃ, ㅆ'의 소멸로 모음 조화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였으나 <보기>의 A와 B 사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방점은 성조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그러므로 방점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성조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방점이 없어져서 성조가 사용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조가 사용되지 않으니 성조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 방점이 사라진 것이다.

㉤ '아나', '오느닌', '갓갑느닌' 등에서 A, B 모두에 이어적기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 (가)의 '모음 ㅏ, ㅑ는 16세기 말에 둘째 음절 이하에서 'ㅡ'로 변하였고 근대 국어 시기인 18세기에 와서 첫째 음절에서 대체로 'ㅏ'로 변하였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시 답 첫째 음절의 'ㅏ'가 소멸되면서 'ㅏ'로 바뀌었다.

평가 기준	배점
예시 답에 가깝게 설명한 경우	5점
'돌팡이>달팽이'에만 나타난 'ㅣ' 모음 역행 동화까지 언급한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있는 경우	-1점

서술형 문제

16. 예시 답 이두와 구결은 우리말 조사나 어미를 한자로 표기한 점은 공통적이거나 구결은 단어의 어순을 한문 그대로 한 데 비해, 이두는 단어를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바꾼 점이 서로 다르다.

평가 기준	배점
예시 답에 가깝게 설명한 경우	5점
공통점과 차이점 중 하나만 제시하였거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라는 조건을 어긴 경우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있는 경우	-1점

17. 예시 답 ㉠은 과거 시제, ㉡은 현재 시제, ㉢은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중세 국어에서는 동사의 기본형을 그대로 써서 과거 시제를 표현했으며, 현재 시제는 선어말 어미 ‘-ㄴ-’을 연결하여, 미래 시제는 선어말 어미 ‘-(으)리-’를 연결하여 표현했다.

평가 기준	배점
예시 답에 가깝게 설명한 경우	5점
시제나 시제 표현의 원칙 중 틀리게 제시한 경우 각각에 대하여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있는 경우	-1점

18. ‘국문, 상하귀천, 귀절’ 등의 근대 국어 어휘 표현을 적절한 현대어 어휘로 바꾸어 쓰도록 한다.

예시 답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하기 위해서 한글로 표기한다.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구절 단위로 띄어쓰기를 한다.

평가 기준	배점
예시 답에 가깝게 설명한 경우	5점
두 가지 표기 원칙 중 하나만 제시하였을 때	3점
조건을 모두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있는 경우	-1점

2 국어 생활과 문화

(1) 국어 자료의 다양성과 국어 문화

※ 소단원 적중 문제 ※

pp. 175~176

01 ② **02** 해설 참조 **03** ⑤ **04** ② **05** 비공식적인, 공적인, 친교 **06** ④

01. (가)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국어 자료이고, (나)는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국어 자료이다. 따라서 두 국어 자료는 모두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쓰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정보 전달을, (나)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 자료이다.

③ (가)와 (나)의 내용이 뒤바뀌었다.

④ (가)와 (나)의 목적이 뒤바뀌었다. 지시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⑤ 독자의 신뢰가 중요하지만 글쓴이의 주관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은 (나) 국어 자료에만 해당한다.

02. 예시 답 갈등을 새로운 개념의 합의를 통해서 관리하고 해결해야 한다.

평가 기준	배점
‘갈등’과 ‘새로운 개념의 합의’ 등의 단어를 넣어 예시 답과 유사하게 서술한 경우	5점
‘갈등’과 ‘새로운 개념의 합의’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비슷한 의미로 서술한 경우	3점
제대로 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1점

03. (다)는 수필로 친교나 정서 표현의 목적을 가진 국어 자료이다. 간결하고 명료한 언어로 내용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국어 자료는 정보를 전달하는 종류의 글이다.

04. (나)에 제시된 [예제]에 나오는 방언은 사회 방언의 일종으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세대 차이에 의한 것으로 매체의 발달에 따라 세대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서 일어나는 것이다.

06. 아버지와 철수 사이에는 세대 간의 언어 차이가 나타난다. 이를 극복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자신의 언어 사용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아버지께서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철수가 쓰고 있는 말은 젊은 세대가 주로 쓰는 줄임말이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2) 국어 규범과 국어 생활의 성찰

※ 소단원 적중 문제 ※

pp. 180~184

01 ④ **02** ① **03** ⑤ **04** ④ **05** ㉠, ㉡, ㉢ **06** ⑤
07 ④ **08** ④ **09** ① **10** ③ **11** ㉠ 비전 ㉡ 피쳐 **12** ④
13 ①

01. ㉠은 모음 조화를 지킨 경우에 해당하지만, ㉡은 모음 조화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언중들이 ‘삼촌(三寸)’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촌수에 의한 호칭으로 어원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삼촌’을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제8항에서 ‘쌍둥이’를 비표준어로 삼고, ‘쌍둥이’를 표준어로 삼은 것은 모음 조화 현상이 깨진 상태로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막둥이’를 비표준어로 삼고, ‘막둥이’를 표준어로 삼은 것은 이와 같은 이유라 볼 수 있다.

③ ‘깡충깡충’은 모음 조화 현상이 깨진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⑤ ㉑와 ㉒는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모음 조화가 깨진 경우를 표준어로 규정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모음 조화가 지켜지던 시기에는 ‘막동이’, ‘깡충깡충’으로 표기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02. <보기>의 규정에 따라 ‘쪽뱀’이 아닌 ‘쌍뿔뱀’만 표준어로 삼고 있으므로 ㉑은 적절하지 않다.

03.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표준어 규정 제3장 22항의 규정에 따라 알타리무 대신 총각무가 표준어로 인정되므로 ㉑은 ㉒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04. 제14항을 참고할 때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할 때 뒤엿것만을 뒤 음절 소리로 옮겨 발음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고 하였으므로 ‘값이’는 [갑씨]로 발음해야 한다.

05. ㉑, ㉒, ㉓를 길게 발음해야 한다.

- ㉑ 눈[눈]: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
- ㉒ 눈[눈]: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
- ㉓ 발[발]: 가늘고 긴 대를 줄로 엮거나, 줄 따위를 여러 개 나란히 늘어뜨려 만든 물건.
- ㉔ 발[발]: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 맨 끝부분.
- ㉕ 밤[밤]: 해가 진 뒤부터 날이 새기 전까지의 동안.
- ㉖ 밤[밤]: 밤나무의 열매.

06. 체언 ‘구름’은 뒤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기 때문에 ㉑의 규정에 따라 표기하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구름’이라는 의미를 규정하기 위하여 ㉑의 규정을 추가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㉑은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女子’를 ‘녀자’로 적지 않고 ‘여자’로 적는 것은 두음 법칙에 의한 실제 발음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㉑의 규정을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부딪치다’와 ‘부딪히다’를 발음하면 [부딪치다]와 [부딪히다]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㉑의 규정에 따라 표기하면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의미를 밝혀 적기 위하여 ㉑의 규정을 추가한 것이므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굳이’, ‘같이’는 [구지], [가치]와 같이 발음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음운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㉑의 규정을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늠다랗다’는 [늠파라타]로 발음되지만 ‘늠-’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기 형태를 고정시킨 경우이므로 ㉑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07. ‘나는 시장에서 사과 배, 굴 등을 샀다.’의 ‘등’은 앞말을 열

거할 적에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42항의 규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제45항의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㉑은 잘못 이해한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조사 ‘이’를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은 제41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② ‘짓’은 혼자 쓰일 수 없는 의존 명사로 관형어 ‘아는’의 수식을 받는다. 그러므로 제42항의 규정에 따라 띄어 쓴 것이다.

③ ‘한국 대 일본’에서 ‘대’는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45항의 규정에 따라 띄어 쓴 것이다.

⑤ ‘그루’는 식물 특히 나무를 세는 단위 명사이므로 제43항의 규정에 따라 띄어 쓴 것이다.

08. ‘마치다’는 ‘끝내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표기이다. ‘(문제에) 맞는 답을 내놓다’의 의미는 ‘맞히다’이다. 그러므로 ‘맞혔다’가 적절한 표기이다.

오답 풀이 ① 붙이다 : 붙게 하다.

② 저리다: 피가 잘 돌지 못해서 힘이 없고 감각이 둔하다.

③ 반드시: 꼭, 틀림없이

⑤ 그럼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써)

09. ‘테헤란’에서의 ‘ㄷ’은 현행 24자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ㄷ’과 ‘ㄴ’을 합쳐서 만든 글자이므로 쓰일 수 있는 표기이다. 그러므로 ㉑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② ‘cafe’의 경우 [k], [tʃ]와 같은 파열음을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까페’가 아닌 ‘카페’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커피(coffee)’의 실제 발음은 [kɔ:fɪ]이므로 ‘코피’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는 규범에 따라 ‘커피’로 적는다. 그러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f’는 ‘ㅍ’로 적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egg fry’의 경우 ‘에그 후라이’라고 적지 않고 ‘에그 프라이’라고 적어야 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internet’의 ‘t’은 받침이어서 ‘ㄷ’으로 소리가 난다. 그러나 ‘ㄷ’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ㅅ’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ㅅ’으로 적어야 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10. 제4항에 따르면 파열음(ㄱ, ㄷ, ㅂ 계열)은 된소리로 적지 않으므로 모차르트로 적어야 바른 표기가 된다.

11. 파찰음 표기에서는 ‘쪼, 자, 주, 저, 초, 차, 추, 처’를 쓰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쪼지, 비전, 피쳐, 주스’가 아니라 ‘조지, 비전, 피쳐, 주스’로 적어야 한다.

12.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 나, 너, 노, 뉴]로 발음한다.”라는 [표준 발음법] 제7장에 따라 학여울은 [항녀울]로 발음하게 된다. 따라서 표기를 할 때 음운 변화의 결과에 따라 학여울은 ‘Hangnyeoul’

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월곶’은 [월곤]으로 발음된다. 자음 ‘ㄷ’의 경우 모음 앞에서는 ‘d’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t’로 표기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표기이다.

② ‘종고’는 ‘ㄱ’이 ‘ㅎ’과 결합하여 거센소리로 소리나는 경우로, [조코]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표기이다.

③ ‘중앙’의 경우 ‘Jungang’이라고 쓰면 ‘중앙(Jung-ang)’이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준강(Jun-gang)’이라고 읽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붙임표를 넣어 발음상 혼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⑤ 제4항에서 인명의 경우 음운 변화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홍빈나]로 발음되지만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Hong Bitna’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13. ‘김밥’은 [김:밥]으로 발음한다. (라)의 [붙임 1]에 따라 ‘gimbap’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떡볶이’는 [떡뽕끼]로 발음하지만 (라)의 제1항에 따라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붙임 1]에 따라 ‘떡’의 받침 ‘ㄱ’은 ‘k’로 표기하므로 ‘tteokbokki’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면’은 (라)의 [붙임 2]에 따라 ‘ramyeon’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잔치국수’는 ‘잔치’와 ‘국수’의 합성어로, ‘국수’는 [국쑤]로 발음되지만 (라)의 제1항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janchi’와 ‘guksu’로 표기해야 한다. 다만 ‘janchiguksu’로 표기할 경우 ‘잔치국수’로 읽을 수도 있지만, ‘잔치국수’로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발음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붙임표(-)를 넣는 것이 바른 표기이다.

중단원 실전 문제

pp. 185-189

01 ④ 02 ② 03 ④ 04 ④ 05 ⑤ 06 ② 07 ③
08 ③ 09 ④ 10 ① 11 해설 참조 12 해설 참조

01. (다)는 기사문이다. 따라서 실제 사건이나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수필의 성격을 지닌 시사 평론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진솔하게 표현한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수필로 정서를 표현하려고 생산한 국어 자료이다.

② (가)는 수필이고 (나) 역시 시사 평론인 수필로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진솔하게 드러낸 부분이 있고, 설득을 목적으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이해시키려 하는 대목도 있다.

③ (나)는 시사 평론이다.

⑤ (다)는 기사문으로 세종학당재단에서 ‘세계 곳곳 영터리 한국어를 찾습니다.’라는 기획 행사를 연 것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02. ②는 현재의 상황을 말한다. 존댓말을 어느 한 쪽만 사용한

다면 존댓말을 쓰는 쪽은 순종적인 자세가 되어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실어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따라서 ②는 ①의 새 시대와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03. (다)의 국어 자료는 기사문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요소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작성한다고 해서 공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04. 제시된 국어 자료는 광고문이다. 광고문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05. 복수 표준어 중에는 둘 이상의 단어가 두루 쓰이고 있어서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기>의 경우 두 번째 사례 ‘눈초리’와 ‘눈꼬리’는 현재 표준어로 인정되는 ‘눈초리’와 ‘눈꼬리’가 말의 뜻이나 어감에 차이가 있어서 표준어로 인정된 경우이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간지럽히다’와 ‘간질이다’는 같은 뜻을 지닌 복수 표준어이다.

② ‘짜장면’과 ‘자장면’은 표기는 다르지만 모두 표준어로 인정된 사례이다.

③ ‘눈초리’와 ‘눈꼬리’는 복수 표준어이지만 뜻과 어감이 다른 복수 표준어이므로 바꿔 쓸 수 없다.

④ 일상에서는 ‘짜장면’이라고 말하면서 표준어는 ‘자장면’만을 썼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다.

06. 제6항에서 첫 음절에 긴 소리로 소리 나더라도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첫눈’은 [천눈]으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 밤나무의 ‘밤’은 길게 소리 난다.

③ ‘신을 신다’의 ‘신다’는 7항 1의 규정에 따르면 어간 ‘신’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이므로 짧게 발음한다.

④ ‘꼬이다’는 ‘꼬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꼬이다’가 된 것이므로 짧게 발음한다.

⑤ 없다[엷:따]의 경우 길게 발음하고 없으니[엷:쓰니]도 길게 발음하는 경우이다. 그 외에도 끝다[꼴:다] — 끌어[꼬:러], 뚫다[뚫:다] — 뚫은[뚫:븐], 벌다[벌:다] — 벌어[버:러], 썰다[썰:다] — 썰어[써:러] 등이 있다.

07. ‘알타리무’ 대신 ‘총각무’가 표준어로 채택된 것은 제3장 제22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에 한자어가 표준어로 채택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깡충깡충’이 표준어가 아니라 ‘깡충깡충’이 표준어이다. 제2장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② ‘으레’를 버리고 ‘으레’를 표준어로 삼은 것은 제2장 제10항의 규정과 관련된다.

④ ‘안절부절하다’ 대신 ‘안절부절못하다’를 표준어로 삼은 것은 제3장 제25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⑤ ‘신-신발, 여쭙다-여쭙다, 옥수수-강냉이, 우레-천둥’ 등은 복수 표준어이다. 그러나 ‘주책이다 - ‘주책없다’는 단수 표준어인데, 단수 표준어는 사용 빈도에 따라 표준어를 결정한다.

08. ③의 ‘퍼서’는 ‘푸-’라는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서’가 결합하면서 어간의 모음 ‘ㅜ’가 탈락한 채로 소리 난다. 따라서 ‘퍼서’로 표기하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의 원칙을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어간과 어미를 분리한 것은 ㉠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② 음운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적은 것은 ㉠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④ 같은 글자가 위치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것은 두음 법칙이 적용된 대로 적은 것으로 ㉠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⑤ 어간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09. 제4항의 규정은 외국어에서는 된소리와 예사소리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센소리의 구분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제1항은 한글 자모 24자만으로 적는다는 것으로 [f, v, ʃ, tʃ, ʒ, ʌ]와 같이 우리말에 없는 음운들은 각각 ‘ㅍ, ㅂ, ㅅ, ㄷ, ㅈ, ㅊ’ 등으로 적는다.

② 제2항은 1음운이 단어에 따라 다르게 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③ 제3항은 외래어 종성 표기에 ‘ㄷ’ 대신 ‘ㅅ’을 쓰는 것은 뒤에 모음이 올 때, ㅅ으로 소리 나기 때문이다.

⑤ 관용을 존중한다는 것은 이미 굳어진 소리를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10. 조건은 ‘체인’이어야 하고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라와야 한다. 이 때 ‘ㅎ’을 밝혀 적는다고 했다. 따라서 [지편전]의 로마자 표기는 ‘jiphyeonjeon’이 된다.

오답 풀이 ②, ④, ⑤는 조건에서 ‘체인’이라고 한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다.

③은 체언이기는 하나 ‘Ojukeon’에서 ‘ㅎ’이 표기되지 않았다. 맞는 표기는 ‘Ojukheon’이다.

서술형 문제

11. 예시 답 • 백마: Baengma → ‘ㅁ’의 영향을 받아 ‘ㄱ’이 ‘ㅇ’으로 교체되는 자음 동화에 의해 [뱅마]로 발음되므로 음운 변동을 반영하여 표기한 것이다. 또한 고유 명사이므로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 것이다.

• 알약: allyak →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 [알낙]으로 변화한 뒤, ‘ㄹ’의 영향을 받아 ‘ㄴ’이 ‘ㄹ’로 변화하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 [알락]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변동을 반영하여 표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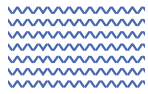
• 해돋이: haedoji →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 [해도지]로 발음되므로 음운 변동을 반영하여 표기한 것이다.

평가 기준	배점
세 가지 모두 로마자로 정확히 표기하고 그렇게 표기한 이유를 음운 변동과 관련지어 모두 서술한 경우	10점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7점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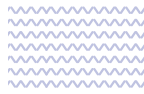
12. 예시 답 (1) 특징: 명사형 종결 표현이 주로 쓰였다.

(2) 이유: 공고문의 특성상 해석의 혼동을 줄 수 있는 말을 피하고 공고할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평가 기준	배점
공고문의 종결 특징과 이유를 모두 적절히 서술한 경우	5점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3점
정서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등급 완성 문제



I 언어, 매체, 삶

pp. 190~193

- 01 ③ 02 ② 03 ③ 04 ① 05 ② 06 겸양 표현이
발달되어 있다. 07 ⑤ 08 ③ 09 ⑤ 10 ④ 11 ③
12 해설 참조

01. (가)에서는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언어로서 국어가 지니는 일반적 특성과 함께 한국어라는 공동체 속에서 국어가 지니게 된 고유한 특성을 서술하고 있다.

02. [A]는 언어 공동체의 문화가 언어에 반영된다는 내용으로 한국의 음식 문화, 조선 시대 여성들의 생활 문화, 제주도 지역 문화, 농업 사회의 문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부추'의 다양한 지역 방언들은 문화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

03. 같은 한국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연령이나 성별, 직업 등에 따라 언어 사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보기>에서는 젊은 세대와 그 이전 세대의 언어적 갈등이 무엇 때문인지 서술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속한 공동체의 특성이 언어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면서 동시에 역사성을 지녔다는 것을 <보기>에서 알 수 있으나 (가)에서 이에 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다.

04. 한국어는 'ㄱ-ㄴ-ㅇ', 'ㄷ-ㅌ-ㄴ', 'ㄷ-ㄸ-ㅌ'과 같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대립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05. '사랑해요, 당신을.'이라는 문장은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문장의 필수 성분인 주어를 생략하고 '목적어-서술어'의 어순을 '서술어-목적어'로 바꾼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완전한 문장이다.

③, ⑤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다.

④ 어순이 바뀐 문장이다.

06. 겸손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 문화적 상황 때문에 국어에는 겸양 표현이 발달되어 있다.

07. '꽃'이라는 기호의 의미는 수많은 꽃들이 지닌 공통 속성을 뽑아 추상화한 의미이다.

08. 언어의 규칙성을 바탕으로 인간은 한정된 음운을 사용하여 수많은 단어, 문장, 담화를 생성할 수 있다. 한 번도 들어 본 적 없는 문장을 만들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언어의 창조성 때문이다.

09. '선양하다'라는 말은 '명성이나 권위 따위를 널리 떨치게 하다.'라는 의미로 ㉠에 어울리지 않는다. ㉡는 '향상시키다'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10.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통되는 매체 언어들이라 하더라도 의사소통의 목적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되는 보도 기사, 수신자를 설득할 목적의 광고, 친교를 위한 누리소통망 메시지, 소리와 동영상을 활용해 정서를 표현하는 뮤직 비디오는 각각의 대표적인 예이다.

11. 같은 내용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매체의 특성에 따라 구성과 소통 방식이 달라진다. 종이 신문의 경우 메시지가 일방적으로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반면, 뉴 미디어의 경우 복합적이고 개방적인 소통 현상을 특징으로 한다.

12. <보기>는 신문 기사를 종이로 된 매체로 읽지 않고 다양한 전자 매체(데스크톱이나 노트북,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읽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을 통계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나)에서 제시한 대로 전자 매체가 갖는 속성(속도, 범위, 개방성)으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예시 답 첫째, 전자 매체를 통한 소통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둘째, 전자 매체의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셋째, 전자 매체가 더 개방적이기 때문이다.

01 ㉔	02 ㉔	03 ㉔	04 ㉔	05 ㉔ [널꼬], ㉔ [담:노], ㉔ [말근], ㉔ [무르피]	06 ㉔	07 ㉔	08 ㉔	09 ㉔
10 ㉔	11 ㉔	12 ㉔	13 ㉔	14 ㉔	15 ㉔	16 ㉔	17 ㉔	18 ㉔
19 ㉔	20 ㉔ 서술어, ㉔ 부사, ㉔ 조 사	21 (a) 7개, (b) 3개, (c) 9개, (d) 5개, (e) 7개	22 ㉔	23 ㉔	24 ㉔	25 해설 참조	26 ㉔	27 ㉔
28 ㉔	29 ㉔	30 ㉔	31 해설 참조	32 ㉔	33 ㉔	34 ㉔	35 ㉔	36 ㉔
37 ㉔	38 ㉔	39 ㉔	40 ㉔	41 ㉔	42 ㉔	43 ㉔		

01. '가다'를 발음하면 '가'에서 '다'로 넘어갈 때 혀끝이 윗잇몸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난다. 그러다가 '가자'를 발음하면 '가'에서 '자'로 넘어가는 순간 혀끝에서 혀바닥 쪽으로, 윗잇몸에서 센입천장 쪽으로 조음 위치가 이동하면서 소리가 난다. 이를 통해 'ㄷ'은 잇몸소리, 'ㄴ'은 센입천장소리임을 알 수 있다.

02. <보기 1>의 내용을 참고할 때, 음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음은 없어도 음절을 이룰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 <보기 1>의 내용을 볼 때, 음절은 자음과 모음이라는 음운이 모여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

ㄴ : <보기 1>의 내용을 볼 때, 음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의 모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면 자음은 사용되지 않는 경우, 하나의 자음이 사용되는 경우, 두 개의 자음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음절의 수는 모음의 수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ㄷ : <보기 1>의 내용을 볼 때, 음절의 첫소리에 쓰인 'ㅇ'은 항상 모음 앞에 쓰이게 되므로 음가가 없다. 따라서 음소(자음)로 인정되지 않는다. 'ㅇ'은 받침으로 쓰일 때 음가를 지닌 음소(자음)로 인정받을 수 있다.

03. '찰찰하다'와 '살살하다'는 어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분화되는 사례에 해당한다.

04. <보기>에 의하면 음소는 자음과 모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국어에서는 음절 초성의 위치에 자음 'ㅇ'이 나타나지 못한다. 따라서 '아량'은 'ㄱ, ㄷ, ㄴ, ㅇ'의 4개의 음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오답 풀이 ㉔ <보기>에서 국어는 장단으로 그 의미가 구별되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의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다른 언어와 달리 장단, 고저, 강약 등이 음운으로 작용하는 일이 많지 않다고 하였다.

㉔ <보기>에서 음운은 기본적으로 의미를 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의미를 분화시킨다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하게 해 준다는 의미이다.

㉔ '밤'은 장음(長音)으로 발음될 때 밤나무의 열매인 '밤(栗)'을 의미하며, 단음(短音)으로 발음될 때 시간을 가리키는 '밤(夜)'을 의미한다.

㉔ <보기>에서 국어의 음운 조직이 음절이란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음절 단위로 모아쓴다고 하였다.

05. ㉔은 표준 발음법 제10항, ㉔은 표준 발음법 제29항, ㉔은 표준 발음법 제14항, ㉔은 표준 발음법 제13항을 적용하여 발음한다.

06. <보기>의 [A]와 [B]는 음운이 발음될 때 이웃하고 있는 음운과 서로 닮는 동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A]는 자음 동화의 사례로, 자음이 비음이나 유음을 만났을 때 비음이나 유음으로 동화되는 현상(비음화, 유음화)을 보여 주고 있으며, [B]는 모음 동화의 사례로, 다른 모음이 'ㅣ' 모음과 앞뒤에서 만났을 때 'ㅣ' 모음에 동화되는 현상('ㅣ' 모음 역행 동화, 'ㅣ' 모음 순행 동화)을 보여 주고 있다.

07. ㉔은 'ㄴ'이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화됨으로써 'ㄹ'로 음운 교체가 이루어진 예이며, ㉔은 파생어에서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을 'ㄹ'로 발음한 예이다. 그리고 ㉔은 'ㅂ'과 'ㅎ'이 결합하여 하나의 음운인 'ㅃ'으로 축약된 예이며, ㉔은 받침의 'ㅎ'이 탈락된 예이다.

08. '가-+-아'가 [가]로 발음되는 예가 동음 탈락에 해당한다. '오-+-아서'가 [와서]로 발음되는 것은 '축약'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㉔ 'ㄹ'이 'ㄱ'으로 발음되므로 '자음군 단순화'(음운 탈락)에 해당한다.

㉔ 'ㄹ'이 발음되지 않으므로 'ㄹ 탈락'(음운 탈락)에 해당한다.

㉔ 'ㅎ'이 발음되지 않으므로 'ㅎ 탈락'(음운 탈락)에 해당한다.

㉔ 'ㄴ'이 발음되지 않으므로 'ㄴ 탈락'(음운 탈락)에 해당한다.

09. "웃 위"에서 '웃'은 받침이 'ㅅ'이므로 1단계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리고 뒤에 '위'라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오기 때문에 2단계의 ㉔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음절의 받침 'ㅅ'이 'ㄷ'으로 발음되므로 3단계 역시 만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2-㉔의 단계를 만족시킨다는 내용은 적절치 않다.

오답 풀이 ㉔ '받-'은 받침이 'ㄷ'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받꼬]로 발음된다.

㉔ '부엌'은 음절의 받침 'ㄱ'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인 '예'가 오기 때문에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ㄱ'이 연음되어 [부어케]로 발음된다.

㉔ '맛없다'는 '맛'의 받침에 'ㅅ', '없-'의 받침에 'ㅁ'이 옴으로 1단계를 만족시키고 있으며, 뒤에 '없-'이라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옴으로 2-㉔ 단계를, '없-' 뒤에 '-다'라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옴으로 2-㉔ 단계를 만족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맛'의 끝소리 'ㅅ'이 'ㄷ'으로 발음되므로 3단계를 만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맛업따]로 발음된다.

㉔ '놓아'는 1단계는 만족시키고 있으나, '-아'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2-㉔, 2-㉔, 3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

고 [노아]로 발음된다.

10. ‘만’이 [마지]로 발음될 때는 뒤에 오는 모음 ‘ㅣ’에 의해 자음 ‘ㄷ’이 ‘ㅈ’으로 변한다. 따라서 이는 모음에 의해 자음이 동화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앞의 음운이 다음에 오는 음운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역행 동화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난로’는 앞의 자음 ‘ㄴ’이 뒤에 오는 자음 ‘ㄹ’의 영향을 받아 [날로]로 발음되므로 ㉓와 ㉔의 음운 동화가 일어난다.
② ‘피어’는 뒤의 모음 ‘ㅣ’가 앞의 모음 ‘ㅣ’의 영향을 받아 [피여]로 발음되므로 ㉔와 ㉕의 음운 동화가 일어난다.
④ ‘밀가루’는 일부 방언에서 앞의 자음 ‘ㄹ’의 영향을 받아 뒤의 모음 ‘ㅜ’가 ‘ㅣ’로 발음되므로 ㉓와 ㉕의 음운 동화가 일어난다.
⑤ ‘잡히다’는 뒤의 모음 ‘ㅣ’의 영향을 받아 앞의 모음 ‘ㅏ’가 ‘ㅐ’로 발음되므로 ㉔와 ㉔의 음운 동화가 일어난다.

11. ‘콩밥’은 ‘콩+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지만, [콩밥]으로 발음한다.

12. ㉔의 ‘겨우’는 ‘세’라는 관형사를 수식하고 있다. 따라서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한다는 탐구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㉔은 부사 단독으로 쓰인 부사어이며, ㉔은 ‘진실(체언)+로(부사격 조사)’의 형태로 쓰인 부사어이다.
③ ‘아무 소리 없이’는 전체 문장 속에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다.
④ ‘모름지기’는 ‘의외로’와 마찬가지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⑤ ‘주다’는 목적어와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다. 따라서 ‘사람들에게’라는 부사어는 ‘주다’라는 서술어가 문장 속에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다.

13. <보기>에서 보조 용언은 ‘-ㄴ(는)다’의 결합 여부에 따라 결합이 가능한 보조 동사와 결합이 불가능한 보조 형용사로 나뉜다고 하였다. (ㄱ)의 ‘보다’는 ‘비가 오나 본다.’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보조 동사가 아닌 ‘보조 형용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본용언은 자립성을 지니고,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단독으로 서술 능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ㄱ)의 ‘간다’는 문장 속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한 개의 서술어로 쓰이고 있으면서 서술어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단독으로 서술 능력을 가진 본용언에 해당한다.
② <보기>에서 본용언은 자립성을 지니고, 단독으로 서술 능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ㄴ)의 ‘갔다’는 자립성을 지니면서 ‘설회는 갔다.’의 형태로 실현이 가능하므로 단독으로 서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는 본용언에 해당한다.
③ <보기>에서 보조 용언은 자립성이 없이 본용언에 의존해 쓰인다고 하였다. (ㄷ)의 ‘싶다’는 ‘바나나를 싶다.’의 형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자립성이 없어 단독으로 서술 능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는 보조 용언에 해당한다.
④ <보기>에서 보조 용언은 본용언에 의존해 쓰이면서 그것의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에 그치게 된다고 하였다. (ㄹ)의 ‘내겠다’는 화자의 굳은 의지와 결의의 마음가짐을 드러내면서 본용언의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보조 용언에 해당한다.

14. (ㄱ)에서 ‘은’은 주어의 성분으로 쓰이면서 ‘잘못’에 대한 강조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체언인 ‘잘못’을 정의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ㄴ)에서 ‘은’은 ‘인간’이라는 대상에 대해 다른 대상과의 차이를 드러내는 물론, 그것을 정의하고, 또 문장 속에서 그것이 화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③ (ㄷ)에서 ‘는’은 부사어의 성분으로 쓰이면서 말하는 이의 뜻을 강조하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④ (ㄹ)에서 ‘는’은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목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⑤ (ㄱ)에서 ‘는’은 주격 조사를 대체하면서 ‘날씨’가 문장 속에서 화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15. ‘너와 나는 생각이 달라.’라는 문장은 두 개의 단어인 ‘너’와 ‘나’가 ‘와’에 의해 접속된 형태의 문장이다. 따라서 이는 ‘단어 접속’에 해당한다. 그러나 ㉔는 ‘모범생인 준수를 좀 본받아라.’라는 문장과 ‘모범생인 지수를 좀 본받아라.’라는 두 개의 문장이 ‘와’에 의해 접속된 형태의 문장이다. 따라서 이는 ‘문장 접속’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㉔의 ‘-과’는 두 단어 ‘동양인’과 ‘서양인’을 접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② ㉔의 ‘-와’는 주어 뒤에서 부사격 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㉔의 ‘-와’는 접속 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③ ㉔는 문장 접속의 형태를 지닌 문장으로,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나 ㉔는 단어 접속의 형태를 지닌 문장으로,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질 수 없다.
⑤ ‘라면을 김치와 함께 먹다.’의 ‘-와’는 목적어 뒤에서 부사격 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㉔의 ‘-와’ 역시 부사격 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16. ㉔은 ‘키가 매우 크다.’라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절(節)이 주어가 아닌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㉔은 ‘남자가’ 대신 ‘남자는’으로 쓰면서 주격 조사 ‘가’를 보조사 ‘는’으로 대체하고 있다. 또 ㉔은 “너 지금 뭐 하니?”에서 주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다.
③ ㉔은 ‘키’라는 받침 없는 체언 뒤에서 주격 조사 ‘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㉔은 ‘학생들’이라는 받침 있는 체언 뒤에서 주격 조사 ‘이’를 사용하고 있다.
④ ㉔에서는 ‘학생들이’와 같이 주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㉔의 대화 상황에서는 “응, (나는) 밥 먹어.”와 같이 주어가 생략되어 사용되고 있다.
⑤ ㉔에서는 ‘교육부’라는 단체 무정 명사에 주격 조사 ‘에서’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㉔에서는 ‘학생들’이라는 단체 유정 명사에 ‘이’라는 주격 조사를 사용하였다.

17. ㉔의 ‘높히다’는 ‘높다’라는 자동사의 어근에 사동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형성된 사동사이다. 따라서 ㉔에 해당한다. ㉔의 ‘높히다’는 ‘높다’라는 형용사의 어근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형성된 사동사이다. 따라서 ㉔에 해당한다. ㉔의 ‘알리다’는 ‘알다’라는 타동사의 어근에 사동 접미사 ‘-리-’가 결합되어 형성된 사동사이다. 따라서 ㉔에 해당한다.

18. ‘먹이다, 숨기다, 낮추다’에 사용된 ‘-이-’, ‘-기-’, ‘-추-’는 사동 접미사이며, ‘막히다’에 사용된 ‘-히-’는 피동 접미사이다. ‘먹이다, 막히다, 숨기다’의 접미사는 피동의 의미로 동사 어근의 뜻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낮추다’의 접미사는 형용사 ‘낮다’를 동사로 파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군소리, 짓밟다, 새빨갳다’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접두사는 모두 어근의 품사를 파생시키지는 못하고 그 뜻만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② ‘일꾼, 깨뜨리다, 높다랗다, 더욱이’에 사용된 접미사 ‘-꾼’, ‘-뜨리다’, ‘-다랗다’, ‘-이’는 어근의 뜻만 제한하고 있을 뿐, 어근의 품사를 변화시키고 있지는 않다.

③ ‘먹이, 공부하다, 새롭다, 많이’의 예 중, ‘먹이’의 접미사 ‘-이’는 동사를 명사로 파생시키고 있으며, ‘공부하다’의 접미사 ‘-하다’는 명사를 동사로 파생시키고 있다. 또 ‘새롭다’의 접미사 ‘-롭다’는 관형사를 형용사로 파생시키고 있으며, ‘많이’의 접미사 ‘-이’는 형용사를 부사로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접미사의 일부는 어근의 품사를 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④ 제시된 예들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접사는 모두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19. <보기 1>에 의하면,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라고 하였다. 그런데 ‘-었-’은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이다. 따라서 ‘주었다’의 어근은 ‘주-’이다. 또 ‘-었-’은 선어말 어미이므로 어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었다’의 어간은 ‘주-’이다. 결국 ‘주었다’는 ‘어근’과 ‘어간’이 일치한다.

오답 풀이 ① ‘살다’에서 ‘살-’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이자 활용할 때 변하지 않고 고정된 부분이다. 따라서 ‘살다’의 ‘살-’은 어근이자 어간이다.

② ‘-답다’는 접사이므로 형식 형태소이다. 그리고 활용할 때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따라서 ‘정답다’에서 ‘정’은 어근이며, ‘정답-’은 어간이다.(어간으로서 ‘정답-’은 부불규칙 활용을 함.)

③ ‘-이-’는 접사이므로 형식 형태소이다. 그리고 활용할 때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따라서 ‘먹이다’에서 ‘먹-’은 어근이며, ‘먹이-’는 어간이다.

⑤ ‘오가다’는 ‘오다’와 ‘가다’의 합성어이다. 이때 ‘오-’와 ‘가-’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이다. 따라서 ‘오-’와 ‘가-’는 어근이다. 또 ‘오가다’에서 활용할 때 변하지 않고 고정된 부분(어간)

은 ‘오가-’이다.

20. 용언(동사, 형용사)은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며,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가 붙을 수 있다.

21. (a) 사람들, 은, 나, 에게, 코웃음, 을, 쳤다 (b) 사람, 나, 코 (c) 들, 은, 에게, 웃-, -음, 을, 치-, -었-, -다 (d) 사람, 나, 코, 웃-, 치- (e) 들, 은, 에게, -음, 을, -었-, -다

22. ‘남자’와 ‘여자’는 ‘인간’이라는 공통의 자질을 공유하면서도 ‘성(性)’의 차이에 의해 반의 관계가 성립된다. 그리고 두 단어 사이에는 ‘삶’과 ‘죽음’처럼 중간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다. ‘크다’와 ‘작다’의 사이에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 상태가 존재한다. ‘부모’와 ‘자식’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처럼 서로 상대적 관계가 성립한다.

오답 풀이 ② ‘미혼’과 ‘기혼’의 관계는 중간 상태가 없으므로 (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다’와 ‘팔다’의 관계는 서로 상대적 관계가 성립하므로 (다)에 해당하며, ‘뜨겁다’와 ‘차갑다’의 관계는 중간 상태가 존재하므로 (나)에 해당한다.

③ ‘짧다’와 ‘길다’의 관계는 중간 상태가 존재하므로 (나)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다’와 ‘받다’의 관계는 상대적 관계가 성립하므로 (다)에 해당하며, ‘참’과 ‘거짓’의 관계는 중간 상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에 해당한다.

④ ‘주다’와 ‘받다’의 관계는 상대적 관계가 성립하므로 (다)에 해당한다. 그러나 ‘많다’와 ‘적다’의 관계는 중간 상태가 존재하므로 (나)에 해당하며, ‘삶’과 ‘죽음’의 관계는 중간 상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에 해당한다.

⑤ ‘희다’와 ‘검다’의 관계는 중간 상태가 존재하므로 (나)에 해당한다. 그러나 ‘오른쪽’과 ‘왼쪽’의 관계는 서로 상대적 관계가 성립하므로 (다)에 해당하며, ‘있다’와 ‘없다’의 관계는 중간 상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에 해당한다.

23. ㉔은 부사, ㉔은 서술격 조사이다. ㉔은 형용사, ㉔과 ㉔은 동사이다. 활용이 가능한 품사는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이다. 따라서 ㉔도 활용이 가능하다.

오답 풀이 ② 서술격 조사만 명사에 붙여 쓸 수 있다.

③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쓰일 수 없는 품사이다.

④ ㉔은 부사어, ㉔은 관형어, ㉔과 ㉔은 서술어이다.

⑤ ㉔은 용언인 ‘새로운’을 수식하는 부사어, ㉔은 체언인 ‘역사’를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24. ‘생기다’는 ‘예쁘게’와 같은 부사어를 꼭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다. 그러므로 ㉔에서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은 주어, 부사어, 서술어이다.

오답 풀이 ① 대개 관형어는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분은 아니지만, ‘것’과 같은 의존 명사 앞에서는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② '되다'는 '물로'와 같은 부사어를 꼭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다.

④ '마주치다'는 주어와 더불어 '장벽과'와 같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⑤ '삼다'는 주어 및 서술어와 더불어 '수양딸로'와 같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25. ㉠은 부사어이고, ㉡은 보어이다. 이처럼 문장 성분은 다르지만,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수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예시 답 ㉠과 ㉡의 차이점은 ㉠은 '부사어', ㉡은 '보어'라는 점이고 ㉠과 ㉡의 공통점은 문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 성분이라는 점이다.

26. ③은 주어 '우리는'과 서술어 '여쭙었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여쭙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있으며 관형어 '그'와 필수 부사어 '선생님께'가 들어 있다.

오답 풀이 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주어 '나는'과 서술어 '드렸다', 주어 '책이'와 서술어 '고운'이 이에 해당한다.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드리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있으며 관형어 '고운'과 필수 부사어 '어머니께'가 들어 있다.

② 주어 '형은'과 서술어 '뵈었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뵈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관형어 '그'와 '뜻밖의'가 들어 있지만, 필수 부사어가 들어 있지 않다. '장소에서'는 부사어이기는 하지만, 서술어 '뵈다'가 요구하는 필수 부사어는 아니다.

④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주어 '할머니께서'와 서술어 '주셨다', 주어 '(손주들이)'와 서술어 '어리다'가 이에 해당한다. 관형어 '어린'과 필수 부사어 '손주들에게'가 들어 있으나 객체를 높이는 단어가 들어 있지 않다.

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주어 '할아버지께서'와 서술어 '잡수신다', 주어 '(할아버지께서)'와 서술어 '즐겁다'가 이에 해당한다. 객체를 높이는 단어가 들어 있지 않다. 관형어 '엄마의'가 들어 있으나, 필수 부사어는 들어 있지 않다.

27. '무척'은 목적어인 '아들을' 앞에 와도 되고, 서술어인 '사랑하신다' 앞에 와도 된다.

오답 풀이 ① '안'의 위치는 서술어 '먹는다' 앞으로 제약된다.

② '매우'의 위치는 수식하는 부사어 '빨리' 앞으로 제약된다.

④ '핀'의 위치는 수식하는 문장 성분인 주어 '진달래꽃이' 앞으로 제약된다.

⑤ '눈이'의 위치는 '어제 눈이 오자' 안으로 제약된다.

28. <보기>의 문장은 명사절 '너의 일이 잘되기'가 안겨 있는 겹

문장이다. 이때 명사절은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④ 또한 명사절 '그가 성실한 사람임'이 안겨 있는 겹문장으로, 이때 명사절은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서술절 '나무가 많다'가 안겨 있는 겹문장이다.

② '길이 나쁘다.'와 '차가 다니지 못한다.'라는 문장이 연결된 겹문장으로,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③ 부사절 '남의 도움 없이'가 안겨 있는 겹문장이다.

⑤ 관형절 '충무공이 만든'이 안겨 있는 겹문장이다.

29. '바람이 들어오다'에는 생략된 성분이 없다.

오답 풀이 ① 'כות등에 흐르는'은 관형절로, '눈이 오기'는 명사절로, '바람이 들어오도록'은 부사절로, '식탐이 많다'는 서술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다.

② 'כות등에 흐르는'은 체언인 '땀'을 수식한다.

③ '눈이 오기를'은 '눈이 오기'라는 명사절 뒤에 목적격 조사 '를'이 결합하여 목적어 기능을 한다.

30. '저 아이가'에서 '저'는 대명사가 아니라 관형사로,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① 부사절인 '재주가 있게'는 '생겼구나'를 수식하는 부사어 역할을 한다.

③ '생겼구나'는 주어 '아이가'와 부사어 '재주가 있게'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④ '재주가 있-'에 '-게'가 붙어 뒤에 나오는 서술어 '생겼구나'를 수식하고 있다. '빠르게 달리다'의 '빠르게' 또한 '빠르-'에 '-게'가 붙어 뒤에 나오는 서술어 '달리다'를 수식하고 있다.

⑤ '과연'은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문장 부사로, '저 아이가 과연 재주가 있게 생겼구나.'와 같이 자리를 옮길 수 있다.

31. **예시 답** 적절하다. ㉠에서 명사절은 '눈이 오기'로 전을 꾸미는 관형어인데, 여기에는 생략된 성분이 없다. ㉡에서 명사절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인데 여기에도 생략된 성분이 없다. ㉢에서 명사절은 '학교 가기'인데, 여기에는 '동생이'와 같은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32. 감탄형 어미 '-구나'는 동사 '되다'나 형용사 '좋다'에 모두 쓰인다. 감탄형 어미 '-어라'는 '덥다'와 같은 형용사에는 쓰이지만, '되다'와 같은 동사에는 쓰이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좋구나!', '좋구먼!', '좋구려!' 등 종결 표현을 달리하여 상대 높임법을 적용하고 있다.

② '아이고! 더워라!'와 같이 감탄형 어미 '-어라'는 청자를 고려하지 않은 독백에서 나타난다.

④ '아이고! 영희가 더워라!'는 비문으로, 감탄형 어미 '-어라'는 느낌의 주체가 말하는 이가 아니면 감탄문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되는구나!'와 같이 감탄형 어미 '-구나'는 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 '-는-'과 결합하여 쓰이기도 한다.

33. '우리 함께 학교에 가자.'라고 하였으니, 문장의 주어는 듣는 이뿐만 아니라 말하는 이도 포함된다. 청유형 문장이므로 서술어로는 동사만 올 수 있다.

34. '파도가 노래하는 바닷가 마을이 내 고향이라면 참 좋겠다.'에서 '-이라면'은 서술격 조사 '-이다'가 문장 속에서 활용된 것으로, '파도가 노래하는 바닷가 마을은 내 고향이다.'라는 문장과 '나는 참 좋겠다.'라는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므로 (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나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에서 '-이에요'는 종결형에 해당한다.

② '이 음식은 우리 집 강아지들의 먹이다.'에서 '-(이)다'는 종결형에 해당한다.

③ '이것은 파인애플이요, 저것은 바나나이다.'에서 '-이요'는 연결형에 해당한다.

④ '여기가 살기에 정말 좋은 곳을 이제야 알았다.'에서 '-임'은 명사형에 해당한다.

35. '연세'는 높여야 할 인물인 '부모님'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이고, '모시다'는 객체인 '부모님'을 높이는 용언이다.

오답 풀이 ① '성함'은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이다.

② '드리다'는 객체를 높이는 용언이다.

③ '선생님'은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이다.

⑤ '주무시다'는 주체를 높이는 용언이다.

36. ④ '아버지께서 축구를 하셨습니다.'는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또한 '-습니다.'와 같은 종결 표현을 통해 청자를 높이고 있다. 그러므로 주체와 청자는 모두 화자보다 상위자이다.

㉠ '영호가 축구를 했습니다.'는 '-습니다.'와 같은 종결 표현을 통해 청자를 높이고 있다. 한편 '영호가'라고 하였으므로, 주체인 '영호'는 화자보다 낮거나 동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37. '학생이던'에서 알 수 있듯이, 서술격 조사에 관형사형 어미 '-던'이 붙으면 과거 시제가 된다.

오답 풀이 ② '어제'와 같은 시간 부사어가 사용되면 시제가 명확해진다.

③ '포근하다'와 같은 형용사는 선어말 어미가 결합되지 않더라도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④ '하다'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ㄴ-'이 결합되어 현재 시제가 실현되었다.

⑤ '-겠-'은 의지를 함께 드러내는 선어말 어미이다.

38. '믿겨지다'를 분석하면 '믿-+-기-+-어지다'인데, 이는 이중 피동에 해당한다. 피동 접미사 '-기-'가 쓰이고 있는데, 또 다른 피동 표현인 '-어지다'를 덧붙였기 때문이다. '믿기지'라고 쓰면 된다.

오답 풀이

① 써지다 : 쓰-+-어지다

② 멀어지다 : 멀-+-어지다

④ 끓어지다 : 끓-+-어지다

⑤ 이루어지다 : 이루-+-어지다

39. ㉠의 경우 타동사인 '읽다'에 대응하는 사동사 '읽히다'가 있다.

오답 풀이 ① ㉠의 A의 주어 '철수가'는 C에서 목적어 '철수를'로 나타난다. ㉡의 A의 주어 '철수가'는 C에서 부사어 '철수에게'로 나타난다.

② ㉠의 A에서 서술어의 자릿수는 한 자리이고, B에서는 두 자리이다. ㉡의 A에서 서술어의 자릿수는 한 자리이고, B에서는 두 자리이다.

③ ㉠의 A는 홀문장이고, B도 홀문장이다. ㉡의 A는 홀문장이고, B도 홀문장이다.

⑤ ㉡에서 A의 서술어 '높다'는 형용사인 데, '높이다'와 같은 사동사나 '높게 하다'와 같은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에서 A의 서술어 '치다'는 동사인 데, '치게 하다'와 같은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40. '불리다'는 능동사 어근 '부르-'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찍히다'는 능동사 어근 '찍-'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서 만들어진 피동사이다.

오답 풀이 ① '달리다'는 접미사가 붙지 않은 단일어로, 피동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② '낮추다'는 주동사 어근 '낮-'에 사동 접미사 '-추-'가 붙어서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④ '이기다'는 접미사가 붙지 않은 단일어로, 피동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⑤ '보이다'는 주동사 어근 '보-'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사동사이다.

41. '생각되어집니다.'는 피동사가 남용된 표현으로, 피동 접미사 '-되다'와 또 다른 피동 표현인 '-어지다'가 중복되어 있다. '생각됩니다.'로 쓰면 된다. 한편, 문맥상 '차에 친'은 피동 접미사 '-이-'를 붙여 '차에 치인'으로 바꾸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② 이 문장에서 주체는 '고모'이고, 청자와 객체는 '할머니'이다. 청자와 객체를 높이고 있는 문장으로, 주체를 높이고 있지는 않다.

③ 부사가 아닌 부정 용언 '아니하다'를 통해 실현된 부정 표현이다. '교실에서는'에서 알 수 있듯이, 보조사 '는'을 통해 중의성을 해소하고 있다.

④ '부딪히는데' 쓰인 '-히-'는 피동 접미사이고, '좁히다'에 쓰인 '-히-'는 사동 접미사이다.

⑤ 2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겹문장으로, 서술절 '마당이 좁다'를 안고 있는 문장이다. 안긴문장인 서술절은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42. ㉔를 짧은 부정문으로 고치면 ‘그는 넘어져서 다시 못 일어났다.’인데, 긴 부정문과 비교했을 때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기본적으로 부정 표현은 중의문으로 해석된다. ㉔ 역시 회원 모두가 안 온 것인지, 몇 명만 온 건지 그 의미가 불분명한 중의문이다. 중의문을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시된 문장은 보조사 ‘는’을 사용하여 중의성을 해소하고 있다.

② <보기 1>의 2문단에서 서술격 조사가 사용된 문장에서는 의지 부정, 능력 부정 표현이 모두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 1>과 (1)~㉔을 통해 형용사에 쓰인 안 부정문은 상태 부정문임을 알 수 있으므로 ㉔ 역시 이를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⑤ <보기 1>의 (1)~㉔를 통해 ‘못’이 형용사의 부정 표현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㉔를 통해 ‘못’이 동사의 부정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보기>는 내용적 측면에서 화자가 어떤 주제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즉 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담화의 통일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곳, 그, 이만한, 그러나’ 등 지시 표현, 대용 표현, 접속 표현 등을 잘 활용하여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따라서 담화의 응집성은 잘 갖추어져 있다.

III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pp. 205~210

01 ③	02 ④	03 ③	04 ⑤	05 해설 참조	06 ④
07 ①	08 ③	09 ③	10 해설 참조	11 ①	12 ④
13 ⑤	14 해설 참조	15 ⑤	16 ⑤	17 ②	18 ③

01. 인터넷 매체인 (가)와 방송 매체인 (나)는 모두 동영상과 소리, 문자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정보를 구성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것은 (다)이다.

② 실재감이 높은 것은 방송 매체인 (나)이다.

④ 누구나 정보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가)이다.

⑤ (나)는 방송 매체이므로 문자 언어보다 영상과 음성, 음향의 역할이 크다.

02. (가)에서 스매시 기술을 설명하는 데 사진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 (가)는 문자 언어를 기본으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는 하이퍼링크를 연결해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댓글을 통해 수용자와 소통하고 있다.

03. 댓글의 댓글이 정당하지 않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악성 댓글로 볼 수 있지만,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각’이라는 용어는 청소년들에 의한 신조어로 아름다운 우리말이 아니므로, 언어 정화의 대상이 된다.

②, ⑤ 나그네와 답변왕은 선플 운동이 지향해야 하는 매체 언어 생활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양비론적인 비난을 보여 주고 있는 ‘무지개’의 댓글은 악성 댓글로 볼 수 있다.

04. (다)가 표제와 전문, 본문과 같은 신문 기사와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나 표제를 보충하는 작은 제목인 부제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시민의 체험 내용을 첫 문단에 제시하고 있다.

② 모기 감시 현황 추이를 시각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③ 비가 많이 내린 상황과 비가 오지 않은 상황을 제시하여 모기의 급감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④ 전문 부분은 색을 입혀 잘 보이도록 하고 있다.

05. **예시 답** 정보 제공 속도나 정보 제공자의 범위에 있어 모두 인터넷 매체가 가장 우위에 있으며, 인쇄 매체가 가장 느리고 좁다.

06. (가)는 동영상 광고이고, (나)는 애니메이션, (다)는 마블링 아트 비디오이다. 이들은 모두 창의적인 표현 방법과 심미적 성취가 뛰어난 매체 자료로서, 이를 통해 수용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수용자에게 정서적 고양을 경험하게 한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유통되지 않는다.
 ② (나)와 (다)는 설득의 목적으로 생산된 자료가 아니다.
 ③ 상황에 따라 생산자와 수용자가 친밀한 정서를 공유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⑤ (가)~(다) 모두 정보의 측면에서 전문적이고 유용하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는 아니다.

07. (가)는 증강 현실을 이용하여 도심에 호랑이가 등장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보기>는 버스 정류장 옥외 광고판에 그려진 머리가 마치 의자에 앉아 있는 남자의 머리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켜 재미를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보기>에는 가상의 상황이나 증강 현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보기>에 일반인들의 반응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가)에는 예상에 어긋나는 인물의 행동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08. 작식을 향한 아버지의 헌신적 사랑은 인류의 보편적인 주제로, 그것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수준이 낮은 작품이라 폄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나)는 대중문화의 한 양식인 애니메이션 매체로 만들어졌으며,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④, ⑤ (나)는 색감의 변화와 대사 없이 인물의 행동과 배경 음악 정도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학적이고 문화적 성취가 높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09. 심미성이란 작품의 아름다움을 살펴 찾으려는 성질이고, 심미적 관점은 이런 성질에 입각하여 작품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런 관점에서 (다)를 감상하고 있는 것은 작품 자체의 아름다움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③이다.

오답 풀이 ① 반 고흐의 작품을 재해석한 작품이라는 정보를 인식하는 것은 그 자체를 심미적 관점으로 보기 어렵다.
 ② 단지 기법을 참신하게 느꼈다는 것을 심미적 관점으로 보기 어렵다.
 ④, ⑤ 작품이 아닌 작가의 행위와 위상에 대한 평가를 심미적 관점에서의 작품 감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10. 예시 답 창의성은 수용자로 하여금 생산 자료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거나 생산 자료를 인상 깊게 보게 하는 효과가 있다.

11. 복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는 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고 수업에 임하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습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글쓴이가 우려하는 것처럼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과도한 선행 학습'이지 상식적 수준에서의 예습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예습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답 풀이 ㉠ 선행 학습이 되지 않은 아이가 뒤처지는 것은 사회

적 관점에서 예습이 부족한 것이라 판단할 수는 있지만 선행 학습 자체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옳다고 할 수는 없다.

④ 복습보다 예습이 효율적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반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2. (나)의 전달 목적이 청양 고추·구기자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축제 블로그를 링크로 연결하여 소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미용과 최신 유행의 주제는 한 인기 연예인의 1인 방송의 주제일 뿐, 그 주제가 한류의 원천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다)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기자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④ 연구원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 예시 답 방송에 대한 조회 수는 사람들이 그 방송을 얼마나 많이 찾아보는가를 보여 주는 지표로, 이는 곧 방송의 인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있다.

15. (가)는 친교적 기능을 갖는 인터넷 카페이고, (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댓글을 통해 다른 사람과 친교를 맺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다)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이버 불링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댓글과 같은 친교적 기능의 사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다.

16. 인터넷 카페를 이용할 때, 익명성에 기대어 남을 헐뜯거나 무책임한 글을 양산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시판에 실명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7. (나) 매체는 공연 동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이지, 공연 현장이 아니므로 공연자와 관객 간의 직접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③ 사이트에 업로드된 공연 영상을 여러 사람과 공유하거나 대량으로 전파할 수 있다.

④ 조회 수에 따라 광고가 붙기도 하는데, 이는 상업적인 이익으로 연결된다.

⑤ 저작권이 있는 공연 영상을 무단으로 올릴 경우 저작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18. 남에게 '악성 댓글'을 다는 손을 깨끗이 닦으라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매체 언어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자는 의미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은 남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자는 의미로, 옷의 스타일에 대한 언급이나 남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몸가짐이나 수양과 관련된 내용도 아니다.

IV 국어의 역사와 문화

pp. 211~216

- 01 ② 02 ③ 03 ⑤ 04 ① 05 ④ 06 ⑤ 07
⑤ 08 ⑤ 09 ⑤ 10 ④ 11 ④ 12 ⑤ 13 ③
14 ①

01. '길동군(吉同郡)'의 '길(吉)' 자는 한자의 뜻이 '길하다'이다. 이는 '길다'라는 뜻의 소리를 취한 '영동군(永同郡)'의 '영(永)'과 달리 뜻을 버리고 소리를 취한 표기법에 해당한다.

02. '나흔겨서 무어신고헛니'에 사용된 '-니'는 어떤 사실을 먼저 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다른 사실을 이어서 설명할 때 쓰는 연결 어미이다.

오답 풀이 ① ‘쫄’, ‘쨌여’, ‘까둡’ 등에서 ‘스제 합용 병서’가 쓰이고 있다.

② ‘알다’의 표기를 보면 ‘알어’, ‘잘아논’, ‘알어서’, ‘알어보기’, ‘알아보니’ 등으로 끊어적기를 하기도 하고, ‘아러보지’처럼 소리 나는 대로 이어적기를 하기도 하였다.

④ 양성 모임은 양성 모임끼리 음성 모임은 음성 모임끼리 어울리는 모임 조화 현상이 ‘알어’에서 혼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⑤ ‘**비오기가**’, ‘**보기가**’ 등에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되었다.

03. ‘서울>서울, 좋->좋-’으로 변하는 과정에 단모음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단모음화는 근대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옮겨 가는 시기에 일어난 변화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서~~볼~~>서울’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ㄷ’의 소멸은 ‘ㅌ슴>ㅌ움’으로 변화하는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 사이에서 일어났다.

③ ‘**ㅁ**숨>마음’으로 변화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동- > 좋-’으로 변화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04. ㉮와 ㉯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가 사용되었고, ㉰의 ‘기드리더니’는 회상의 의미를 가진 선어말 어미 ‘-더-’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의 경우, 과거 시제의 의미를 가진 문장이나 시간 표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② 현대 국어에서는 볼 수 없는 ‘ㅃ, ㅆ’ 소리가 이 시기에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소리들은 근대 국어 시기까지 이어지지 않고 그 전에 소멸의 길을 걸었다.

③ ‘은’은 보조사이다. 격조사 자리에 보조사가 위치하는 것은 현대 국어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④ 주체 높임을 위해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현대 국어와 같음을 알 수 있다.

⑤ ‘녀르믈’, ‘퍼쥬믈’은 음성 모음 다음에 목적격 조사 ‘을’이 사용된 경우이며, ‘信受호믈’과 ‘오믈’, ‘몬호믈’은 양성 모음 다음에 목적격 조사 ‘을’이 사용된 경우이다. 그러므로 모음 조화에 따라 서로 다른 목적격 조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5. '자(字)'는 모음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이므로 주격 조사 'ㅣ'를 사용한다. '불휘'는 'ㅣ' 모음으로 끝난 체언에 해당하므로 'ㅇ'을 사용한다. '나라하'는 자음으로 끝난 체언이므로 주격 조사 '이'를 사용한다.

06. ‘듣고저’의 ‘-잡-’은 ‘정법(正法)’을 높이는 선어말 어미
다. 이는 높임의 대상인 ‘무량수불(無量壽佛)’의 신체, 소유물, 생
각 등을 높이는 간접 높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는 ‘태자~~씨~~’에서, ㉡는 ‘무량수불(無量壽佛)~~씨~~’에서 조사 ‘~~씨~~’를 사용하여 객체를 높이고 있다.

② ㉞에서는 ‘-춤-’을 사용하여 ‘**님굶 은혜**’를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님금**’을 높이고 있다.

③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앞말이 모음 등 올림소리로 끝난 경우 ‘-습-’이 사용된다.

④ ‘보살’들은 행위의 주체이므로 ‘보살들’을 높일 경우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야 한다. ‘보습고’의 ‘-습-’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므로 ‘보살’을 높일 수 없다. “-습-”은 ‘광명
이 너비 비취시는 곧’을 높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그리고 이는
‘광명’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07. (가)의 [예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새로운 개념의 합의를 통해서 관리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 광고로 제작하는 것이 좋다. (나)에서 설명하는 국어 자료는 광고문으로 겉으로는 정보의 전달이 목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독자를 설득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공익 광고의 경우 대중을 설득하고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을 배제하고 작성한다는 ㉔의 언급은 국어 자료의 내용과 전달 방식을 잘못 파악한 것이 된다.

08. 각 매체에 따라 표현 수단과 그것이 지니는 특성과 효과가 다르다. 따라서 광고를 할 때에는 광고 목적에 맞는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매체라 하더라도 광고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의도한 설득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오답 풀이 광고를 전달하는 매체와 설득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체 종류	설득 전략
인쇄 매체	문자의 시각화, 비유적 표현, 그림, 사진 등의 시각적 자료 활용
라디오 매체	직설적 말하기, 어조, 운율, 효과음 등을 사용하여 전달 효과를 높임.
텔레비전 매체	이야기 형태의 동영상, 문자 언어와 배경 음악을 활용함.

09. [A]는 설득의 기능을 담고 있는 국어 자료이고 [B]는 광고문으로 표면적으로 정보의 전달이 목적이지만 그 이면에는 독자를 설득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국어 자료이다. [C]는 기사문으로 독자에게 실제 사건이나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을 알려 주는 국어 자료이다. 따라서 세 국어 자료는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으

로 내용을 전달하려 한다는 언어적 특징을 지닌다.

10. (다)의 [예제]에 사용된 국어 자료에 육하원칙이 적용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육하원칙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다)의 [예제]에 제시된 기사문은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가지고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11. ‘맛먹다’는 ‘맛+먹다’로 분석된다. ‘맛’은 제 9항에 따라 [만]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먹다’는 제23항에 따라 [먹파]로 발음된다. 그리고 [만+먹파]는 제18항의 규정에 따라 [만먹파]로 발음된다. 따라서 [만먹파]는 잘못된 발음이다.

오답 풀이 ① ‘국물’은 ‘ㄱ’이 ‘ㅁ’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발음되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제18항)

② ‘뺨다’의 ‘뺨’은 [뺨]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ㅂ] 뒤에서 ‘-다’는 제23항의 된소리되기에 의해 [뺨:파]으로 발음된다.(제10항, 제23항)

③ ‘꽃망울’은 ‘꽃’과 ‘망울’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음운 변동 과정을 살펴보면 [꽃+망울 → 꼰망울]이 된다.(제9항, 제18항)

⑤ ‘홀이불’은 접두사 ‘홀-’과 명사 ‘이불’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홀’은 끝소리 규칙에 의해 [홀]으로 발음되며, 뒤이어 나오는 ‘이불’은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비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홀-+이불 → 홀-+니불 → 혼니불]의 음운 변동 과정을 거친다.(제9항, 제18항)

12. ‘갈등’은 표준 발음법 ‘한자어에서, ‘ㄱ’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갈똥]으로 발음한다. 그러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갈똥)과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갈등), 두 가지의 형태가 다르다.

오답 풀이 ①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의 발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표기 방식이 근본 원칙이 되고, 거기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이 덧붙여 있다.’ 즉 ‘빛이’를 소리 나는 대로 ‘비치’로 적는 것이 근본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어휘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어법에 맞도록’ ‘빛이’라고 표기하는 것이다.

② ‘먹어’의 ‘먹-’은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뜻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표기의 사례이다.

③ ‘소리가’는 특별한 음운 변동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소리가]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④ ‘밑에서’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면 ‘미테서’라고 표기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밑’이라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독서의 효율이 떨어질 것이다.

13. ‘제3항 1에 따르면 ‘어말 또는 자음 앞의 [s], [z], [f], [v], [θ], [ð]는 ‘으’를 붙여 적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③은 적절한 표기이다.

오답 풀이 ① 제3항 2에 따르면 ‘shark’s’는 ‘샤크스’라고 표기하여야 하며, ‘shark’s fin’은 ‘샤크스 핀’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shark’s fin’의 경우 ‘샤스핀’으로 표기하는 것도 인정하는데, 이는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제5항의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보기>를 고려한 표기라고 보기 어렵다.

② 제3항 1에 따르면 ‘그래프’라고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제3항 3에 따르면 ‘미라제’라고 하지 않고 ‘미라지’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 2에 따르면 ‘shopping’의 ‘sh’는 모음 ‘o’ 앞에 있으므로 ‘쇼’로 표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쇼핑’이 적절한 표기이다.

14. ‘독도’는 고유 명사이나 행정 구역이 아닌 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제5항에서 언급한 붙임표를 넣어서는 안 된다. ‘Dokdo’가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 풀이 ② 제3항에 해당하는 표기이다.

③ 제6항에 해당하는 표기이다.

④ 붙임표를 제거하고 ‘Haeundae’로 표기할 경우 ‘해운대’로 읽을 수도 있지만 ‘하운대’라고 읽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제2항에 따른 표기라 볼 수 있다.

⑤ ‘충청북도’의 ‘도’는 행정 구역 단위에 해당하므로 붙임표를 붙여야 한다. 제5항에 해당하는 표기이다.